

ISSN 2713-9638

經 學

11

2026. 6.

韓國經學學會

經 學 11

2026. 6.

〈일반논문〉

2022 개정 한문 교과서에 구현된 경학 전통의 생활화 양상 연구 김성중	1
『시경(詩經)』의 색상(色相) 연구(研究) 박순철 · 장호철	31
기무라 에이이치(木村英一) 장군(章群) 이론의 계량적 검토 — 『논어』1~5편의 군집 분석과 인문학적 재검토 구간의 식별 김서운	67
‘조선시대 科試 연구’의 성과와 의의 양원석 · 강성규 · 이미진	101
과시(科試) 데이터셋 편찬에 관하여 변은미 · 이길환 · 유인태	151

〈해외 연구 소개〉

성학(聖學)과 문헌 — 키케로, 세네카, 그리고 율곡의 『격몽요결』 스테판 메르시에 저/ 엄국화 역	187
---	-----

〈부록〉

한국경학학회 회칙	/ 227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 231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238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 243
經學 論文 審査書	/ 253
한국경학학회 임원	/ 254
회원가입안내	/ 255
원고 모집 안내	/ 256

2022 개정 한문 교과서에 구현된 경학 전통의 생활화 양상 연구*

김성중**

-
1. 서론
 2. 자기 삶과의 연계
 3.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
 4. 사회로의 확장
 5. 결론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학 전통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학생들의 생활 속에 인식, 활용하게끔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특히 '생활화'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고찰하였는데, '경학 전통의 생활화'는 경학 전통의 수용과 생산을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적용,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22 개정 한문 교과서에 구현된 경학 전통의 생활화 양상은 첫째 자기 삶과의 연계, 둘째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 셋째 사회로의 확장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자기 삶과의 연계의 측면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성찰을 학습자 본인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실생활로 전이하는 활동,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과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한국경학학회 공동 주최 국제학술대회(2025년 12월 12일(금),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 E-mail: zhung1227@hanmail.net

정 등을 확인하였다.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에서는 경학 전통의 가치와 덕목을 자기화하면서 타자와의 관계, 소통에 투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활동을 살펴보았다. 사회로의 확장에서는 경학 전통이 현대 사회의 의제와 연계되고, 현대 사회를 분석·비판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2022 개정 한문 교과서에는 경전 구절에 대한 지식적 이해, 수동자로서의 독해를 넘어 학습자 실생활에 어떠한 의미 있는 관련, 확장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활동을 개발, 적용하는 방향이 구현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학 전통의 생활화는 한문 기록 속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한문과의 필요성 및 역할과 관계 있는 것이다.

주제어: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 경학, 경학 전통, 생활화

1. 서론

본 논문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학 전통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학생들의 생활 속에 인식, 활용하게끔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전 교육 관련한 연구 성과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 검토 또한 진행되었다.¹⁾ 특히 김수경(2024)은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 즉 2007, 2009,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근거해 편찬된 한문과 교과서에서의 유가경전 및 제자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근거해 편찬된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²⁾라는 새로운 범위에

1) 관련 연구 논저 목록은 함영대(2011): 김수경(2024) 참조.

2) 총 28종으로, 중학교 『한문』 교과서 11종,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9종, 고등학교

서 ‘생활화’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먼저 몇 가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경학’, ‘경학 전통’, ‘생활화’가 그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경학’은 ‘유가 경전학’을 말하는데, 유가 경전학의 대상인 유가 경전의 범위와 성격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³⁾ 본고에서는 四書を 포함한 十三經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⁴⁾

‘경학 전통’ 관련해서는 비교적 긴 다음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新明心寶鑑』 편정의 기본 방향은 文明史的인, 다소는 거시적인 眺望에서 취하고 있다. 이 시대가 문명사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이미 세계가 공인하는 바다. 이 위기의 요인 내지 현상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공통되는 바인데, 물질 가치의 압도적 우위, 과학 기술의 경쟁적 우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끝없는 추동, 이 세 가지의 결합·상승이 몰고 오는 자연의 무자비한 착취·파괴와 생존 환경의 심각한 오염, 그리고 도덕 가치의 몰락과 인간성의 황폐화가 그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 시대의 이러한 문명의 심각한 위기에 對應하는 시각에 편정의 기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일상적인 윤리규범의 복고적 재생의 企圖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 책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內的으로는 당연히 이 기본 방향에 포섭되어 있다. 적어도 편정의 의도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크게 두 줄기로 구체화시키려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人間化·道德化와 사람과 自然 사이의 관계의 一體化의 回復이 그것이다. 이것은 곧 이 시대 문명의 바탕이 되어 있는 人間觀과 自然觀, 곧 世界觀 총체의 轉回의 企圖다. 세계관의 전회 없이는 문

『언어생활과 한자』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 1종이다. 구체적인 교과서 목록은 참고 문헌 참고.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중(2011), 160~163면; 김수경(2024), 189~194면 참조.

4) 2022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의 유가 경전 제시 양상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본고의 연구 범위와 일정한 거리가 있으므로 논의를 줄인다.

명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그 사상적 입장에
구애 없이, 그리고 무작위로 임했으나 결과에 있어서 儒家系가 압도적
이 된 것은 이 책이 의도하는 바 목적과 동아시아의 사상사적 상황과의
사이에 빚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다.⁵⁾

한문교육의 측면에서 경학 전통 관련 교수·학습 내용의 지향을 정합
에 있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위 언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편정 방향에 의해 마련된 ‘차례’는 경학 전통
관련 교수·학습 내용 선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차례			
	머리말	1	
	編定의 方向	3	
	일러두기	6	
제 1 장 道德의 主體의 정립		제 4 장 共同體의인 삶	
1. 爲己之學	13	1. 共同體의 인식	155
2. 道德主體로서의 心性	23	2. 忠恕	160
3. 天에의 畏敬	29	3. 나눔의 삶	166
4. 克己	35	4. 인생의 叡智	173
5. 自反	41		
6. 正己	46	제 5 장 公人의 道	
7. 養德과 行善	55	1. 公職人의 基本 人格	183
제 2 장 家族으로서의 나		2. 廉潔	187
1. 가정의 두 志向	67	3. 公正	195
2. 孝(1)	72	4. 職分에의 誠實	200
3. 孝(2)	83	5. 愛民	206
4. 友愛	90		
5. 부부의 情과 義	98	제 6 장 나라를 위하여	
6. 가정에서의 教育	110	1. 愛國	215
제 3 장 待人의 도리		2. 國難에 臨하여	226
1. 禮의 정신	119	3. 節義	244
2. 交友의 道	124		
3. 스승에 대한 姿勢	134	제 7 장 自然에 대한 윤리	
4. 어른에 대한 禮節	141	1. 物我一本	255
5. 交際의 正道	144	2. 自然生機에의 愛情	258
		3. 愛物	263
		4. 자연과의 心性的 交感	270
		5. 자연의 類推의 受容	276
		6. 自然物의 節用	280
		附錄: 人物 出典 紹介	

〈그림 1〉『新明心寶鑑』 차례

5) 고려대학교 편정(1995), ‘編定의 方向’.

‘차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의 유가 경전 교육 관련 연구논저들에서 다루어졌던 가치, 덕목, 주제, 내용 등⁶⁾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분류, 조직 또한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 ‘차례’를 인용한 이유는 이를 경학 전통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⁷⁾ 중등교육에서 경학 전통을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생활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참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 같은 교재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교사의 불완전성과 역할의 차별성이 그 근거로 제시되는데⁸⁾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차례’의 항목은 역시 참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화’라는 용어는 국어교과의 선행 연구에 힘입은 바 큰데, 한국문학교육학회가 2001년부터 ‘문학생활화’를 기획 주제로 하는 등 문학교육의 화두로 등장했으며⁹⁾ 이 논의의 촉발은 김대행¹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문학 생활화’라는 학습 요소는 중요하게 제시된다.¹¹⁾ 김대행은 ‘생활화’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파악하면서,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視角)’을 정적(靜的)에서 동적(動的)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정적 시각에서의 문학은 거기 그렇게 있는 실체(實體)라면 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학은 생생하게 움직이는 동체(動體)이자 끝없이 완성되고자 생동하는 활동으로 보이게 된다.¹²⁾ 형식을 이해하고 내용, 주제를 파악하는 지식의 수용적 측면이 정적인 시각의 소산이라면, 동적

6) 이에 대해서는 용어는 다소 다르지만 기존 논문들에서 일부 밝힌 바 있으며, 함영대(2018)에서 ‘가치 설정’이란 접근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7) 해당 책의 ‘자연생기에의 애정’ 같은 항목에는 유가경전 글감이 없다.

8) 배두본(1999/2014), 8~9면 참조.

9)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명기(2020), 22~25면 참조.

10) 김대행(2001) 참조.

11)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생활화’라는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김대행(2001), 10~11면 참조.

인 시각에서의 문학 작품은 “활동의 좋은 본보기이자 또 그것을 수용하는 자에 의해서 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료”¹³⁾의 의미를 갖게 된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해설에서는 문학의 생활화를 “문학의 생활화는 예술로서의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일을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¹⁴⁾라고 정의하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고 넓게 하고,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자신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¹⁵⁾라고 설명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김대행의 논의를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활화’라는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의 교수·학습의 방향에 모두 “학습 내용이 실생활에 쉽게 전이되어 학습자가 지식을 실제로 적용·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¹⁶⁾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학습으로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과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¹⁷⁾하기 위함임을 명기하였다. 이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 “학습자, 가정,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습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교 급 간 및 다른 교과와의 융합·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¹⁸⁾와 ‘명언·명

13) 같은 논문, 11면.

14)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15)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 상, 모든 교과에 ‘해설’이 별도 발행되어서 이처럼 자세한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교육과정 즉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해설’이 별도로 발행되지 않는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학의 생활화’ 역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동소이하다.

16) 교육부(2022),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10, 27, 40면.

17) 같은 곳 참조.

구 암송하기' 교수·학습 방법에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¹⁹⁾라는 서술과 비교한다면, 보다 실생활로의 적극적 활용이자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수·학습 방향의 변화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에도 나타나는데 '편찬의 기본 방향'에서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표현 상의 차이는 있지만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한문과의 성격으로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의 이해', '자아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 함양'²¹⁾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경학 전통에서 강조하는 덕목, 가치 등은 바로 한문과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이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고는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한문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경학 전통의 생활화, 즉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경학 전통을 학생들의 생활 속에 인식, 활용하게끔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하는바, 첫째 자신의 삶과의 연계, 둘째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 셋째 사회로의 확장이라는 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²³⁾

18) 교육부(2015), 19, 40, 60면.

19) 교육부(2015), 16, 37, 5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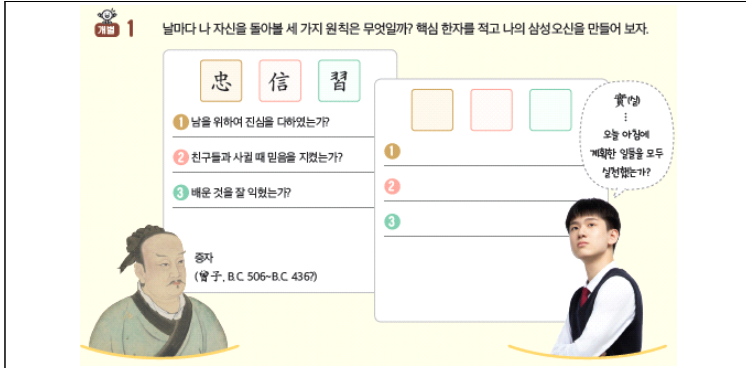
20) 충청북도교육청(2023), 참조,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충청북도교육청(2015), 1, 7면]와 비교하면 2022 편찬 방향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1) 이는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으로 기술되어 있다.

22) 『大學』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팔조목은 바로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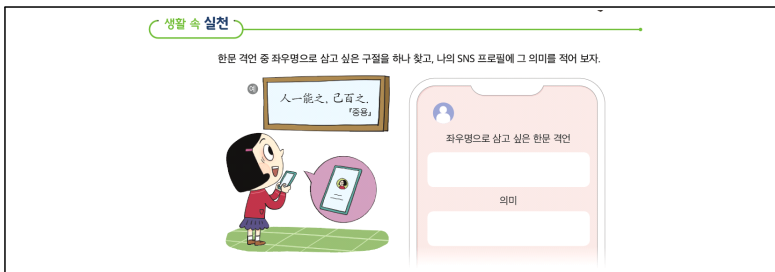
23) 세 가지 접근 방법은 필자가 2022 개정 한문과 교과서 전체를 분석한, 귀납적 결과이지만, 반드시 이 세 측면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자기 삶과의 연계



〈그림 2〉 ‘중-미래엔’,²⁴⁾ 129면, ‘삼성오신으로 독서하기’ 일부

『논어』의 ‘삼성오신(三省吾身)’ 속에 담긴 선인들의 삶의 성찰을 학습자 본인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나만의 ‘삼성오신’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선인의 성찰 형식과 내용을 본받아 나의 실생활에 전이하는 방법이기에 중학교 수준에서도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고한-동아출판’, 64면

24) 송혁기 외(2025), 중학교 『한문』, 미래엔으로 이하 ‘중-미래엔’으로 약칭한다. 고등학교에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한문’, 융합 선택 과목으로 ‘언어생활과 한자’가 있다. 구분을 위해 전자는 ‘고한’, 후자는 ‘언한’으로 칭한다.



물건에 새긴 마음, 잠명(箴銘)

‘잠명’은 ‘경계할[箴] 만한 내용을 새긴[銘] 글’로, 선조들은 자신의 잠명을 물건에 새겨 품고 다니거나 일상에 가까이 두어 늘 잊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글을 새길 물건을 정할 때도 글귀의 의미와 물건의 쓰임이 통하는 것을 골라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글귀에 담긴 교훈을 되새기려 하였다. 이를 실천하며 의지를 굳건히 다진 옛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 보자.



인물

중국 은(殷)나라 탕왕(湯王)

구절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으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의미

매일 세숫대야에 얼굴을 씻듯
새 나라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겠다는 다짐

생활 속 실천

나의 잠명으로 삼을 한문 문장을 골라 책갈피로 만들어 보자.

④

己所不欲, 勿施於人. 『논어』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림 4〉 ‘고한-동아출판’, 70면

〈그림 3〉은 ‘SNS’라는 디지털 일상 공간으로 가져온 것이고, 〈그림 4〉의 ‘책갈피’는 물건에 새겨 일상에 두고 반복적으로 접한다는 잠명 고유의 물질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SNS’, ‘책갈피’ 모두 학생들이 매일

접하는 대상이므로 좌우명, 잠명의 실천을 극대화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삶에서 내가 본받거나 반성해야 할 점 세 가지를 뽑아 서술해 보자.

또, 이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글자의 한자를 선정해서 나의 하루를 살펴보자.

예

中

: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평생 후회로 사는 형이를 보며, 욕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를 돌이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감정이 위로도 아래로도 솟구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운데 중'을 골랐다.

주

: 세상 사람들은 범죄자의 가족도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한다. 나는 여기에서 그 사람 자체의 본모습을 마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평평하다 평'을 골랐다.

溫

: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표현을 냉정하게 하는 동이를 보며 내 진심을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말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따뜻하다 온'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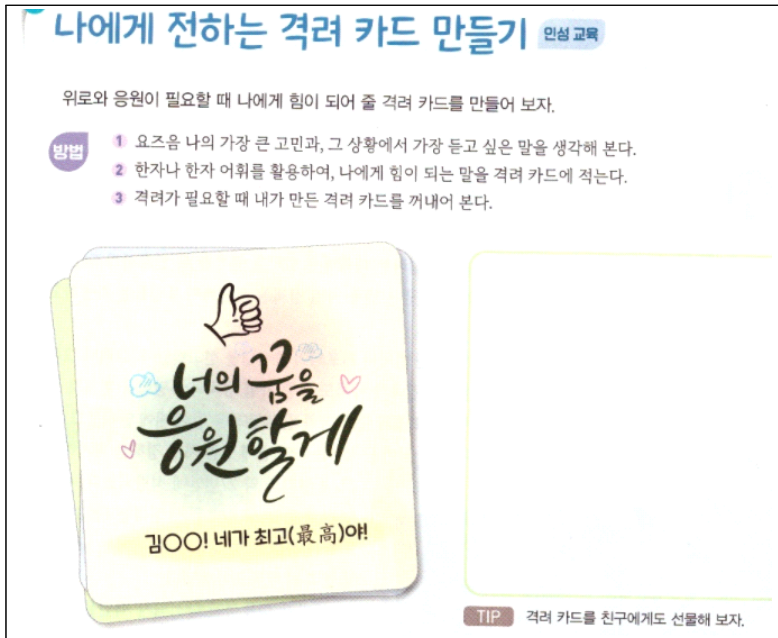
:

:

:

〈그림 5〉 ‘중-미래엔’, 182면, ‘삼성오신으로 독서하기’ 일부

〈그림 5〉는 인상 깊게 읽었던 책과 줄거리,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를 소개하는 첫 번째 활동 다음 이루어지는 두 번째 활동이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본받거나 자아 성찰하는 방법을 독서 활동으로 전환해서 적용하고 그 독서 경험을 다시 자신의 일상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환류한 것이다. 즉 독서-본받음/성찰-일상 자기 점검이라는 구도를 만든 것인데, 경학 전통이 학습자의 일상 독서 습관으로 전이되는 생활화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고한·비상교육’²⁵⁾, 77면, ‘三省吾身’ 관련 활동

曾子의 “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는 모두 ‘不’로 표현되는,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반성적 측면이 강하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태도를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격려와 응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6〉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존감, 자기 위안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경학 전통이 성찰에서 일상의 치유로 확장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 학생들의 고민 중 큰 부분은 진로에 대한 것이다. 『논어』의

25) 고등학교에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한문’, 융합 선택 과목으로 ‘언어생활과 한자’가 있다. 구분을 위해 전자는 ‘고한’, 후자는 ‘언한’으로 칭한다.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구절은 진로 선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종 인용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 문장과 ‘커리어넷’을 연결해 심리 검사를 안내하기도 한다.

생

각

속

생

각

- 흥미 검사 -

커리어넷, 직업 흥미 검사(시험)

▶ 자신이 즐기는 것,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음 흥미 유형을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 보자.

- 관습형: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세심하고 꼼꼼하다.
- 실재형: 현실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직접 느끼고 움직이는 체험을 중시한다.
- 기업형: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 모험을 시도하고 경쟁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그림 7〉 ‘중-글샘’, 61면, ‘知之者不如好之者~’ 관련 활동

교수자는 위에 제시된 3가지 유형 외에도,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등을 추가로 언급하면서²⁶⁾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도움을 받게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경전 구절을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진로 설계라는 것으로 연결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인 것이다.

26) ‘중-비상교육’ 75면에는 6개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8〉 ‘고한-다락원’, 133면

공자의 삶을 단계적 자기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한 뒤 이를 학습자 본인의 현재 및 미래와 연결하는 교수 학습법은 경전 구절 그리고 어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22 개정 한문과 교과서에는 특히 자신의 삶과 연계된 활동이 많은데 아마도 경학 전통에서 ‘수신’ 즉 ‘도덕적 주체의 정립’²⁷⁾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앞의 활동에서 보았듯이 교과서 필자들은 학습자 자신의 삶의 다각적인 측면으로의 적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경학 전통의 실생활로의 전이를 다양하게 달성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타자와의 관계와 소통

모든 교과서에서 친구, 우정과 관련된 제재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중·고등학생에게 있어서 화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인의 ‘한 그루의 우정 나무를 위해’라는 시를 제시하고, “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²⁸⁾ 같은 활동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채택하는 교수학습 내용이자 방법이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는 성어의 재구성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면서 교우 관계에 대한 나만의 가치를 정립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7) 앞에 제시한 『新明心寶鑑』의 ‘차례’에 있는 용어이다.

28) 고한-다락원, 49면.

〈예시〉처럼 한자 1개를 바꿔서 친구 사이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예시) 朋友有信. ⇒ 朋友有 親 .		朋友有 .	
음	붕우유친	음	
풀이	친구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풀이	
이유	예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한 친구와 함께 어울려 놀면 즐겁고 신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	

〈그림 9〉 ‘중-장원’, 61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과서 재구성 등이 교육계의 큰 흐름 중 하나이고 한문 교과에서는 원문을 가공하는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다.²⁹⁾ 위 그림은 그러한 방법을 경학 전통의 핵심인 오류 가운데 하나인 ‘붕우유신’에 적용한 예인데, 개념 내지 가치를 자기화하면서 그것을 타자와의 관계, 소통에 투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29) 이러한 활동의 의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며, 그러한 존재가 학습자 주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에 있다. 漢詩의 경우, 한 구 전체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활동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내 친구와 어울리는 한자는 무엇일까? 친구와 어울리는 한자를 하나 고르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자.

친구와 어울리는 한자 이유	나의 친구 에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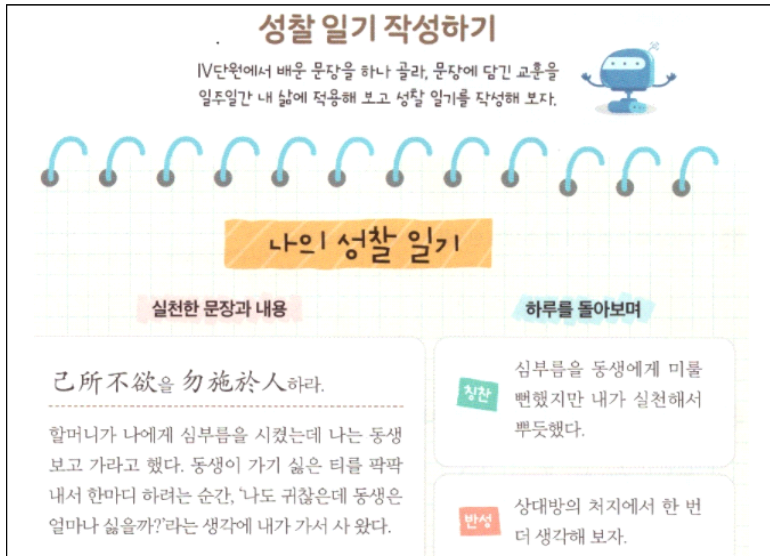
〈그림 10〉 ‘고한-비상교육’, 35면

〈그림 10〉은 본문의 글감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등과 연계된 활동이다. 위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타자와의 관계, 소통과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친구에 대한 관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친구의 특징적 면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한자를 찾는 과정으로, 한문 교과 시간에 배운 한자 혹은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탐구가 진행된다. 앞선 ‘朋友有□’이 관계의 가치, 덕목을 정의하는 것이라면 이 활동은 친구의 고유한 특성을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구체적 생활화이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표현하는 것은 실제 소통의 과정이자 실천이라 할 수 있다.

‘己所不欲, 勿施於人’은 중학교 한문 교과서 11종 중 8종에 실려 있는 글감이다. 해당 글감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실천 관련한 나의 다짐 쓰기³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기³¹⁾ 등의 활동이

30) ‘중-천재’, 125면.

제시되었는데, 다음 두 활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중-와이비엠’, 103면

〈그림 11〉은 경전 문장을 실제 행동 규범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앞의 활동과는 약간 다른데, 일기 형식이어서 일회성, 단발성 활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활용되었다는 특징도 있다. 경전 구절이 지식의 측면을 넘어 반복 체화, 실행될 수 있다는 적용의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1) ‘중-미래엔’, 136면.

나의 생각을 써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학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학교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적어 봅시다.

미루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그림 12〉 ‘중-비상교육’, 102면

〈그림 12〉의 활동은 학습자가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 그 환경에서 다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은 일과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의 구분은 타인에게 미루는 행위 등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사고하게 한다. 또한 친구와의 생각 비교는 타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통과 공감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강조한,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한다³²⁾는 한문 교과의 필요성과 역할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32) 교육부(2022), 5면.

4. 사회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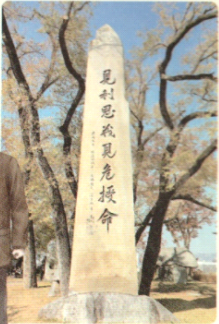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

활동

민족의 英雄 안중근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만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射殺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로운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라.”라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공소권을 포기한 채 뤼순 감옥에서 저술에 힘썼다. 안중근은 1910년 3월 9일, 순국하기 전 최후의 遺言을 남겼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 되거든 고국에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의로움이란 어떤 것인가요



▲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을 새긴 비석



개념 1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의로운 사람을 흔히 ‘의인’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 의로움을 몸소 실천한 분의 사례를 조사하고 느낀 점을 적어 보자.

의인 탐색 기사 감사장 받다

○○ 택배 회사는 목욕탕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속한 심폐 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택배 기사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하락)

2020년 ○○월 ○○일 ○○일보

 기사를 찾아 읽어 보니 택배 기사님은 처음 겪은 상황이라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쓰러진 어르신을 보고 심폐 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한다. 의인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신문을 검색하면 우리 사회 많은 의인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

• 사례: _____

• 느낀 점: _____

〈그림 13〉 ‘중-미래엔’, 141면, ‘見利思義, 見危授命’의 활동

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강조하고³³⁾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적 현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³⁴⁾ 한 문 교과과 과거의 문헌에 대한 탐구를 넘어 현재 삶에서의 의미를 갖는 방향으로 의제를 설정한 것이다.

〈그림 13〉은 『논어』 구절 “見利思義, 見危授命”의 실천 예를 안중근 의사의 삶과 유묵을 통해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인의 경학 전통의 생활화를 나타낸 것으로 그 가치는 소중하고 존경의 대상이지만 자칫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적 삶과 거리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교과서에서는 의로움의 실천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택배 기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실천 측면에 있어 경학 전통의 생활화가 학생들의 삶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으며,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見利思義, 見危授命”을 실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말하다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여, 사회 지도 계층에게 사리사욕을 경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통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회 고위층의 공공 봉사 and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럽의 교양 있는 상류층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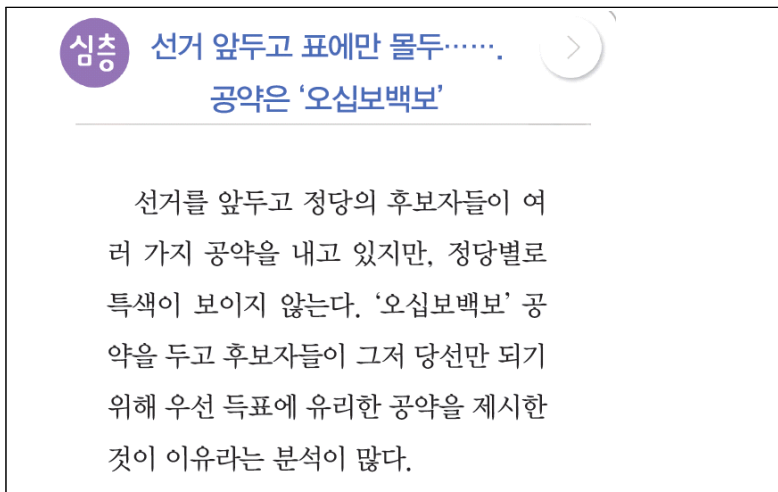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웨덴의 금융·항공·통신·가전 등의 14개 대기업군을 거느리며 스웨덴 주가 총액 40%를 장악하고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집안이지만 경영권을 계승하는 후계자는 자질과 철저한 도덕적 감증을 거친 후 반드시 2명으로 선정된다. 후계자가 2명인 이유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 전횡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이 가문 사람들의 어느 누구도 세계 1,000대 부자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다. 기업의 파트너로서 노조의 대표를 반드시 경영진에 포함하고, 수익의 85%를 법인세로 국가에 환원한다.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발렌베리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150년간의 전통으로 지속되고 있다.

※참조: “EBS 지식채널e” ‘후계자들’(2014년 1월 7일 방송)

〈그림 14〉 ‘고한-대학서림’, 115면,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글감 자료

33) 같은 책, 9면.
34) 같은 책, 10면.

공자 정치의 핵심이자 술선수법의 경구로 회자되는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구절을 통해 고위층 인사의 도덕적 의무를 설파하는, 경학 전통과 현대 사회의 의제와의 연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의 현재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할 듯하다. 경학 전통에 있어 공동체의 인식, 나눔의 삶을 체화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³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중·천재교과서’, 89면, ‘五十步百步’ 성어 자료

〈그림 15〉는 “배운 성어 중 하나를 골라 성어를 제목으로 활용한 가상의 신문 기사를 작성해 보자”는 예시로 제시된 것이다. 현대 사회를 분석,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 분석, 비판적 생활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문 기사 작성’은 그 분석, 비판이

35) 교육부(2022), 5면. 한문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중학교 ‘한문’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한문’ 등에도 제시되어 있다.

즉흥적, 감상적이 아닌 체계적 논리적 과정으로의 실천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似而非 사이비를 싫어한 공자

‘사이비’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實際(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은 맹자와 그의 제자인 만장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만장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공자는 향원(鄉愿: 마을의 신망을 얻기 위하여 선량함을 가장하는 위선적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맹자는 “공자께서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다.[孔子曰惡似而非者 공자(원)오사이비지]”라고 답하였다. 결국 향원은 사이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 내용처럼 공자는 사이비를 아주 미워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 사람을 현혹하기 때문이었다. 外樣(외양)만 비슷한 사이비에 속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해야 한다는 경계를 담고 있다.



▲ 공자 초상

생각과 나눔

🔊 아래 예시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쓰인 ‘사이비’라는 어휘를 찾아서 한 줄 뉴스를 만들어 보자.

예시 사이비 의료 행위

국회는 관련 의사 단체들과 협의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사이비 의료 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림 16〉 ‘고한-박영사’, 26면

〈그림 16〉 역시 〈그림 15〉와 비슷한 측면이지만 경학 전통이 현대에도 유효한 개념이라는 것을 일상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활동으로, 추가적으로 ‘한 줄 뉴스’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내는 능동적 실천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학습자가 직접 창의적으로 현대 사회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로 확장될 수 있다.

“만민(周民)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형벌에만 치중하는 군주의 잘못을 꼬집은 표현이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생계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백성들이 흉년에는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은 현대적 사회 복지 제도의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맞닿는다.

맹자가 주장한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제도를 구상해 보자.

〈그림 17〉 ‘고한-대학서림’, 120, 121면,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관련 자료 및 활동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삶의 양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포용적 태도와 공공선의 적극적 추구를 강조한다.³⁶⁾ ‘복지 제도 구상’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다소 과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서의 ‘無恒產而無恒心’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36) 교육부(2022), 『한문과 교육과정』, 37, 38면.

5. 결 론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까지 한문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심에는 교사 중심, 이해 중심에서 학생 중심, 활용 중심으로의 지향이 존재한다. 즉 기존에 규격화된 주제와 감상은 개별화되고 창의적인 시각과 해석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의 기저에는 학습자의 삶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넘어 생활화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목표가 내재해 있다고 판단된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인성 역량’을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전반을 구성하였다.”³⁷⁾는 언급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경학 전통에 있어서도 경전 구절에 대한 지식적 이해, 수동자로서의 독해를 넘어, 학습자 실생활에 어떠한 의미 있는 관련, 확장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활동을 개발, 적용하는 방향의 설정이 2022 한문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면모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한문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경전 원문에 기반한 경학 전통의 생활화 방법과 내용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인 『언어생활과 한자』 7종에는 본문에서 보이는 방법과 내용이 거의 있지 않았음도 알 수 있었다.³⁸⁾ 그 이유는 아마도 ‘언어생활과 한자’ 과목

37) 교육부(2022), 『한문과 교육과정』, 3면.

38) ‘사단(四端)’, ‘극기복례(克己復禮)’ 등의 어휘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활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정리 및 발표”(‘언한-천재교과서’, 113면), “맹자, 순자, 고자 등 세 사람의 주장 중,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주장을 한 사람을

의 목표, “핵심적·필수적 한자 어휘를 익혀 원활하고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름으로써 공감 능력과 공동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언어생활과 한자’는 일상 생활 용어를 중심으로 다루고 언어로서의 ‘한문’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경학 전통의 생활화가 적극 구현될 수 있는 체제, 구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용도서 편찬 방향’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 도서”³⁹⁾이기 때문이다. 『한문 고전 읽기』 1종에 대해서도 검토는 했지만 이른바 동적인 시각보다 정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생활화’라는 개념이 한문교육계에 처음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향후 한문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의 보완할 점과 함께 지속되기를 바라는바 그 목적은 “한문 기록 속에는 귀감이 되거나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기초적인 한문 독해 능력을 길러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한문 과의 필요성 및 역할과 관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될 때 경학 전통의 생활화는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인 중·고등학생들이 한문 교과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 서술”(‘언한-씨마스’, 153면)과 같은, 이른바 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39) 충청북도교육청(2023), 3면.

참고문헌

1. 단행본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20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7]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충청북도교육청(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충청북도교육청(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중학교 『한문』 교과서 총 11종

김용재 · 류준경 · 정규돈 · 진태훈 · 조은 · 허도운(2025), 중학교 『한문』, 와이비엠.

김우정 · 주석준 · 최중형 · 하승완 · 안병후 · 김안나 · 강예슬(2025), 중학교 『한문』, 동아출판.

김택수 · 채기수 · 주혜림 · 김지희(2025), 중학교 『한문』, 글샘교육.

송재소 · 배기표 · 김호기 · 변유경 · 김충겸 · 신미경 · 조해진(2025), 중학교 『한문』, 다락원.

송혁기 · 김은경 · 송태명 · 송호빈 · 홍경원 · 김원용(2025), 중학교 『한문』, 미래엔.

안대회 · 장현곤 · 서문기 · 김준우 · 고진성 · 홍진화 · 남윤혜(2025), 중학교 『한문』, 천재교과서.

윤미정 · 김혜진 · 김주화 · 우희진 · 이승용(2025), 중학교 『한문』, 대학서림.

이동재 · 김병철 · 공민정 · 손형태 · 정효영(2025), 중학교 『한문』, 비상교육.

조영호 · 김은진 · 김태정 · 임재범(2025), 중학교 『한문』, 교학사.

진재교 · 신영주 · 조수현 · 배자연 · 김득범(2025), 중학교 『한문』, 장원교육.

최상근·이지곤·원주용·임현재·김혜경·김기찬(2025), 중학교 『한문』, 박영사.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총 9종

김용재·류준경·이덕호·최대운·오주학·김주영(2025), 고등학교 『한문』, 와이비엠.

김우정·주석준·최중형·하승완·안병후·김안나·강예슬(2025), 고등학교 『한문』, 동아출판.

송재소·배기표·김호기·변유경·김충겸·신미경·조해진(2025), 고등학교 『한문』, 다락원.

송혁기·김은경·송태명·송호빈·홍경원·김원용(2025), 고등학교 『한문』, 미래엔.

안대회·장현곤·서문기·김준우·조남신·고진성·김연수·홍진화·남윤희(2025), 고등학교 『한문』, 천재교과서.

이운찬·권경아·고송희·김준영(2025),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이동재·이성형·심의식·박기성·정문희(2025), 고등학교 『한문』, 비상교육.

진재교·신영주·최돈옥·김세원(2025), 고등학교 『한문』, 장원교육.

최상근·이지곤·원주용·임현재·김혜경·김기찬(2025), 고등학교 『한문』, 박영사.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교과서 총 7종

김성중·박동욱·김동규·이정순·김진봉(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씨마스.

김우정·주석준·최중형·하승완·안병후·김안나·강예슬(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동아출판.

송재소·배기표·김호기·변유경·김충겸·신미경·조해진(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다락원.

안대회·장현곤·서문기·김준우·조남신·고진성·김연수·홍진화·남윤희(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천재교과서

이동재·김병철·이성형·심의식·박기성·정문희(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비상교육.

조영호·김은진·김태정·임재범(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교학사.
진재교·신영주·최돈옥·김세원(2025),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장원교육

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 1종

안대회·장현곤·서문기·김준우·조남신·고진성·김연수·홍진화·남윤희
(2025), 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 천재교과서

고려대학교 편정(1995), 『新明心寶鑑』, 고려대학교.
배두본(1999/2014), 『영어교재론 개관』, 한국문화사.

2. 논문

- 김대행(2001), 「문학생활화의 반성과 전망: 문학생활화의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제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 김성중(2011), 「한문 교과서에서 儒經·諸子書의 제재선정 수준과 범위」, 『漢文教育研究』 3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수경(2024), 「한문 고전 읽기」 중 유가 경전·제자서 활용에 대한 이론과 적용 모색」, 『한문교육논집』 6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명기(2020), 「문학생활화에 기반한 <강도몽유록>교재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논문.
- 함영대(2011), 「경전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문교육연구』 제3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함영대(2018), 「중등학교에서 경전·제자서 학습과 인문고전교육」, 『한문교육연구』, 제5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A Study of the Patterns of Everyday Applic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Tradition in the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Textbooks

Kim, Sung-joong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is recognized, applied, and utilized in students' everyday lives through Classical Chinese textbooks compiled under the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spective of "everyday application." The everyday application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can be understood as applying and utilizing the reception and production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with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The aspects of the everyday application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implemented in the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textbooks can be examined from three perspectives: connection with one's own lif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extension into society. Regarding connection with one's own life, this study identified activities that connect the self-reflection of the lives of ancient sages with learners' own lives, transfer such reflections into everyday practice, and promote learners' self-development. Regarding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it examined activities in which learners internalize the values and virtues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apply them to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practice attitudes of respect and consideration toward others. Regarding extension into society, it confirmed that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is connected with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and utilized as a

* Associate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 E-mail: zhung1227@hanmail.net

means of analyzing and critically reflecting on modern society.

The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textbooks move beyond a knowledge-based understanding of passages from the classics and passive reading, instead focusing on how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can establish meaningful connections with learners' real lives and be expanded into them. This direction is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arious learning activities. The everyday application of the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is closely related to the necessity and role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which aim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lives and wisdom of people of the past through Classical Chinese texts and cultivate the character required for future society.

Key Words

2022 Revised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Classical Chinese Textbooks, Confucian Classical Studies, Tradition of Confucian Classics, Everyday Application

논문접수일: 2026.05.24. 심사완료일: 2026.06.11. 게재확정일: 2026.06.24.
--

『시경(詩經)』의 색상(色相) 연구(研究)

박순철(제1저자)* · 장호철(제2저자)**

-
1. 들어가는 말
 2. 색채(色彩)의 인식(認識)과 원리(原理)
 3. 정간색(正間色)과 흑백색(黑白色)의 비유적 활용(譬喻的活用)
 4. 맺는말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시경(詩經)』에 나타난 색상의 비유와 상징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내용이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색상의 비유와 상징성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런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연구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이다. 그 연구 방법은 『시경』 305편의 시 중에서 색상과 관련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분석하는데, 의복과 관련된 시가 가장 많이 분석되었다. 또한 같은 시대의 서책인 삼례(三禮)와 『상서(尙書)』를 참고하여 시의 내용을 심층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시경』의 색상 배색 원리는 전국(戰國) 말기(末期)와 한대(漢代) 초기(初期)에 정립된 음양오행의 배색 원리보다 앞선 것으로 그 선행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 원리는 오색(五色)과 오행(五行)의 관념-정색(正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E-mail: unshan@hanmail.net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E-mail: zhanghaozhe0515@163.com

色)의 상응배합(相應配合)-정색과 잡색(雜色) 및 정색과 간색(間色)의 귀천(貴賤) 관념-위계질서(位階秩序)의 비유(譬喻) 등이다.

주제어: 詩經, 色相, 陰陽五行, 正色, 間色, 綠衣, 緇衣, 黑白

1. 서론

『시경(詩經)』에는 시경 시대 사람들의 색(色)과 색상(色相)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는 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색과 색상의 관념은 비유(譬喻)와 상징(象徵)으로 상용되었다. 이러한 비유는 의복에 반영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패풍(北風)의 「녹의(綠衣)」이다. 이러한 색의 비유와 상징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마왕결(馬玉潔)의 「《詩經》紅白色彩研究」, 담요(譚曉)의 「《詩經》中的“黃”」, 담덕흥(譚德興)의 「試論《詩經》之色彩話語及其文化意蘊」, 이림(李琳)의 「《詩經》中的色彩運用及其文化意蘊」, 서정계(徐正桂)의 「《詩經》色彩的象征意涵」 등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개별 색채 및 색의 운용과 비유 그리고 문화적 함의까지 논하여 그 가치가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미진한 부분을 좀 더 탐구하여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의복과 기타 사물의 색채를 중심으로 색채의 비유와 상징을 표면적으로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비유와 상징이 어떤 원리와 방법에 기초하여 그 비유와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경』 시를 통하여 오색의 관념을 밝히고 오행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오행은 일반적으로 『상서(尙書)』의 「홍범(洪範)」에 수록된 기자

(箕子)의 오행설(五行說)에서 기원하였다고 여긴다. 그 내용은 오행에 관한 것으로¹⁾ 기자가 은(殷)나라가 멸망하자 동쪽으로 옮겨 와 은거하고 있었을 때 주나라 무왕(武王)이 찾아와서 천도(天道)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 오행설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응용되었는데 오행과 오색의 결합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오행의 오색 결합은 전국 말기 추연(鄒衍) 등의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에 의하여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설명에서 주목할 점은 기자의 오행설에는 오행과 오색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홍범(洪範)」 제32장에 ‘서징(庶徵)’이라는 명칭이 있고 우(雨), 양(陽), 욱(燠), 한(寒), 풍(風)을 서징이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이 우는 수(水), 양은 화(火), 욱은 목(木), 한은 금(金), 풍은 토(土)에 속한다고 주석을 하였다.²⁾ 이를 통해 볼 때 「홍범」에서는 아직 오행에 오색을 안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경』의 「녹의(綠衣)」에는 “녹색의 겹옷에 황색의 속옷이로다. (綠衣黃裏)”라는 시구가 있다. 이 시구에 대하여 주희(朱熹)는 『시집전(詩集傳)]의 주석에서 비유의 수법으로 황색은 중앙의 정색(正色)이고 녹색은 간색(間色)인데 간색의 녹색이 옷옷이 되어 귀한 대접을 받고 정색의 황색은 귀중한 색인데 속옷이 되어 천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였다. 주희의 이러한 설명은 오행과 오색을 결합한 오행론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으로 시대의 선후가 맞지 않는다.³⁾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경』 시

1) “一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成百曉 譯註, 『書經集傳』 下, 傳統文化研究會, 2001. 56쪽.)

2) “八庶徵 曰雨 曰暘 曰燠 曰寒 曰風 曰時 五者來備 各以其叙 庶草蕃廩”, “雨屬水 暘屬火 燠屬木 寒屬金 風屬土 吳仁傑曰 易 以坎爲水 北方之卦也 又曰 雨以潤之 則雨爲水矣 離爲火 南方之卦也 又曰 日以暘之 則暘爲火矣”(成百曉 譯註, 『書經集傳』 下, 傳統文化研究會, 2001. 75쪽~76쪽.)

3) 주희가 『예기(禮記)·옥조(玉藻)]에 나오는 정색과 간색의 개념을 사용하여 시의

에서 색상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정지(情志)를 표현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살펴 보고, 그 원리와 방법을 삼례(三禮)의 서적을 참고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원리는 한대의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에 의하여 정론화된 오행론(五行論)의 오색론(五色論)보다 앞서 있던 내용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본 논문의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작업으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2. 색채(色彩)의 인식(認識)과 원리(原理)

『시경(詩經)』에는 시경 시대 사람들의 색채의 인식(색각)과 관념을 알 수 있는 시가 적지 않다. 본 장에서는 『시경』 305편을 대상으로 색채의 인식 및 정색과 간색에 대한 관념과 사유 방식을 검토하고 아울러 동시대의 저작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경』에 나타난 색상의 비유적 표현이 현상적인 측면이라면, 『예기(禮記)』와 『상서(尙書)』의 색상 관련 내용은 원리적 측면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경』과 두 책의 내용은 표리 관계가 있는 책으로 서로의 내용을 호용(互用)할 때 색상을 활용한 표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1) 『시경(詩經)』의 색채인식(色彩認識)과 관념(觀念)

『시경(詩經)』에 나타난 색채와 관련 내용을 색채 인식과 정간색 관념 그리고 정색의 분류로 나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을 설명한 것은 시대의 선후상 문제가 없으나, 설명 과정에서 '중앙토(中央土)'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한대의 오행론의 오색과 오행의 배속을 따른 것으로 시대적으로 선후가 맞지 않은 점이 있다. 시경 시대에는 오행과 오색을 긴밀하게 결합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의 「녹의」시의 분석에 수록되어 있다.

① 색채인식(色彩認識)

시경 시대의 색채 인식(색각)과 관념은 이전 시대의 색의 인식과 관념을 계승하여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경』을 통하여 색에 대한 인식과 관념을 추론해 보면, 천상천기물(天象天氣物), 자연경물(自然景物), 염색기술(染色技術)을 통하여 색을 인식하고 관념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천상은 하늘의 일원성(日月星)과 및 번개 등이고 천기는 하늘의 구름과 비, 안개와 이슬, 서리와 무지개 등이다. 자연경물은 산천과 초목의 색채 그리고 토지의 색깔 등이다. 이 중에서 초목의 색채 인식은 특정 나무와 꽃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당(甘棠)」에서는 감당꽃의 백색(白)과 홍색(紅)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4) 「도지요요(桃之夭夭)」에서는 붉은 복숭아 꽃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색채의 아름다움을 잘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경 시대에는 통염색 기술이 발명되었는데 앞의 천상 물과 천기 물 그리고 자연경물을 보면서 색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이를 모방하여 재현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옷을 만들어 입으며 흙과 숲 그리고 열매와 풀색을 활용한 색의 창조와 재현하는 과정에서 염색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더욱 다양한 색상의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5)

이러한 색의 인식과 관념은 자신의 정지(情志)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었다. 색상이 자신의 정지를 표현하는 데 활용된 대표적인 시는 「채동(蜃蜃)」이다. 채동은 오늘날의 무지개인데 시인이 바로 무지개의 색상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6) 시경 시

4) “甘棠，杜梨也 白者爲棠 赤者爲杜.”(『詩經集傳』上, 56쪽.)

5) 곽렴부와 관연은 “先秦織物染色分石染和草染兩種”라고 하면서 『시경』에 나오는 천초(茜草)와 녹초(莢草)를 인용하여 풀을 활용한 염색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였다.(郭廉夫·郭淵 著, 『中國色彩簡史』, 重慶大學出版社, 2021. 45쪽.)

6) 원문의 제 1장은 “蜃蜃在東，莫之敢指。女子有行，遠父母兄弟”이다. 주희는 채동에

대 사람들은 무지개를 제외하고도 색을 인식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다양한 자연물과 동식물 및 의관(衣冠)과 기물(器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태양과 불의 적색, 달과 이슬과 서리 및 양(羊)의 흰색, 초목의 청색, 고양(羔羊)의 흑색, 우마(牛馬)와 호표(虎豹)의 혼합색, 조류(鳥類)의 다양한 색깔이다. 또한 옷을 만든 원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칙베옷, 삼베옷, 비단옷, 가죽옷이 있는데 염색하지 않은 삼베옷과 비단옷은 흰색 계통이다. 옷의 색깔과 옷을 두른 선과 안감으로 보면, 녹의(綠衣), 치의(緇衣), 고구(羔裘), 경의(褰衣), 금의(錦衣)가 있는데 녹의는 푸른 옷, 치의와 고구는 검은 옷, 경의(褰衣)는 붉은 비단옷이다. 옷을 두른 선의 색깔은 다양하고 안감 또한 다양하였다. 관 또한 소관(素冠), 규변(頰弁), 피변(皮弁) 등으로 색깔이 다양하였다.

② 정간색(正間色)의 관념(觀念)과 분류(分類)

시경 시대 사람들은 색채의 인식을 바탕으로 중요한 색을 선정하여 정색과 간색을 정립하였다. 정색과 간 색의 기원은 우선 기(氣)의 분화 양상(빛의 파장 개념은 없음)을 가시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은 시경에 나오는 「채동(蜃蜃)」이라는 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채동은 무지개이다. 시경 시대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통하여 색상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다음으로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색채의 변화

대하여 “해가 비와 사귀어 갑자기 나타나 혈기와 같으니 음양의 기운이 사귀어서는 안 될 때 사귀는 것이니 천지의 음기이다.”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았다.

- 7) 제임스 폭스는 『컬러의 시간』에서 “눈이 세상의 빛을 등록하고, 정신이 그것을 해석할 때 색이 창조된다.”라고 하면서, 빛의 가시광선을 눈의 광수용체가 수용하여 원뿔세포가 인지하고 다시 전기신호로 바꿔 뇌에 전달하여 해석함으로써 색을 인지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색을 인식함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서 빛나는 색채를 먼저 인식하여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색채의 인식은 먼저 천상물과 천기물에서 강렬하게 느꼈을 것이다.

인식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계절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는 것을 인식한 것인데 봄에는 청색 계열, 여름에는 적색, 가을에는 백색, 겨울에는 흑색을 대표색으로 삼았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 질서의 변화에 상응하여 동조 현상으로 천지의 기운(氣)의 변화를 체득하여 재현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는 물질적, 기술적 원인이다. 초기 염색 기술에서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색이 제한되었지만, 청(靑), 적(朱砂·적토), 황(黃토), 흑(淸), 백(표백된 섬유)은 재현 가능성이 좋은 색이었다. 정색은 물질적인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정색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상서(尙書)·익직(益稷)』에 “오채를 오색에 배풀어 배합한다.”⁸⁾라는 말이 있고, 『예기(禮記)·옥조(玉藻)』에는 “정색으로 옷을 만들고 간 색으로 치마를 만든다.”⁹⁾라는 기록이 있으며, 『예기(禮記)·고공기(考工記)』에는 “동방을 청(靑)이라 부르고, 남방을 적(赤)이라 부르고 서방을 백(白)이라고 부르고 북방을 흑(黑)이라고 부르고 땅을 황(黃)이라고 부른다.”¹⁰⁾라는 기재가 있다.¹¹⁾ 두 책이 시경과 비슷한 시기의 책이므로 시경 시대에 이미 정색과 간색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시경에서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데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는 정색이 『상서』에서 오행과 연결되어 설명되기 시작하였다. 오행의 개념은 『상서(尙書)』의 「대우모(大禹謨)」¹²⁾ · 「감서(甘誓)」¹³⁾ ·

8) “以五彩施於五色”

9) “衣正色，裳間色”

10) “東方謂之靑，南方謂之赤，西方謂之白，北方謂之黑，地謂之黃”

11) 광림부와 광연은 공통으로 지작한 『중국색채간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오색시의도(五色示意圖)’와 ‘방위시의도(方位示意圖)’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오색과 방오위를 결합하여 동방은 청색, 남방은 적색, 중앙은 황색, 서방은 백색, 북방은 흑색으로 배치하여 표시하였다.(郭廉夫·郭淵 著, 『中國色彩簡史』, 重慶大學出版社, 2021. 57쪽.)

12) “德惟善政，政在養民，水火金木土穀，惟修。”

「홍범(洪範)」에 나오는 데 이 중에서 「홍범(洪範)」에는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가 나오는데 상극(相克)의 순서이다.¹⁴⁾ 수는 적심과 내려움(潤下)이고 화는 불타고 올라감(炎上)이고 목은 굽음과 펴짐(曲直)이고 금은 따름과 바꿈(從革)이고 토는 심음과 거둠(爰稼穡)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오행의 성질에 대하여 기초적인 설명이지만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서는 문왕 팔괘의 생수(生數)의 자연적인 순서와 같다.¹⁵⁾ 또한 「홍범(洪範)」에는 서징(庶徵)이라는 명칭이 있다. 서징은 우(雨)·양(暘)·옥(燠)·한(寒)·풍(風)·시(時)이다. 채침(蔡沉)은 주석에서 비는 수(水)에 속하고 양은 화(火)에 속하고 옥은 목(木)에 속하고 한은 금(金)에 속하고 풍은 토(土)에 속한다.(雨屬水, 暘屬火, 燠屬木, 寒屬金, 風屬土)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수는 비가 내려 아래로 흘러가 어두우니 흑색이고 화는 타 올라 빛나니 적색이고 목은 따듯한 봄날에 꾸불거리며 곧게 자라니 청색이고 금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그 성질이 바뀌니 흰색이고 토는 황토에 바람이 불어 곡식에 자라 거두니 황색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상서』에는 오행의 명칭과 성질 그리고 그에 따른 색상은 유추할 수 있으나 아직은 오행과 오색의 방위와 배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경 시대에는 다양한 색채를 인식하여 정색과 간색의 개념을 형성하여 확립하고 정색과 방위를 연결하여 방위에 따라 색을 배치하는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시경』에 표현된 색상

13) “有扈氏，威侮五行，怠棄三正。”

14) 오행의 순서에 대하여 서복관은 실용적인 생활 자료로서의 오행일 뿐 후세의 음양 오행설에서의 그 오행괘의 의미는 다르다하고 하였고, 니덤은 수·화·목·금·토의 순서나열은 오행의 태어난 순서로 보았고 기원전 3세기에 수용된 것으로 보았다.

15) 문왕 팔괘는 북방은 1과 수이고 남방은 2와 화이고 동방은 3과 목이고 서방은 4와 금이고 중앙은 5와 토로 되어 있다. 1에서 5는 생수이고 수에서 토는 상극의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의 토가 중간에서 중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오정색(五正色)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색(靑色): 녹의(綠衣, 邶風), 기옥(淇奧, 鄘風), 자금(子衿, 鄭風), 상청청자화(菁菁者莪, 白華)
- (2) 적색(赤色): 도지요요(桃之夭夭, 周南), 하피농의(何彼穠矣, 召南), 원유도(園有桃, 魏風), 동궁(彤弓, 彤弓)
- (3) 황색(黃色): 탁혜(蓀兮, 鄭風), 황조(黃鳥, 秦風, 祈父), 하초불황(何草不黃, 都人士)
- (4) 백색(白色): 행로(行露, 召南), 겸가(蒹葭, 秦風), 소관(素冠, 檜風) 백구(白駒, 祈父), 담로(湛露, 白華), 백화(白華, 都人士), 행위(行葦, 生民)
- (5) 흑색(黑色): 치의(緇衣, 정풍), 고구(羔裘, 鄭風, 唐風, 檜風), 연연(燕燕, 燕燕, 邶風), 현조(玄鳥, 商頌)

상기의 분류에서는 정색을 대표하는 시구를 선정하여 분류하였고 간색은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경』에는 정색을 제외하고 간색 계통의 색상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간색은 다음 장에서 시를 분석할 때 언급하고자 한다.

2) 『예기(禮記)』의 색상원리(色相原理)

윗장에서 시경 시대에는 색채를 다양하게 인식하여 시적 표현으로 활용하고 『상서』와 『예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색과 간색 그리고 오색과 오방위의 배합 관념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 중에서 삼례 중에서 『예기』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기』를 살펴보면, 첫째,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의 위계 개념이 있다.¹⁶⁾ 정색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대표색이고 간색은 정색의 혼합으로 파생된 색이다. 정색은 순수하고 바른 ‘근본 상태’를 의미하고, 간색은 두 기운이 섞인 파생의 변화의 색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이 점차 정치적·윤리적으로 구획되어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특정 색이 지위를 표시하여 천자는 황색을 주로 사용했고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혼합된 색을 사용한 것이다. 둘째, 상생·상극의 동적 원리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상서』의 오행설이 『예기』에도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예기』에는 색을 고정하여 배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생성하고 제약하는 관계 속에서 배열되었다. 예를 들면, 상생 관계의 순서로 목→화→토→금→수의 관계를 강조하였고, 상극 관계는 그 반대의 제어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복식설(服飾說)에서 ‘상의(上衣)는 생(生)하는 색, 하상(下裳)은 극(克)당하는 색을 배합하여 상극 원리를 상의하상(上衣下裳)에 적용하여 상호 관계를 질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의복의 색상 배합은 정색과 간색 및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다음으로 『예기』에는 의복의 종류가 서술되어 있다.

『예기(禮記)』에서 의복의 ‘종류’는 단순한 복식 분류가 아니라, 신분·의례·신체 구조를 매개로 한 질서의 표현 방식이다. 첫째,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분리와 결합이다. 고대 의복의 기본 형식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분리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예기(禮記)·심의(深衣)』에서는 심의(深衣)를 강조하여 이 둘의 연결을 강조하였다. 이 연결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하늘(상)과 땅(하)을 한 몸에 통합한다는 상

16) 『禮記』『玉藻』에 “衣正色, 裳間色”라는 말이 있다.(權五惇 譯解, 『禮記』, 홍신문화사, 1991. 288쪽)

징적 장치였다. 따라서 의복의 종류는 먼저 상하 분리형(衣裳)과 상하 통합형(深衣)의 이중 구조였다. 둘째, 예(禮)의 등급에 따른 제복(祭服) 체계인데 면복(冕服)을 중심으로 한 분화이다. 이는 천자-경(제후)-대부-사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를 시각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면복은 단순히 한 종류의 옷이 아니라, 면관(冕)과 상의(上衣)·하상(下裳), 폐슬(蔽膝), 혁대(帶), 패옥(佩玉) 등이 결합 된 복합 인구 성이다. 이 안에서 문양, 색, 장식의 수량이 달라지면 동일 형식 내부에서도 다시 위계가 세분되어 표시된다. 즉, 의복의 차별이 서로 다른 옷이 아니라 같은 의복에서도 차등적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의례 상황에 따른 변별과 구분이다. 『예기』에서는 길례(吉禮, 제사), 흉례(凶禮, 상례), 군례(軍禮), 빈례(賓禮) 등에 따라 착용하는 의복이 달랐다. 특히 상례에서는 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喪服)이 강조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슬픔의 정도를 의복의 상태로 표현한 것이다. 참취(斬衰), 자취(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로 이어지는 구분은 옷의 종류이면서 동시에 친족 관계와 애도의 깊이를 정량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상호 간의 친소 관계를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정색과 간 색의 구분, 상하 의복의 분리와 통합(衣裳과 深衣), 면복의 위계적 구분(冕服의 變形), 제복(祭服)의 친소에 따른 구별(상복 체계)인데 그 원리는 단순한 분류가 정치와 사회 질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기』의 색상 배합에서 기본 원리는 정색(正色), 간색(間色), 사계절(四季節) 및 오색과 오방위(五方位)의 대응과 배속이다. 오색(五色)의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을 봄, 여름, 장하(長夏, 土),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오방위에 대응시켜 배속하는 것이다.¹⁷⁾ 응

17) 『禮記』「月令」에는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太皞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簇 其數八 其味酸 其臭羶 其祀戶 祭先脾 東風解冰 蟄蟲始振 魚

용 원리는 색상을 정색(正色)과 간색(間色) 및 상하(上下)와 내외(內外), 길흉(吉凶)의 구분하는 것이다. 간색은 정색을 혼합하여 만드는데 정색을 높게 간색은 낮게 여겼다. 상하의 구분은 상의하상(上衣下裳)으로 정한 뒤 상의와 하상의 색을 다르게 하여 조화와 위계를 표시하였다. 내외 구분은 옷의 겉옷과 속옷의 색상의 배합을 통하여 조화와 위계를 표시하였다. 길흉은 길복(吉服)과 흉복(凶服)을 구분하고 그 색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흉복은 상복이 대표적인데 그 색상은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흰색이 가을의 색상으로 쇠락(衰落), 수렴(收斂), 종결(終結)을 상징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예는 「옥조(玉藻)」, 「월령(月令)」, 「단궁(檀弓)」 등의 편에서 엿볼 수 있다. 「월령」에서는 계절별로 천자가 착용해야 할 의복의 색상이 규정되었는데, 봄에는 청색 계절의 옷과 청옥(靑玉)을, 여름에는 적색, 중앙의 장하(長夏)에는 황색, 가을에는 백색, 겨울에는 흑색을 옷을 입어서 사계절의 기운에 순응하여 활력을 취하였다. 「옥조」에서는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으로 절제와 조화를 통하여 위계질서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천자나 제후와 같은 최고 권력자는 정색의 옷을 주로 입었고 사(士) 이하 계층은 간색의 옷을 주로 입어서 각각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표시하였다. 상의와 하상의 구분은 우선 상의(衣)는 하늘, 하의(裳)는 땅을 상징하고 그 색 또한 천지를 상징한다. 상의는 밝고 상승적인 색, 하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중후한 색을 취하였다. 이는

上水 獺祭魚 鴻雁來”라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오행(五行)은 목(木), 계절(季節)은 춘(春), 십간(十干)은 갑을(甲乙), 오충(五蟲)은 린(鱗), 음(音)은 각(角), 오미(五味)는 산(酸), 오취(五臭)는 전(膻), 오사(五祀)는 호(戶), 오장(五臟)은 비(脾)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갑을은 오행으로 따질 때 목(木)에 해당하기 때문에 봄을 오행에서 목(木)에 소속시킨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예기』에는 오행, 계절, 오색, 오미를 결합하여 이해하고 사유는 체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權五惇 譯解, 『禮記』, 홍신문화사, 1991. 134쪽~137쪽)

‘상하 분별’이라는 윤리-우주론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배합 원리는 단순한 색의 조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위계를 옷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색상 배합의 기본과 응용 원리는 우주와 자연의 사계절의 기운을 취하고 위계질서를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총결하면, 『예기』에 나타난 의상의 색상 배합은 첫째, 사계절(四季節)-오색(五色)-정치 위계질서(位階秩序)의 상하 구조, 둘째,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의 위계적 구분, 셋째,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천지 대응과 구별, 넷째, 길흉(吉凶)에 따른 색채 전환으로 길복(吉卜)과 흉복(凶服)을 흑백(黑白)으로 구분한 것이다.

3. 정간색(正間色)과 흑백색(黑白色)의 비유적 활용(譬喻的活用)

1) 정간색(正間色)의 비유적 활용(譬喻的活用)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조하여 『시경』에서 정색과 간색의 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정지(情志)를 표현한 대표적인 시를 살펴보면 패풍(邶風)의 「녹의(綠衣)」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綠兮衣兮	녹색 저고리 옷이여
綠衣黃裏	녹색 저고리에 황색이 안감이로다
心之憂矣	마음의 근심함이여
曷維其已	언제나 그칠까

綠兮衣兮	녹색 저고리 옷이여
綠衣黃裳	녹색 저고리에 황색이 치마로다

心之憂矣 마음의 근심이여
 曷維其亡 언제나 잊을 수 있을까
 〈北風, 綠衣〉 제1, 2장

제1, 2구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 우선 녹자(綠字)에 대한 주석이 다르다. 녹자를 원문대로 해석하는 경우와 녹자를 단자(祿字)로 여기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모형(毛亨)과 모장(毛萇)은 『모전(毛傳)』에서 시지(詩旨)는 “녹의는 위나라 장강(莊姜)이 자신의 신세를 상심한 시이다. 첩이 윗사람을 참람하여 부인이 자리를 잃고 이 시를 지었다.”¹⁸⁾라고 하고, 제1장 주석에서는 “녹색은 간색이고 황색은 정색이다.”¹⁹⁾라고 하였다. 이는 황색은 정색²⁰⁾으로 겉옷의 색깔이 되어야 하고 녹색은 간색²¹⁾으로 안감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현(鄭玄)은 『모시정전(毛詩鄭箋)』에서 “녹색 저고리 옷이라

18) “綠衣 衛莊姜傷已也라 妾上僭 夫人失位 而作是詩也”(『毛詩傳』)

19) “綠間色, 黃正色”(『毛詩傳』)

20) 오행에서 정색은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이다.

21) 간색을 살펴보면, 동방의 간색은 녹색(청과 황의 혼합), 남방의 간색은 홍색(적색과 백색의 혼합), 중앙의 간색은 류황(驪黃)(황색과 흑색의 혼합), 서방의 간색은 벽색(碧色)(백색과 청색의 혼합), 북방의 간색은 자색(紫色)(흑색과 적색의 혼합)이다. 간색은 오행의 상극(相克) 관계에서 만들어진 다. 목(木)은 토(土)를 극하고, 토는 수(水)를, 수는 화(火)를, 화는 금(金)을, 금은 목을 극한다. 정색이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계절과 오행을 표시하지만 간색은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군왕의 제복이나 제사용 기물에는 정색을 사용하고 간색은 상대적으로 일상적이거나 하위 영역에 배치되었다. 정색과 간색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으로 보면 정색은 권력의 독점 언어이고, 간색은 그 바깥에서 확산되는 실천적 색채다. 예컨대 황색은 황제의 것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황색 계열의 간색이 널리 쓰인다. 둘째, 미학적으로 보면 정색은 명확하고 단호한 대비를 만들지만, 간색은 그 사이에서 미묘한 감각과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당·송 이후 회화와 직물에서 자색·녹색 계열이 발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인식론적으로 보면 정색은 분류와 규범의 산물이고, 간색은 연속성과 변화의 표지다.

이니 모두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대는데 지금의 단의는 오히려 황색으로 안감을 뒀으니 알맞은 예법이 아니다. 그리하여 첩이 위로 참람함을 비유한 것이다.”²²⁾라고 하였다. 정현은 녹자를 단자로 보고 단의(袞衣)로 해석하였다. 단의는 제복(祭服)인데 제후의 첩이 입는 제복이다. 제후는 부인과 첩이 있는데 그들이 입는 제복은 서로 다르다. 제후 부인은 제복으로 휘의(褱衣; 현색(玄色) 바탕에 오채(五彩) 적문(赤文)), 유적(揄狄; 청색 바탕에 적문), 궐적(闕狄; 적색 바탕에 단순화된 적문)이 있다. 첩들도 등급에 따라 입는 제복이 서로 다른데 그 순서는 국의(鞠衣), 전의(展衣), 단의(袞衣)이다. 국의는 황색이고 전의는 흰색이고 단의는 흑색인데 모두 흰 비단으로 안감을 한다.²³⁾ 정현은 이러한 예법에 근거하여 단의를 입는 신분이 가장 낮은 첩이 안감을 황색으로 하였기 때문에 황색의 국의를 입는 첩을 참람하게 침범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현은 제복을 입은 과정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첩이 상위 등급의 첩을 침범하여 예법을 어긴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공영달(孔穎達)은 『모시정의소(毛詩正義)』 소(疏)소에서 모형설(모형설)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나서 “녹색 옷이 순색이 아니면서 정색을 침범한 것이이 첩이 천한 사람으로서 귀한 이를 능멸한 것과 같은 것이다. 부인이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 것이니, 어느 때 그칠 수 있겠는가.”²⁴⁾라고 하였다. 공영달의 해석은 모시설을 따라 추가적으로

22) “祿兮衣兮者 言祿衣自有禮制…祿衣黑 皆以素紗爲裏 今祿衣反以黃爲裏 非其禮制也 故以喻妾上僭”(『譯主 毛詩正義2, 124쪽~125쪽)

23) 이렇게 차등을 정하는 것은 오행(五行)에 따른 것이다. 황색은 토, 백색은 금, 흑색은 수로 상생의 관계로 순서가 정해진 것이다. 또한 공간적 위치와 깊이에 따라 황(外·中心·궁적) → 백(중간·매개) → 흑(내부·은폐) 등으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한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24) “綠衣以邪干正 猶妾以賤陵貴 夫人既見疏遠 故心之憂矣 何時其可以止也”(『譯主 毛詩正義2, 1264쪽)

설명을 한 것으로 정현과는 그 취지가 다르다. 정현은 예복의 규정을 가지고 첩들 간의 참람함을 비유했다고 본 반면, 공영달은 정색과 간색의 개념을 가지고 정실과 첩간의 참람함을 비유했던 것으로 보았다.

송대의 주희는 『시집전(詩集傳)』에서 제1장 주석에서는 “비(比)이다. 녹(綠)은 창색(蒼色)이 황색(黃色)을 이긴 중간색(中間色)이요, 황(黃)은 중앙토(中央土)의 정색(正色)이다. 간색(間色)은 천한데 이것으로 상의를 만들고, 정색(正色)은 귀한데 이것으로 속옷을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제자리를 잃었음을 말한 것이다.”²⁵⁾라고 하였고, 제2장 주석에서는 “비(比)이다. 옷옷을 의(衣)라 하고, 아래옷을 상(裳)이라 한다. 『예기(禮記)』의 <옥조(玉藻)>에 ‘의(衣)는 정색(正色)으로 하고 상(裳)은 간색(間色)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녹색으로 의(衣)를 만들고, 황색은 속옷에서 더 전락하여 상(裳)이 되었으니, 제자리를 잃음이 더욱 심한 것이다.”²⁶⁾라고 하였다. 주희의 설명은 모시설과 공영달의 설을 따른 것으로 정색과 간색을 바탕으로 겹옷과 속옷 및 상의와 하상의 색상 배치가 잘못된 것으로 정실과 첩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비유했던 것으로 본 것이다.

현대의 시경 학자로 등지신(滕志賢)은 『시경독본(詩經讀本)』에서 “이 시는 남편이 죽은 아내를 추념하며 그리워한 것이다. 「모시서」에서는 위나라 장강(莊姜)이 자신의 신세를 상심한 시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시 중에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 …1장과 2장은 녹의를 보고 끊임없는 근심과 그리움을 일어났음을 서술하였다.”²⁷⁾라고 하였다. 등지신은 『모시

25) “比也 綠 蒼勝黃之間色 黃 中央土之正色 間色 賤而以爲衣 正色 貴而以爲裏 言皆失其所也”(『詩經集傳』, 77쪽)

26) “比也 上曰衣下曰裳 記曰 衣正色 裳間色 今以綠爲衣 而黃者自裏轉而爲裳 其失所益矣”(『詩經集傳』, 77쪽)

27) “此蓋丈夫追思亡妻之詩. 『詩序』以爲衛莊姜傷己之詩, 然詩中未見其證. …一, 二章抒寫因睹見綠衣而引起無盡憂思.”(『詩經讀本』, 67쪽)

전』의 설명과 이전 주석가의 모든 설을 취하지 않고 시의 내용만을 가지고 시의 내용에 의거하여 해석을 하였다.

이상의 설을 종합해 보면, 현대 시경 학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색과 간색 관념과 『예기』의 예제에 의한 예복을 근거로 해석한 것이다. 『모전』은 또한 『춘추전(春秋傳)』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여 시의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모시와 주희의 주석은 정색과 간색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²⁸⁾ 주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행설까지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오행설이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에 이론화되기 시작하여 추연(鄒淵)을 거쳐 동중서(董仲舒)에 의하여 완성된 점을 고려하면, 시가 지어진 이후의 이론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시를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현의 관점은 『모전』과 주희와는 다르다. 정현의 주석은 『주례·천관』을 인용한 설명한 것이다. 그 취지는 제후의 첩이 예제를 어겨서 참람한 짓을 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낮은 신분의 첩이 윗자리의 첩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정현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예제의 규칙을 어긴 점을 가지고 시의 내용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정현은 이 시를 쓴 시인이 이러한 예제²⁹⁾를 활용

28) 주희가 정색과 간색의 관계로 시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오행의 상생 관계로 보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녹색과 황색의 관계는 오행상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의 연쇄 속에서 녹색(목)은 직접적으로 황색(토)을 낳지 않는다. 그러나 화(火)를 매개로 한 간접 생성 구조를 갖는다. 이는 색채 변환으로 치환하면, 녹색 계열이 점차 온기를 획득하며 황색으로 이행하는 과정—스펙트럼의 가시광선상에서 파장이 짧은 쪽(녹)에서 긴 쪽(황)으로 이동하는 연속성—과 대응된다. 스펙트럼의 가시광선상에서 녹색과 황색은 인접한 파장대(대략 495~570nm 범위) 안에 위치하며, 녹색에 적색 성분이 가미될 때 황색이 형성된다. 이는 고 '청이 변하여 황으로 간다'는 관념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이다. 따라서 녹색의 겉옷에 황색의 안감을 입은 것은 옷차림의 차원에서는 잘 어울리게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29) 고대 의복 색상은 첫째, 서주 이래의 예제 속에서 형성된 의례별·신분별 색 사용 규정. 둘째, 상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계의 깊이를 색의 질감과 농도로 표현하는 체계. 셋째, 전국-한대에 이르러 오행 사상과 결합하면서 등장하는 왕조 단위의 색 독점과 재배치이다.

하여 시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본 것이다. 『시경독본(詩經讀本)』의 해석은 이전의 모든 주석을 배제하고 시에 나아가 시의를 취하는 해석방법(就詩論詩)을 취하여 녹색³⁰⁾ 옷에 황색 안감을 댄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끝없는 근심을 표현한 시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옷의 색상은 아무런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아서 비유적인 표현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녹의』시는 시경 시대에 아직 오행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색과 간색에 대한 인지와 관념이 있는 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의복제도를 만들어 신분의 차등을 표시한 제도가 있었는데, 시인이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시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현의 관점이 시경 시대의 문화와 사상적 배경을 고려할 때 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색상의 관념이 누적되어 한대의 오행론 정립에 기초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시경 시대에는 색상이 의복의 중요한 요소였고 그 색상의 선택과 조합은 오행론보다 본능적인 색채 인식과 오색의 정립과 중시 그리고 정색과 간색의 구별을 통하여 예복 제도를 만들어 신분의 차등을 구분하여 나타냈다는 것이다. 정현의 설을 중심으로 색상의 배합을 살펴보면, 단의는 검은색 겹옷에 흰 안감을 댄 것으로 그 색상의 관계는 흑-백의 관계이다. 이 흑백의 관계를 무슨 원리를 적용하여 어떻게 배합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시경 시대에 사계절-오색-오방위의 개념이 있었다고 할 경우, 그 배합은 오색 간의 관계로 상반 색의 대비이다. 이러한 대비를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설명하면 상극 관계의 조화이고 오늘날 색상의 개념으로 보면 보색 관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경 시대 사람들은 색의 상반의 결

30) 『예기·월령』에는 계절에 따른 색이 규정되어 있는데 봄의 색이 청으로 규정되어 목기(木氣)의 발현으로 여겼다. 이 청은 오늘날의 순수한 그린(green)이라기보다 청·녹이 혼재된 스펙트럼상의 색이다. 다시 말하면 녹색은 청의 내부에서 분화된 상태의 색이다.

함을 통하여 조화를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풍(衛風)의 「석인(碩人)」의 “의금경의(衣錦褻衣)”과 정풍(鄭風)의 「봉(丰)」의 “의금경의, 상금경상(衣錦褻衣, 裳錦褻裳)”에서도 「녹의」와 같은 색상의 배합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 뜻은 “비단옷을 입고 홑옷을 걸쳤다.”라는 뜻이다. 비단옷은 오색의 문채가 화려한 옷이고 홑옷은 세갈포(細葛布, 細麻布)로 만든 흰색 계통의 얇은 옷이다. 화려한 옷의 무늬 광채가 밖으로 너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린 것이다. 자신의 재주와 공덕이 너무 드러나지 않게 가려서 겸손해 하는 것을 비유하였다. 그런데 비단옷은 오색을 조합한 옷도 있지만 녹색의 비단옷과 황색의 비단옷이 주로 있었다. 시구의 내용과 오행으로 추측하면 본 시구에서 비단옷의 색은 녹색 계통의 비단옷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녹색은 간색(청과 황이 혼합된 색)으로, 목과 토 사이의 중간이다. 생장(木)의 기운이 중앙(土)의 영향을 받아 조율된 상태를 상징하지만 목(木)에 속하는 색이다.³¹⁾ 홑옷은 흰색으로 오행 상금에 속한다. 따라서 오행 상으로 추론하면, 목-금의 상극 관계로 금이 목을 극(克)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로 근거로 하면 녹색의 화려한 비단옷을 흰색의 겹옷으로 가려 화려함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즉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가려서 겸손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비유적 표현이다. 경의의 또 다른 특징은 심의(深衣) 형태의 옷이라는 것이다. 그 특징은 상의와 하의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으로 인간 존재가 하늘과 땅을 매개한다는 상징이 있다. 즉 비단옷이 상하로 분리된 것을 경의가 연결하여 분리와 연결의 ‘질서화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31) 녹색이 목에 더 속하는 이유는 염색의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 비단은 먼저 청색 계열로 염색한 뒤 황색 염료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녹색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2) 흑백색(黑白色)의 비유적 활용(譬喻的活用)

흑백의 비유적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는 「치의」, 3편의 「고구」, 「소관」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의

『시경』에는 흑백색 유관한 시가 있는데 검은색과 관련 시로는 치의(緇衣, 정풍), 고구(羔裘, 鄭風, 唐風, 檜風) 3편, 연연(燕燕, 燕燕, 邶風), 현조(玄鳥, 商頌) 등이 있다. 흑백색이 옷의 색상으로 등장하고 비유적 의미가 있는 시로 「치의(緇衣)」와 「고구(羔裘)」가 있다.

緇衣之宜兮	검은 옷의 어울림이여
敝予又改爲兮	해지면 내가 또 만들어 드리리라
適子之館兮	당신의 관사에 가게 되므로
還予授子之粲兮	돌아와 내가 당신에게 밥을 드리리라

〈鄭風, 緇衣〉 제1장

모전(毛傳)에서는 이 시의 시지(詩旨)에 대하여 “치의(緇衣)는 무공(武公)을 찬미한 시(詩)이다. 부자(父子)가 모두 주(周)나라의 사도(司徒, 토지와 교화 담당)가 되어 그 직책을 잘 수행하니, 국민(國人)이 이를 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 덕(德)을 찬미하여 나라를 소유하고 좋은 직책을 잘 닦은 공(功)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³²⁾라고 하면서, “치(緇)는 흑색(黑色)이니, 치의(緇衣)는 경대부(卿大夫)가 사조(私朝)에 거처할 때 입는 의복이다.”³³⁾ 라고 주석을 하였다. 정현의 『모시정

32) “緇衣 美武公也 父子並爲周司徒 善於其職 國人宜之 故美其德 以明有國善善之功焉”

33) “緇 黑色 卿士聽朝之正服也.”

전』에서는 “치의는 경대부가 자신의 조정에 거처했을 때 입는 의복이다. 천자를 조회할 때 입는 옷은 피변복이다.”³⁴⁾라고 하였고, 주희는 『시집 전』에서 “치(緇)는 흑색(黑色)이니, 치의(緇衣)는 경대부(卿大夫)가 사조(私朝)에 거처할 때 입는 의복이다...구설(舊說)에 “정(鄭)나라 환공(桓公)과 무공(武公)이 서로 연이어 주(周)나라의 사도(司徒)가 되어서 그 직책을 잘 수행하니, 주(周)나라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이 시(詩)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3개 설의 공통점은 치의가 흑색 옷으로 경대부가 자신의 조정에서 입는 옷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치의는 ‘검게 물들인 베옷(布)’이다. 이 색은 자연 흑색이 아니라 염색된 흑색이다. 이 옷은 천자의 경사(卿士)가 입는 옷이다. 특히 제후가 천자의 수도로 와서 경사가 된 경우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신의 사적인 조정에서 입는 옷이다. 이 때문에 치의는 그의 공적 예복인 피변복(皮弁服)³⁵⁾과 구별되어 사적 조정에서 입는 옷

34) “緇衣者 居私朝之服也 天子之朝服 皮弁服也...舊說 鄭桓公武公 相繼爲周司徒 善於其職 周人愛之 故作是詩”

35) 피변복은 옷과 관이 한쌍을 이루는 구조이다. 옷은 비단옷이고 관은 짐승 가죽이다. 가죽은 흑색(黑)의 양(羊) 가죽, 백색(白)의 사슴(鹿) 가죽, 황색(黃)의 여우(狐) 가죽인데 옷색과 관색이 같아야 했다. 옷(布帛)과 관의 면과 가죽으로 나누고 색으로 맞춰지는 것은 단순한 통일성이 아니라, 인공과 자연, 상하의 본질적 합치를 상징한다. 제후로 경대부가 된 자는 이 옷을 입고 천자를 알현하여 천자에게 자연적이고 순수한 충성을 한다는 뜻을 표하였다. 반면에 천자는 경대부의 조회를 받을 때 면복(冕服)을 입었다. 면복(冕服)은 상현하훈(上玄下纁)의 구조이다. 즉, 윗옷은 현색(玄色, 짙은 검정 혹은 청흑색), 아래 옷은 훈색(纁色, 적색에 가까운 붉은색)으로 구성된다. 이 배치는 단순한 미적 대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엄격히 고정된 우주론적 색채 질서를 따른다. 이 점에서 면복은 가변적 의례복인 피변복과 구조적으로 대조된다. 색(玄色)은 오행으로는 수(水), 방위로는 북(北)에 대응한다. 따라서 상의가 현색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질서를 몸 위에 엮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훈색은 지(地)를 상징한다. 훈은 적(赤)에 가까운 색으로, 오행의 화(火)와 연결되면서도 실제 제도에서는 토(土)의 중화적 의미와 결합하여 생성·양육의 기반으로서의 대지를 표상한다. 하의가 훈색인 것은 인간이 땅 위에 서 있음을 드러내는 구조이다. 또한 면복은 색채뿐 아니라 십이장문(十二章紋)이 배치되는데, 일(日), 월(月), 성신(星辰), 산(山), 용(龍), 화충(華蟲) 등은 각각 하늘·자연·왕권의 질서를 상징하였다.

이다. 시의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경대부를 사모하여 그 옷이 헤어지면 또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사모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은 위의 주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주나라 천자의 경대부(사공)가 되어 충성스럽고 유능하여 국정을 잘 보살피고 사적인 자기의 조정에서는 치의를 입고 겸손하고 절제하여 인품이 어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치의는 현명한 사람을 상징하게 되었다. 『예기』에도 1편의 「치의(緇衣)」³⁶⁾라는 편명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현인을 좋아하기를 치의처럼 하라고 하였고, 또 치의에서 현인을 좋아하는 지극함을 본다고 말하였다.”³⁷⁾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시의 내용과 주석을 근거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경대부가 사적인 자신의 공간에서 왜 흑색의 치의를 입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오색과 오행의 관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흑색은 정색의 하나로 방향으로는 북(北), 계절로는 겨울, 시간으로는 폐장(閉藏)의 국면을 표상한다. 이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만물이 외현적 작용을 멈추고 내부로 응축되는 잠재성의 상태이다.³⁸⁾ 흑색은 3원색을 합친 색이고 모든 색을 합치면 흑색이 된다. 염색 기술의 측면에서도 쉽게 만들어 염

36) 「치의」편은 주로 군자의 행동거지, 신하의 자세, 군주의 덕을 설명하여 기록하고 있다.

37) “好賢如緇衣，又曰於緇衣，見好賢之至”(『禮記集說大全』，11쪽)

38) 『예기(禮記)』의 체계 안에서 흑색(黑色)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우주론·예제·정치질서가 결합된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오행적 대응, 제복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기』 「월령(月令)」 및 관련 편목에서 색채는 오행 질서와 결부되며, 흑색은 수(水)에 대응하고 북방·겨울·폐장의 시기를 상징한다. 이때 흑은 단순한 암흑이 아니라, 만물이 외부 활동을 멈추고 내부로 수렴되는 상태, 곧 “장(藏)”의 원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흑색은 소멸이라기보다 잠재적 생성 이전의 응축된 상태, 즉 우주 질서의 근원적 국면을 표상한다. 둘째, 예제적 질서에서 흑색은 “현(玄)”과 더불어 최고위 권위와 연결된다. 『예기』 「옥조(玉藻)」 및 관복 규정에서는 군주가 현단(玄端)을 착용하는데, 여기서 현(玄)은 심흑(深黑)에 가까운 색으로, 가시적 화려함을 제거한 절제된 권위를 의미한다. 이는 권력이 외적 장식이 아니라 내적 덕(德)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을 상징한다.

색할 수 있는 색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소박하고 검소한 색이다. 검은색(緇)은 화려함을 배제한 절제와 균형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옷을 자신의 조정에서 입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신분 질서 속에서 경대부로서 겸손과 절제를 표시하여 그의 인품과 잘 어울리(宜)는 현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색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제적 질서에서 흑색은 절제와 비가시성의 윤리를 구현할 수 있었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흑색의 상징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을 한 것이다. 치의가 염색으로 만들어진 흑색의 옷이라면 천연의 검은색을 활용하여 만든 옷으로 고구(羔裘)가 있다. 그 내용으로 정풍(鄭風)의 「고구(羔裘)」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고구

君羔裘如濡
洵直且侯
彼其之子
舍命不渝

검은 양 갓옷이 윤택하니
진실로 털이 순하고 아름답도다
저기 저 분이여
천명에 거처하여 변절하지 않도다

羔裘豹飾
孔武有力
彼其之子
邦之司直

검은 양 갓옷에 표범 가죽으로 선을 둘렀으니
매우 굳세고 힘이 있도다
저기 저 분이여
나라의 정직함을 주관하리도다

羔裘晏兮
三英粲兮
彼其之子
邦之彥兮
〈鄭風, 羔裘〉 3장

검은 양 갓옷이 선명하고
삼영이 찬란하도다
저기 저 분이여
나라의 아름다운 선비이도다

『시경』에는 위에서 인용한 「고구」 시 이외에 같은 제목 시로 2편이 더 있다. 그 시는 진풍(秦風)의 「고구」와 회풍(檜風)의 「고구」인데 그 시구는 “검은 염소 가죽옷에 표범의 소매이다.(羔裘豹祛)”와 “염소 깃옷으로 소요(逍遙)하며 여우 깃옷으로 조회하도다.(羔裘翱翔, 狐裘在堂)”이다. 고구는 대부의 의복(大夫服)이다.³⁹⁾ 고구의 검은색은 염소의 검은 자연색이다. 치의의 검은색과는 다르다. 치의가 경대부(卿大夫)가 입는 옷이라면, 고구는 대부가 입는 옷으로 그 등급이 하나 아래인 옷이다. 여기에서 염색한 인공의 검은색이 자연의 검은색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의는 옷 전체가 검은 색인 반면, 고구는 표범 가죽으로 선을 둘러서 단색이 아니라 혼색이다.⁴⁰⁾ 표범 가죽을 두른 것은 표범 처럼 웅맹함을 비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3장에 나오는 삼영은 세 곳을 흰색 실로 꿰매어 검은 깃옷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즉 흰색 실로 정밀하고 아름답게 깃옷을 장식하는 것이다. 흑색과 백색은 상반 색상으로 서로 상응하게 하여 대비를 통한 보색의 효과를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소남(召南)·고양(羔羊)』의 시에도 나오는데 “검은 양가죽을 흰 실로 다섯 곳을 꿰맸다.”⁴¹⁾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흑색과 백색의 보색 효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를 통하여 단색의 옷이 혼색의 옷보다 높게 평가되었음을

39) 주희(朱熹)는 본 시의 주석에서는 고구를 대부복(大夫服)이라고 하였지만, 회풍(檜風)의 「고구」 시의 주석에서 “緇衣羔裘 諸侯之朝服: 錦衣狐裘, 其朝天子之服也.”라고 하여 서로 다르다. 주대의 제도에서 대부는 천자의 대부(大夫)도 있지만 제후의 대부(大夫)도 있다. 천자를 중심으로 하면 천자-경-대부의 체계이고 제후를 중심으로 하면 제후-대부-사이다. 제후는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직제에서는 경과 같은 직급이다.

40) 옷에 선 두르는 방법은 크게 자연색의 가죽과 인공 염색의 베를 두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연색의 가죽은 호랑이, 여우, 표범의 가죽이고 인공 염색의 베는 그 색이 다양하다. 「자금(子衿)」시에서는 옷에 푸른 선을 둘러렀다.

41) “羔羊之皮, 素絲五紕”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은색은 왜 경사와 대부가 입는 옷의 색상이 되었고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을 비유하게 되었는가이다. 이러한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서』의 오행에 대한 설명이다. 『상서』의 오행에 대한 설명으로 살펴보면, 그 성질이 「윤하(潤下)」인데, 비가 내려 아래로 흐르고 밑으로 내려가 어두운 구렁이 들어간다. 빠져나오려면 때를 기다리고 노력을 해야 한다. 오행의 덕으로 수는 지혜이고 공자도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검은색의 옷을 입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자는 검은색 계통의 현복(玄服)을 입었다. 또한 현단(玄端)라는 복식이 있다. 이는 검은색 계열의 단정한 예복으로, 조정에서의 공식 활동이나 특정 의례에서 사용된다. 여기서 “현(玄)”이라는 색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깊음·근원·하늘과 연결된 의미를 지닌다. 이로 볼 때, 검은색 옷은 천자나 관직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역(易)의 문왕팔괘(文王八卦)이다. 이 괘의 배치에서 수는 북방의 자리에 위치하여 물을 상징하면서 사방의 중심으로 차가운 어둠을 상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검은색이 어떤 중심과 리더의 역할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천자는 검은색의 현복(玄服)을 입었다.⁴²⁾ 옷은 대개 상의하상(上衣下裳) 구조였는데 위에는 옷(衣), 아래에는 치마 형태의 상(裳)을 입는 이분법적 구조로 천자는 상현하황(上玄下黃) 또는 상현하훈(上玄下纁)의 복식을 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을 몸 위에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 기본 구조 위

42) 주나라의 의복제도를 살펴보면, 면복(冕服): 천자·제후가 제사 때 입는 최고 등급 예복, 현단(玄端): 조정 의례나 공식 활동에 쓰는 정제된 예복, 심의(深衣): 상의와 하상을 연결한 일상·의례 겸용 복식, 상의하상(衣裳): 기본 구조(위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 형태), 조복(朝服): 조회 때 입는 관복, 제복(祭服): 제사 전용 복식, 상복(喪服): 상례 때 입는 복식(질·색·재질로 관계 표현), 편복(便服): 일상적인 평상복 등이다.

에 다양한 의복 유형이 없으면서 위계가 세분되었다. 이때 옷은 단순한 착용 대상이 아니라, 우주 질서를 표현하는 상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천자와 그 아래 경대부의 옷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경사와 대부가 흑색의 치의와 고구를 입었다는데 이는 천자의 현색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색의 옷이다. 그 이유는 천자를 보필하기 때문이다.

③ 소관(素冠)

흰색과 관련이 있는 시로는 행로(行露, 召南), 겸가(蒹葭, 秦風), 소관(素冠, 檜風) 백구(白駒, 祈父), 담로(湛露, 白華), 백화(白華, 都人士), 행위(行葦, 生民) 등이 있다. 대표적인 시로 「소관」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庶見素冠兮	행여나 흰 갓을 쓴
棘人欒欒兮	슬퍼 경황없는 사람의 수척함을 만나 보려나
勞心博博兮	마음을 수고로이 시름겹게 하노라

庶見素衣兮	행여나 흰 옷 입은 사람을 만나 보려나
我心傷悲兮	내 마음이 상하고 슬프니
聊與子同歸兮	우선 그대와 더불어 옛날 도리로 함께 돌아가리라

庶見素韞兮	행여나 흰 슬갑을 두른 이를 만나 보려나
我心蘊結兮	내 마음에 쌓이고 맺혔으니
聊與子如一兮	우선 그대와 더불어 하나같이 하리라

〈檜風, 素冠〉 3장

모전에서는 “「소관」은 3년 상을 치르지 못함을 풍자한 시이다.”⁴³⁾라

고 하였다. 주희의 『시집전』에서는 “흰 관에 흰 태를 두른 것은 이미 대상(大祥)을 지낸 관(冠)이니, 검은 날줄에 흰 씨줄이 있는 것을 호(縞)라 하고, 가장자리에 선두르는 것을 비(紕)라 한다.…관(祥冠)은 대상(大祥)이면 쓰고, 담제(禫祭)를 지내면 벗는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모두 삼년상(三年喪)을 행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이 상복(喪服)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당시에 현자(賢者)가 행여나 이러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여 근심하고 애태움에 이른 것이다.”⁴⁴⁾라고 하였다. 등지신의 『시경독본』에서는 “이 시 또한 사람을 그리워하여 지은 시이다. 시인이 흰옷을 입은 관원을 연모함과 동시에 그와 결합하기를 원하였다.…선진 시대의 대부는 평상복으로 흰색 옷을 입었다.”⁴⁵⁾라고 하였다. 모전과 『시집전』은 소관을 상례와 관련된 상복으로 보았고 『시경독본』은 벼슬한 대부의 평상복으로 보아서 서로 다르다.

『시경』에서 흰색에 대한 인식은 해(日)-낮-밝음에서 시작되어 천상천기물과 자연경물과 동식물로 확대되었다. 흰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보면, 행로(行露, 召南), 겸가(蒹葭, 秦風), 담로(湛露, 白華)의 흰 이슬과 서리이다. 백구(白駒, 祈父)의 말의 흰색 그리고 백화(白華, 都人士), 행위(行葦, 生民)의 흰 갈대와 흰 꽃이다. 인용한 소관은 천연의 흰색으로 만든 관이다. 이 흰 관은 상복을 입을 때 쓴 관이다. 그런데 상복과 관은 왜 흰색인지가 문제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은색 처럼 기의 색 관념에 의한 사상과 옷의 제작과 염색 기술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흰색은 해(日)-낮-밝음의 관념에서 생긴 색상의

43) “素冠 刺不能三年也”

44) “縞冠素紕, 既祥之冠也. 既祥之冠也 黑經白緯曰縞 緣邊曰紕… 祥冠 祥則冠之 禫則除之 今人皆不能行三年之喪矣 安得見此服乎 當時賢者 庶幾見之 至於憂勞也”(『詩經集傳』, 307쪽.)

45) “此亦懷人之作. 詩人懷戀一位素衣官員, 并願與之結合…其實先秦大夫常服亦服素.”(『詩經讀本』, 388쪽)

관념이 있고 제작과 염색을 통하여 만들어진 관념이 있다. 두 가지의 흰색은 만들어진 원인에 인하여 비유와 상징은 다르다.

흰색의 관념과 비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염료 기술이다. 색은 염료와 기술의 산물이다. 쪽풀에서 얻는 청(靑), 홍화의 적(赤), 광물과 토양에서 나오는 황(黃), 그리고 숯과 먹의 흑(黑)은 각각 생산과 제조의 난이도가 다르다. 이 차이는 실제 사회에서 색의 분포를 결정하였다. 예컨대 선명한 자색이나 황색은 희소성과 비용 때문에 쉽게 얻거나 만들 수 없어서 독점물이 되었다. 반면에 염색하지 않은 흰색(백)은 가장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오색의 관념 체계와 현실의 색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흰색은 '무염(無染)'의 색채 상태 때문에 비가 공성·절제·일상성의 표지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애도의 색을 상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서』의 오행을 참조할 수 있다. 흰색은 『상서』의 오행의 설명에 의하면, 그 성질이 종혁(從革)으로 해가 금속에 비쳐 빛나는 흰색이다. 따라서 흰색은 해와 관련이 있고 밝은색 계통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정색의 방위와 오행이다. 흰색(白)은 서방으로 가을인데 가을은 수렴·단절의 기운을 지닌다. 금은 서방·가을·수렴을 뜻하며 그 색이 흰색이다. 『여씨춘추』 및 한나라 음양 가설에서는 왕조 교체를 오행의 순환으로 설명하면서, 은나라를 금덕(金德)의 왕조로 규정했다. 이때 백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수렴·결실·절단의 기운으로 이전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단계의 상징이다. 넷째는 제의(祭儀)의 관념이다. 은나라의 갑골문과 고고학 자료를 보면, 그들의 제사는 피와 불, 그리고 정결의 감각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하나는 정결(潔)로 더러움이 제거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상(喪)의 색이다. 흰색 뼈를 생각해 보면, 백색은 생명의 충만보다는 생명이

빠져나간 뒤의 모습이다. 따라서 백색은 생과 사의 경계, 충만과 수축 등의 긴장을 가시화하는 색이다.

다음으로 「소관」에서는 색의 배합을 살펴볼 수 있다. 몸에 착복한 것이 모두 흰색이다. 즉 소관(素冠)-소의(素衣)-소필(素鞵)로 온몸에 흰색으로 만든 것을 착용하였다. 통일된 흰 단색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색의 백합 원리는 배제되고 흰색 본연의 특색을 활용하여 시적으로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상례(喪禮)에서 화려한 색을 철저히 배제하고 흰색의 미염색 포(布)를 사용하여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소박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부모상에는 가장 거친 백포를 입고, 친소 관계에 따라 점차 질감과 색의 농도가 달라졌다.⁴⁶⁾ 색이 생전의 위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실된 관계의 거리와 깊이를 가시화하는 장치로 전환된 것이다.

3. 맺는말

『시경』에는 색상을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시구의 비유가 어떤 원리에 의하여 비유적 수법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충하는 것이기도

46) 상복의 종류는 『예기』 「상복」에 의하면, 첫째, 참취(斬衰)는 가장 거친 베로 만든 상복으로,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의 상에 착용한다. 복상 기간도 가장 길다. 둘째, 자취(齊衰)는 참취보다 다소 정제된 베를 사용하는 상복으로, 조부모나 장자(長子) 등의 상에 적용된다. 상기는 '가지런할 제(齊)'라는 명칭은 일정한 정돈이 가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애도의 강도 역시 참취보다 한 단계 낮다. 셋째, 대공(大功)은 베의 질이 더욱 곱고, 복상 기간도 단축된다. 주로 종형제 등 비교적 가까운 방계 친족에게 적용된다. 넷째, 소공(小功)은 대공보다 더 가벼운 상복으로, 친족 관계가 한층 더 떨어진 경우에 착용된다. 다섯째, 시마(緦麻)는 가장 가는 삼베로 만든 상복으로, 복제 중 가장 경미한 단계에 해당한다. 비교적 먼 친족이나 의례적 관계에서 착용되며, 복상 기간도 짧다.

하다. 이를 위하여 『시경』 305편을 통하여 시경 시대 사람의 색 인식과 관념 그리고 사계절과 정색 및 정색과 간 색의 관계 그리고 정색과 색의 배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색상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이 의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를 선정하여 색상의 비유적 표현의 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경』과 같은 시대에 저작된 『상서』와 『예기』의 내용 중 색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색의 관념, 정색과 간 색, 정색과 방위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원리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색상의 관점에서 보면 『시경』과 두 책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내용을 참조하여 『시경』 총 305편과 색상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시로 「녹의」, 「치의」, 「고구」 3편, 「소관」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경 시대 사람들은 우선 색채를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색각능력(色覺能力)이 있었다. 그들은 천상과 천기 현상 및 자연 경물을 통하여 다양한 색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점은 「채동(蜩螗)」이라는 시에서 무지개를 서술했다는 점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다양한 색에서 정오색을 확립하고 정오색을 사계절과 방위에 배치한 것이다. 정색은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인데 청을 봄과 동방, 적을 여름과 남방, 황을 여름과 가을 사이와 중앙, 백을 가을과 서방, 흑을 겨울과 북방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정오색은 다시 염색 기술을 통하여 재현되었고 더 나아가 정오색을 혼합하여 간색을 만들었다. 염색 기술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는 동식물의 자연색을 활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고 염색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포백(布帛)에 오색을 염색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천연의 흑색 가죽옷보다 베와 비단에 흑색을 염색한 인공 흑색이 더 귀하게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치의

(緇衣)가 고구(羔裘)보다 귀하게 여겨져서 경대부와 제후가 치의를 입고 제후의 대부는 고구를 입었다. 셋째는 정오색 간의 배합과 정오 색과 간 색의 배합에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합은 의복의 색상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의복은 형태, 재질, 색상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의복의 형태는 상하 분리형과 상하 연결형이 있었는데, 분리될 경우는 상의하상(上衣下裳)으로 분리하였고 연결된 경우는 상하를 연결한 심의(深衣)가 있었다. 의복의 재질에는 크게 가죽과 베가 있다. 가죽에는 양, 염소, 표범, 사슴, 여우, 호랑이 등이 있었고, 베에는 비단, 삼베, 칩베, 모시 베 등이 있었다. 의복의 색상은 자연색과 인공 색이 있었다. 이러한 색상은 의복의 상하, 내외에서 여러 가지 배합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상의와 겹옷은 정오 색으로 하고 하상과 안감은 간색으로 하였다. 배합 원리는 정색 간의 상대 색을 배합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단의는 겹옷을 검은색으로 하고 안감을 흰색으로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색과 간 색의 배합이다. 상의(上衣)는 정색(正色), 하상(下裳)은 간색 또는 겹옷은 정색, 속옷은 간색으로 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정색과 잡색의 배합이 있다. 정색을 상의로 하고 상의의 소매에 잡색을 두르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녹의」, 「치의」, 3편의 「고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일한 정색을 온몸에 착용하는 것이다. 관과 의복, 각반을 모두 같은 흰색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소관」에서 엿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시경 시대에는 정색과 간색을 확립하여 상의는 정색으로 하고 하상과 안감 그리고 소매는 간색과 잡색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정색의 본질적 특성과 정색 간의 선명한 대비를 활용한 것이다. 이는 오호론에서 말하는 상생상극의 원리와 오늘날 말하는 보색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색을 사계절과 방위에 배치하여

색상을 통하여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신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전국시대 말기의 추연과 한대 초기의 동중서에 의하여 정립된 오행론의 오정 색의 배속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시경』, 『상서』, 『예기』에는 정색과 오행을 구체적으로 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개의 책에는 정색과 간 색, 정색과 잡색 그리고 정색과 사계절 및 방위를 연결하여 색상의 배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기한 내용으로 ‘오색배치도’와 ‘오색계절방위도’는 그릴 수 있지만 ‘오색오행도’는 그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시경 시대의 이러한 색상 배합을 통한 조화의 추구는 이후 시기에 나타난 남상(濫觴)이자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경』에 보이는 색채의 조화방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2006.
 成百曉 譯註, 『書經集傳』 上・下, 傳統文化研究會, 2001.
 苗楓林 主編, 『毛詩』, 山東友誼書社, 1990.
 黃焯 撰, 『毛詩鄭箋平義』, 武漢大學出版社, 2008.
 朴小東 譯主, 《毛詩正義》, 전통문화연구회, 2024.
 滕志賢 注譯, 《詩經讀本》, 上・下冊, 三民書局, 2016.
 洪湛俊, 《詩經學史》, 上・下冊, 中華書局, 2002.
 于新 著, 《詩經研究概論》, 中國社會出版社, 2010.
 戴維 著, 《詩經研究史》, 湖南教育出版社, 2001.
 朱孟庭 著, 《詩經的多元闡釋》, 文津出版社, 2012.
 《檀作文 著, 朱熹詩經學研究》, 學苑出版社, 2003.

- 鄒其昌 著, 《朱熹詩經詮釋學美學研究》, 商務印書館, 2004.
- 向熹 編,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
- 하위성 지음, 강초아 옮김, 『시경 속 식물』, 도서출판 선, 2025.
- 카시아 세인트 클레어 지음, 오용재 옮김, 《컬러의 말》, 월북, 2019.
- 제임스 폭스 지음, 강경이 옮김, 《컬러의 시간》, 월북, 2022.
- 陳浩 編, 정병섭 역, 『禮記集說大全』, 學古房, 2016.
- 權五惇 譯解, 『禮記』, 흥신문화사, 1991.
- 郭廉夫·郭淵 著, 『中國色彩簡史』, 重慶大學出版社, 2021.

A Study on Color in the 『Shi-jing (詩經)』

Park, Sun-Cheol* & Zhang, HaoZhe**

This study i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metaphors and symbolism of color as they appear in the 『Shi-jing (詩經)』. Rather than simply analyzing the surface-level metaphors and symbolism of color,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underlying principles and methods. This aspect has not been concretely analyzed or studied in prior scholarship, making it an underexplored area. The research method involves selecting and analyzing color-related content from among the 305 poems of the Shijing, with poetry related to clothing being the most frequently analyzed. In addition, contemporaneous texts — the Sanli (三禮), the Shangshu (尚書), and the Zhouyi (周易) — were referenced to provide a deeper analysis of the poems' content.

Through this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color-pairing principles of the Shijing predate the Yin-Yang Five Phases (陰陽五行) color-pairing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and early Han dynasty, thus playing a precursory role. The specific principles are as follows: first,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Five Phases (五行)-seasons-political order (位階秩序); second, the hierarchical distinction between primary colors (正色) and intermediate colors (間色); third, the correspondence between heaven and earth reflected in upper and lower garments (上衣下裳); and fourth, the shift in color according to auspiciousness or inauspiciousness (吉凶), distinguishing auspicious dress (吉服) from mourning dress (凶服) by the contrast of black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E-mail: unshan@hanmail.net

** (Second Author) Ph. D. Student,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E-mail: zhanghaozhe0515@163.com

and white (黑白).

Key Words

shijing, Color/Hue, Yin-Yang Five Phases, Primary Colors, Intermediate Colors, Green Garment, Black Garment, Black and White

논문접수일: 2026.05.24. 심사완료일: 2026.06.08. 게재확정일: 2026.06.24.
--

기무라 에이이치(木村英一) 장군(章群) 이론의 계량적 검토^{***}

— 『논어』1~5편의 군집 분석과 인문학적 재검토 구간의 식별

김서윤^{***}

-
1. 서론
 2. 기무라의 장군 이론
 3. 장군 이론의 정형화
 4. 이중 층위 군집 분석과 장군 분류의 타당성 진단
 - 1) 분석 방법 및 이중 층위 설계의 목적
 - 2) Jiayan 형태소 기반 군집 분석 결과
 - 3) GuwenBERT 임베딩 기반 군집 분석 결과
 - 4) 정합·부분 일치·인문학적 재검토
 5. 결론 및 후속 연구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무라 에이이치(木村英一)의 장군(章群) 이론을 계량적으로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무라는 『논어』 각 편 내에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7040150).

** 이 논문은 2026년 한국경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연구원 / E-mail: sy527991@gmail.com

서 의미·형태적으로 연관된 장들을 군집 단위로 묶고 그 형식을 유형화함으로써 『논어』 문헌 연구를 구조적 재편성의 단계로 심화시켰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방대한 분량의 산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환하기 어렵고, 그 정성적 판단이 계량 분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타당성은 지금껏 검증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무라의 이론을 대분류·소분류의 두 층위로 정형화하여 『논어』 제1~5편에 대한 분류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는 산문 형식으로 기술된 기무라의 판단을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로 옮기는 작업이다. 둘째, 이중 층위의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기무라의 분류와 대조하였다. 고대 한문 형태소 분석기 Jiayan을 활용한 TF-IDF 분석으로 어휘 패턴의 형태적 유사성을, 고대 한문 언어모델 GuwenBERT 임베딩 분석으로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단순한 일치·불일치의 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고 세 가지 구간으로 식별되었다. 곧 기무라의 판단이 어휘·의미 두 층위의 분석 결과와 모두 일치하는 ‘정합 구간’, 어휘와 의미 중 한 측면에서만 부합하는 ‘부분 일치 구간’, 두 계량 분석이 분기되어 기무라의 분류와 어긋남으로써 비판적 정독을 통한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인문학적 재검토 구간’이 그것이다. 이 세 구간 체계는 계량적 분석이 인문학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식별하는 진단 도구로 기능한다는 본 연구의 입장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1~5편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으로서, 여기서 확립된 방법론은 향후 『논어』 20편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

주제어: 『논어』, 장군 이론, 기무라 에이이치, 군집 분석, Jiayan, GuwenBERT

1. 서론

『논어』의 편장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자명한

전체로 받아들여져 왔다. 중국의 역사학자 錢穆(1895~1990)는 “『논어』의 편차나 체례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고, 편장의 선후에도 특별한 의의가 없다.”라고 했고,¹⁾ 김용옥(1948~) 역시 『논어』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주제 없이 단편적인 조합 또는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²⁾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자 사상의 온전한 파악을 가로막는 본질적 장애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각 편의 내용이 재배치되고 여러 자료가 후대에 삽입되면서 공자의 어록과 제자들의 언행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³⁾ 더욱이 현행 20편 체계는 사상적 완결성을 기준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 前漢 말기 張禹(?~기원전 5년)가 魯論을 중심으로 齊論을 절충하여 확정한 이른바 ‘張侯論’이 그대로 정착된 결과일 뿐이다.⁴⁾

이러한 인식 위에서 현행 20편 체계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개별 편·장 단위의 미시적 차원에서 문헌 비평적 신뢰도를 따지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20편 전체를 거시적으로 조망하여 상론·하론의 이분 구조로 재구분하는 방향이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청대 고증학자 崔述(1740~1816)의 『論語餘說』 및 『洙泗考信錄』이다. 그는 공자 및 제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고증한 『수사고신록』에서 『논어』 후반 5편에 대한 후대 삽입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논어여설』에서 본격적으로 각 편의 문헌 비평적 신뢰도를 논증하였다. 이는 『논어』를 불변의 고정된 경전으로 전제하던 전통적 인식에 대해 처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논어』를 유동적 텍스트로 인식하는

1) 錢穆(1990), 16면.

2) 김용옥(2001), 154면.

3) 김영기(2012a), 174면.

4) 김용옥(2000), 76면.

관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흐름은 『論語集注』에서 주희가 胡寅(1098~1156)의 설을 수용해 “대체로 이 책의 후반 10편에는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 [大抵此書後十篇多闕誤]”⁵⁾고 지적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명말에 羅喻義가 이를 전10편·후10편의 이분 구조로 정식화했다.⁶⁾ 이후 일본 古學의 대표 학자인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가 『논어』 20편을 上論 10편과 下論 10편으로 나누며 본격화되었다고 정리된다. 이토 진사이는 상론 10편을 공자 사상의 본의를 담은 원형으로, 하론 10편을 후대에 부가된 속집으로 판별하였는데, 이는 공자 사상의 원형(상론)과 후대 변용(하론)을 구분하려 했던 사상사적 층위 구분의 초기 시도였다. 이후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다자이 순다이(太宰春臺, 1680~1747) 등도 이 구분에 동의하였고, 근대 학자 다케우치 요시오(武內義雄, 1886~1966)는 『논어의 연구』⁷⁾에서 이토 진사이의 설과 최술의 설을 함께 검토하며 상론·하론 이분 구조를 재논증하였다. 이상의 두 흐름은 분석 층위는 다르지만, 모두 문헌 신뢰도 판별을 통해 『논어』의 사상적 원형에 접근하려 했다는 공통의 지향을 지닌다.

이러한 두 개의 흐름은 20세기 이후 특정 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1958년 사토 이치로(佐藤一郎)의 〈자장〉편을 대상으로 한 단락군 분석이 있다.⁸⁾ 이후 2008년에 김용욱 역시 『논어한글역주』에서 〈태백〉편을 단락 단위로 구분하였으나, 분류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⁹⁾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5) 『論語集注』 16-12.

6) 『經義考』 卷221: 나유의 「논어분편」 2권 현존. 나유의의 자서에서 『논어』 20편은 둘로 나뉜다고 했다. [羅氏喻義論語分篇 二卷 存 喻義自序曰 論語二十篇 其別爲二分] [https://zh.wikisource.org/zh-hant/經義考_\(四庫全書本\)/卷221](https://zh.wikisource.org/zh-hant/經義考_(四庫全書本)/卷221).

7) 武內義雄(1939) 참조.

8) 佐藤一郎(1958) 참조.

특정 편을 중심으로 편장 체계의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편장 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논어』를 고정된 경전으로 전제하는 전통적 인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20편 전체를 넘나드는 새로운 편장 구조의 재편성으로는 나아가지는 못했다. 편 경계로 분리된 장들이 실제로는 같은 주제 맥락에 속하는지, 혹은 같은 편 안에 묶여 있는 장들이 과연 의미적으로 응집된 단위를 이루는지에 답하기 위해서는 특정 편의 내부 구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어』 전체를 하나의 코퍼스로 놓고 편 경계를 가로지르는 의미 단위를 탐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최술의 『논어여설』을 다룬 선행 논문에서, 『논어』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20편 체제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현행 원본을 유지하면서도 최술의 변증 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비평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디지털 비판 정보 구축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¹¹⁾ 그러나 최술의 비평은 신뢰도 평가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장은 어떤 단위에 속해야 맞는가’라는 구조적 재편성의 문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술이 나아가지 못했던 『논어』 전체의 재구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시도한 연구가 바로 기무라 에이이치(木村英一, 1906~1981)¹²⁾의 章群 이론이다. 기무라는 편 경계를 넘나드는 재구성에는 이르지 못

9) 김용욱(2008) 참조.

10) 김윤조(2008); 박재복(2009); 김영기(2011); 김영기(2012b); 송병렬(2015); 이예성·이강재(2018) 참조.

11) 김서운(2025) 참조.

12) 기무라 에이이치는 일본의 중국철학 연구자다. 1930년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중국철학사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 「노자의 새로운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토대학 조교수를 거쳐 1949년부터 오사카대학 문학부에서 중국철학을 강의하였으며, 1967년 정년퇴임 후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및 오테몬가쿠인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공자와 논어(孔子と論語)』, 『노자의 새로운 연구(老子の新研究)』, 『중국 철학의 탐구(中國哲學の探求)』 등이 있다.

했으나, 20편 전체를 대상으로 각 편 안에서 의미적으로 연관된 장들의 묶음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였고, 그 연관 방식을 연쇄·병렬·대응·집중·부록의 다섯 형식으로 유형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재구조화했다. 그러나 기무라의 원저 『공자와 논어』(1971)¹³⁾는 그 근거를 방대한 분량의 산문 서술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후속 연구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를 재현하거나 데이터로 구조화하기 어려우며, 정성적 독해에만 근거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 계량적으로 검토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기무라의 장군 분류가 실제로 얼마나 유효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기무라의 서술을 대분류·소분류 두 층위로 구조화하여 『논어』 1~5편(<학이>~<공야장>)의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이는 기무라의 텍스트를 컴퓨터가 연산가능한 정형 데이터로 치환한 것이며, 이 중 층위의 군집 분석을 통해 정성적 비평과 정량적 분석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층위는 고대 한문 형태소 분석기 Jiayan을 활용한 TF-IDF 기반 군집 분석으로 어휘 패턴의 유사성을, 두 번째 층위는 고대 문헌을 사전 학습한 언어모델 GuwenBERT 임베딩 기반 군집 분석으로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을 각각 측정한다. 1~5편을 대상으로 한 이 파일럿 연구에서 확립된 방법론은 이후 20편 전체에 적용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로 산출되는 타당성 정보는 향후 『논어』의 비판적 정본 재구성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기무라 장군 이론의 내용을 단장·장군·장군연관의 중층 구조와 다섯 가지 연관 형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분류가 산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재현·구조화가 어

13) 木村英一(1971) 참조.

렵다는 한계를 짚는다. 3장에서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1~5편의 장군 분류를 대분류·소분류의 두 층위로 정형화한다. 4장에서는 형태소·임베딩 두 층위의 군집 분석을 수행한 뒤 기무라의 분류와 대조하여, 그 타당성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후속 연구의 전망을 제시한다.

2. 기무라의 장군 이론

기무라는 『논어』의 각 편 내에서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된 장들을 ㉠·㉡·㉢ 형태로 분류하는 장군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이론에서 그는 『논어』 20편 500여 장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¹⁴⁾ 하나는 앞뒤 장과 관계없이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單章’이고, 다른 하나는 앞뒤 장과 의미 면에서 연관을 갖는 ‘章群’이다. 장군들 사이에도 층위가 있는데, 의미 면에서 앞뒤가 서로 이어진 일련의 장군을 ‘章群聯關’이라 부른다. 단장·장군·장군연관·복수의 장군연관이라는 중층 구조에 의해 각 편의 성격과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 기무라의 핵심 주장이다.

기무라는 ‘장군’이 발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전승을 위한 기억의 편의를 위함이다. 스승의 언행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이 공자 문하에서 구전으로 전승되면서, 전승자가 의미상 유사하거나 서로 관

14) 『논어집주』의 경우 20편은 총 48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무라 역시 주희의 편장체계를 따랐다. 그러나 본고는 향후 분장 체계가 상이한 복수의 주석서를 비교 검토하는 연속 연구를 전제하므로, 특정 주석서의 분장 체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비교 작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공개 접근이 가능하고 분석의 재현 가능성이 담보되는 Chinese Text Project(ctext.org)의 『논어』 편장 체계를 분석 저본으로 채택하였다.

런 있는 단문을 모아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에 장군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헌 편집 단계에서의 의도적인 배열이다. 『논어』가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편찬자들이 산재한 단문들을 단순히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제적 연관성과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장의 순서와 배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기무라는 위의 두 요인이 상호 작용하며 현행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았으며, 장군연관이 형성되는 방식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형식으로 분류한다.¹⁵⁾

연쇄 방식은 인접한 장들이 특정 글자나 개념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형식이다. 〈헌문〉 제14편 35~38장이 그 예시이다. 35장과 36장은 ‘德’이라는 글자로 연결되고, 36장과 37장은 ‘怨’자를 통해 이어받으며, 37장과 38장은 다시 ‘天’과 ‘命’을 통해 연결된다.¹⁶⁾ 이처럼 연쇄 방식은 내용상의 통일성보다 글자 단위의 연결을 매개로 장군이 형성된다. 〈안연〉 제12편 1~5장에서도 같은 방식이 확인된다. 1~3장은 仁을 주제로 한 사제간 문답으로 장군㉓¹⁷⁾를 이루고, 3~5장은 사마우와 공자·자하의 문답으로 장군㉔¹⁸⁾를 이루는데, 장군㉓와 ㉔에 동시에 해당되는 3장이 두 장군의 점착제가 되어 1~5장 전체의 장군연관이 연쇄적으로 성립한다.

병렬 방식은 동일한 형식을 갖는 장군들이 나란히 배열되는 형식이

15) 기무라 에이이치(2020), 348~364면 참조.

16) 14-35. 子曰 驥不稱其力 稱其德也

14-36. 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14-37. 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14-38. 公伯寮愬子路於季孫...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

17) 장군㉓: 12-1. 顏淵問仁. 子曰... 12-2. 仲弓問仁. 子曰... 12-3. 司馬牛問仁. 子曰...

18) 장군㉔: 12-3. 司馬牛問仁. 子曰... 12-4. 司馬牛問君子. 子曰... 12-5. 司馬牛憂曰. 人皆有兄弟. 我獨亡. 子夏曰...

다. 〈술이〉 제7편처럼 ‘子曰’로 시작하여 공자의 태도 묘사로 끝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열되는 방식으로, 장군㉑·㉒·㉓… ㉑가 동일한 형식으로 병렬되면서 편 전체의 구조를 이룬다.¹⁹⁾

대응 방식은 한 편의 처음과 끝에 주체적으로 호응하는 장이 배치되는 형식으로, 수미상관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학이〉 제1편이 그 전형이다. 1장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로 끝나고, 16장은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不患人之不己知，患不知人也.]”로 끝난다. 서로 유사한 공자의 두 격언이 하나의 장군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문장들이 편수와 편말에 나누어 배치되면서 〈학이〉 제1편 하나를 통합하고 있다. 첫 장과 마지막 장이 군자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주체적으로 호응하며, 편 전체를 하나의 완결된 의미 단위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위정〉 제2편에서도 1장(爲政以德)과 21장(其爲爲政)이 덕치의 선언과 완성이라는 형태로 수미상관을 이룬다. 기무라는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가 『논어』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편찬자의 의도적 배열이 작용한 형식적 증거로 보았다.

집중 방식은 중심 장군㉑를 기준으로 이후의 장군㉒·㉓·㉔가 각각 장군㉑와 관련을 맺으며 순차적으로 병렬되는 형식인데, 〈위정〉 제2편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1~4장(장군㉑)은 덕치·예치 및 시경의 정신과 호학하는 자세를 서술하는 중심 장군이다.²⁰⁾ 이후 5~8장의 孝에 대

19) 장군㉑: 7-1. 子曰 述而不作… 7-2. 子曰 默而識之… 7-3. 子曰 德之不脩… 7-4. 子之燕居 申申如也 夭夭如也

장군㉒: 7-5. 子曰 甚矣吾衰也… 7-6. 子曰 志於道… 7-7. 子曰 自行束脩以上… 7-8. 子曰 不憤不啓… 7-9. 子食於有喪者之側… 7-10. 子於是日哭 則不歌

20) 장군㉑: 2-1. 子曰 爲政以德… 2-2. 子曰 詩三百… 2-3. 子曰 道之以政… 2-4. 子曰 吾十有五而志於學…

한 문답(장군㉑²¹⁾)은 장군㉑ 3장의 禮 개념과 연결되고,²²⁾ 9~11장의 안회 칭찬·사람을 보는 법(장군㉒²³⁾)은 장군㉑ 4장의 호학 자세와 상응하며, 12~14장의 君子 주제(장군㉓²⁴⁾)는 장군㉑ 1·3장의 군자론과 다시 이어진다. 기무라는 <위정>편의 여섯 개 장군이 모두 장군㉑와 연관을 맺으며 순차적으로 병렬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집중 방식은 편 전체의 의미가 하나의 중심 장군으로 수렴되는 방사형 구조를 이룬다.

부록 방식은 일련의 장군연관이 일단 완결된 뒤에 다른 장 혹은 장군이 부록으로 덧붙여진 형식이다. 기무라는 <위정> 제2편의 경우, 1~21장에 걸친 장군㉑~㉑의 편찬이 일단 완결된 뒤에 정치의 기본조건을 논하는 22장과 예에 관한 23~24장이 나중에 부가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2장²⁵⁾을 단장으로 23~24장을 별도의 장군㉒²⁶⁾로 분류하였다. 또한 <팔일> 제3편이 계씨와 삼가의 참례를 논하는 장으로 시작되다는 점에서, 기무라는 <위정>편의 장군㉒를 본래 <팔일>편에 소속되어야 할 장으로 보았다. 이는 주희가 이 두 장을 <팔일>편의 錯簡으로 지목한 견해를 따른 것이다.

기무라의 장군 이론은 두 가지 면에서 선구적 의의를 갖는다.

21) 장군㉑: 2-5.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2-6. 孟武伯問孝... 2-7. 子游問孝... 2-8. 子夏問孝...

22) <위정> 제2편 3장에서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써 하면 백성들이 수치를 알고 바로잡히게 될 것이다.[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는 문장이 있다. 장군㉑의 머리 장인 5장의 뒤에 오는 "살아 계시면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내며, 예로 제사 지내는 것이다[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라는 말을 근거로, 효라는 것에 대해 공자가 말한 "위배되지 않는다[無違]"를 '예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무라는 장군㉑의 5장이 장군㉑의 제3장을 이어받아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하 기무라 에이이치(2020), 417면 참조.)

23) 장군㉒ 2-9. 子曰 吾與回言終日... 2-10. 子曰 視其所以... 2-11. 子曰 溫故而知新...

24) 장군㉓ 2-12. 子曰 君子不器 2-13. 子貢問君子... 2-14. 子曰 君子周而不比...

25) 단장 2-22.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26) 장군㉒ 2-23 子張問十世可知也... 2-24. 子曰 非其鬼而祭之 詔也...

첫째, 최술의 변증이나 사토 이치로·김용옥 등의 단락 분석이 특정 편이나 범위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기무라는 20편 전체를 일관된 기준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최술이 신뢰도 평가에 집중하여 구조적 재편성의 문제로 나아가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논어』를 유동적 텍스트로 인식하는 관점을 넘어 구조적 재편성의 단계로 심화시킨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기무라는 장군연관을 연쇄·병렬·대응·집중·부록의 다섯 형식으로 유형화함으로써, 개별 직관에 머물던 분류를 명시적 기준의 문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정성적 독해를 일정한 규칙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로서, 그 기준이 후속 연구자에 의해 검증·재현되거나 데이터로 구조화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기무라 자신은 그 기준을 방대한 산문 서술 속에 분산시켜 뒀으로써 이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가 그의 분류를 정형 데이터로 옮기고 계량적으로 교차 검증하려는 것은, 바로 이 미실현된 재현 가능성을 이어받아 구체화하려는 작업이다.

3. 장군 이론의 정형화

본 장에서는 기무라의 서술을 토대로 장군 분류를 대분류·소분류의 두 층위로 정형화하여 『논어』 제1~5편의 분류표를 구성한다. 기무라의 원저는 장군 분류를 산문적 서술 속에 분산하여 기술하고 있어,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계 가독형(Machine-readable) 구조로의 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정형화 작업은 기무라 장군론의 첫 번째 디지털 구조화 시도이며, 4장에서 수행할 군집 분석의 직접적인 비교 준

거로 기능한다.

기무라 이론의 정형화 모델은 각 편 내의 편집 층위와 주제적 응집도를 반영하여 대분류·소분류 두 단계의 계층 구조로 설계하였다. 대분류는 각 편 내에서 성격이 확연히 구별되는 상위 군집을 가리킨다. 이 모델에서는 기무라가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구간이라도 그의 분석적 논지에 부합한다면 전체 흐름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편입하여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예컨대 〈학이〉편은 대분류를 따로 두지 않았으나, 기무라는 제1장부터 제16장까지를 하나의 온전한 편장 구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01A 하나로 구분했고, 〈위정〉편은 02A(주요 장군연관)와 02B(착간)으로 구분되므로 두 개의 대분류로 확정하였다. 대분류가 편 내 이질적 구간의 존재를 표시한다면, 소분류는 그 안에서 공통 주제나 장군연관 방식으로 묶이는 세부 군집을 나타낸다. 이 대분류·소분류 체계로 〈학이〉부터 〈공야장〉까지 다섯 편에 적용하여 정리한 것이 〈표 1〉이다.²⁷⁾

대분류	소분류	장 범위	주요내용
01A	01a	LY0101~0102	군자 양성·효제와 인의 기본
	01b	LY0103~0104	군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군자의 성실함 예시(증자)
	01c	LY0105~0107	정치·도덕 실천·인격완성
	01d	LY0108~0110	군자의 인간상·정교 효과
	01e	LY0111~0113	예의 실천·쓰임·보편적 가치
	01f	LY0114~0116	군자의 호학·호례
02A	02a	LY0201~0204	덕치·예치·군자의 학문 기반
	02b	LY0205~0208	효에 대한 문답

27) 기무라 에이이치(2020), 367~472면 참조. 아울러, 본 연구에서 『논어』 각 장의 표기는 편의상 'LY+편번호+장번호'의 형식을 따른다. 예컨대 LY0101은 제1편 제1장을, LY0516은 제5편 제16장을 가리킨다.

대분류	소분류	장 범위	주요내용
	02c	LY0209~0211	안연의 호학·사람 보는 법
	02d	LY0212~0214	군자의 학문 태도
	02e	LY0215~0218	학문의 방법
	02f	LY0219~0221	정치에 대한 문답
	-	LY0222	정치의 기본조건(단장)
02B	02g	LY0223~0224	착간
03A	03a	LY0301~0303	참례 비판·예악과 인간 본질
	03b	LY0304~0306	예의 근본·질서 정신
	03c	LY0307~0308	군자의 경쟁·예와 시경
	03d	LY0309~0313	체제사·제사 태도
	03e	LY0314~0318	주나라 예 기준·고려 실천
	-	LY0319	군신 관계의 예(단장)
03B	03f	LY0320~0322	1차 부록
	03g	LY0323~0326	2차 부록
04A	04a	LY0401~0407	인에 대한 집중 서술
	04b	LY0408~0409	도에 대한 설명
	04c	LY0410~0411	군자의 태도
	04d	LY0412~0414	공리주의·예치·군자의 걱정
04B	04e	LY0415~0425	증자 문인 편집본·군자의 일
	-	LY0426	간언의 절도(단장)
05A	05a	LY0501~0512	공자의 제자 평
	05b	LY0513~0514	자공·자로 부록
05B	05c	LY0515~0521	열국 대부에 대한 평
	05d	LY0522~0525	제자·인물 총괄 비평 부록
	05e	LY0526~0528	공자 자신의 뜻 서술

〈표 1〉 기무라 장군 분류표 (『논어』 제1~5편)

각 편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이〉편은 01a부터 01f까지 여섯 소분류가 모두 A군 본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군자의 내면 덕목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논리적 완결성을 보여주며, B군 없이 A군만으로 완결된 구조는 〈학이〉편이 편집상 가장 정제된 형태임을 시사한다.

〈위정〉편은 02a~02f의 A군 안에서 덕치·효·호학·학문 태도·학

문 방법·정치 문답이라는 복합 주제가 전개된다. 여기에 LY0222 단장과 착간 02g가 B군으로 덧붙여진 구조는, 〈학이〉편보다 편찬 층위가 복잡함을 보여준다. 이는 논술의 핵심부 이외에 이질적 전송 자료가 더 많이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팔일〉편은 A군(03a~03e)에서 禮의 근본 정신을 집중적으로 논한 뒤, B군에서 군신 관계의 예라는 단장(LY0319)과 두 차례의 부록(03f·03g)을 배치한다. 부록이 1차와 2차로 구분된다는 점은 텍스트 형성 과정이 최소 두 단계의 보충 편찬을 거쳤음을 함의한다.

〈이인〉편은 인(仁) 개념의 집중 서술(04a~04b)로 A군이 형성되고, B군에서 다양한 화자와 주제의 어록이 뒤따른다. 이 다양성은 仁이라는 핵심 주제 주변에 여러 제자 계통의 자료가 보충 편집된 구조임을 보여준다.

〈공야장〉편은 공자의 제자 평(05a)과 자공·자로 부록(05b)으로 A군이 구성되고, B군에서 열국 대부 평·제자 인물 총괄 비평·공자 자신의 뜻 서술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A군과 B군의 경계가 앞의 네 편보다 훨씬 세밀하게 나뉜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야장〉편의 편찬이 다단계 보충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형화 과정을 통해, 필자는 『논어』를 단순한 어록 집성이 아닌 특정한 편찬 원리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 텍스트로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기무라의 장군 이론은 『논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원리에 의해, 몇 단계의 편찬 과정을 통해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를 텍스트 내부 구조로부터 논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중 층위 군집 분석과 장군 분류의 타당성 진단

1) 분석 방법 및 이중 층위 설계의 목적

본 연구가 지향하는 편장 구조의 재편성은 형태적·사상적 일관성에 근거한 체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현행 장들을 의미 단위로 해체하여 재편성하되, 기무라의 장군 이론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기무라의 분류는 정성적 독해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텍스트를 읽고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김운조는 사토 이치로(佐藤一郎)라는 일본학자의 연구방법론을 계승하여 『논어』 편찬 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기무라의 이론을 참고하면서도, 〈학이〉편 전체를 ‘孔門學生便覽’ 내지 ‘孔門學校規則’으로 규정한 기무라의 논지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기술한 바 있다.²⁸⁾ 이처럼 동일한 텍스트를 두고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는 정황은, 기무라의 분류를 채택하든 거부하든 그 판단이 정성적 독해에만 머무를 경우 객관적 재현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더욱이 본 연구는 기무라의 장군론을 편 경계를 넘어서는 개념 단위 분류로 확장하려 하므로, 그 확장의 근거를 정성적 판단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군집 분석(Clustering)을 외부 준거로 도입한다. 군집 분석은 텍스트 사이의 어휘·의미 유사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유사한 것끼리 자동으로 묶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사전 판단이나 개입 없이 계산 결과만으로 분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장군 이론과 같은 분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아도 텍스트 데이터 자체의 패턴에 따라 군집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정성적 독

28) 김운조(2008), 167면 참조.

해를 보완하는 객관적 재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두 층위의 분석 결과가 기무라의 분류와 맞물리는 양상은 단순한 일치·불일치의 이분 구조가 아니라 세 가지 구간으로 갈라지는데, 그 구체적 식별과 판정은 4절에서 다룬다. 이러한 구간 구분은 계량적 분석이 인문학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인간 연구자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가시화하는 진단 도구로 기능한다는 본 연구의 입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검증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무라가 동일 장군으로 확정한 장들이 어휘·의미 층위에서도 실제로 유사한가. 이는 기무라가 장군으로 묶은 근거가 계량적으로 지지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둘째, 기무라가 단장 또는 부록으로 분류한 장들이 본편 장군과 계량적으로도 이질적으로 분리되는가. 이는 착간·연문으로 의심되어 온 장들의 이질성이 계량적으로도 확인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셋째, 클러스터링 결과와 기무라의 분류가 불일치하는 구간은 어디이며, 그 불일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군집 분석을 정답으로 전제하지 않되, 양자가 갈라지는 지점을 전통 주석과 선행 연구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할지를 묻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 질문이 기무라 분류의 검증에 해당한다면, 셋째 질문은 그 검증을 넘어 새로운 분류 체계의 확정과 조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석적 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검증 방법을 ‘형태소 분석 기반’과 ‘임베딩 기반’의 두 층위로 설계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어휘 사용 패턴의 표면적 유사성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며, 언어모델 임베딩은 텍스트 이면의 문맥적·철학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데 탁월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측면을 포착하는 두 층위를 교차 활용함으로써, 기무라의 분류가 어휘 층위와 의미 층위에서 각각 어떻게 지지되거나 어긋나는지를 구분

해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1~5편으로 한정할 데는 방법론적 근거가 있다. 예비 분석으로 상론 전체인 1~10편 258장을 대상으로 예비 분석을 수행한 결과, TF-IDF²⁹⁾ 기반 군집 결과에서 전체 장의 82%에 달하는 212장이 단일 군집으로 흡수되어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분석 범위가 확대될수록 동일한 단어의 가중치가 달라지는 TF-IDF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코퍼스가 커질수록 『논어』 전반에 두루 등장하는 夫子·孔子·弟子 등 호칭어와 仁·禮·學·君子 같은 사상 어휘는 '흔한 단어'로 간주되어 페널티를 받게 되며, 그 결과 변별 키워드가 사라진 다수의 장이 하나의 군집으로 흡수된다. 이때 분석 결과는 텍스트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분석자가 설정한 범위에 좌우되므로, 객관적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코퍼스 규모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다섯 편 분량의 군집 분석에서는 편별 주제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며 주제적 응집도가 높아 계량 분석의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1~5편을 파일럿 범위로 설정하여 방법론을 확립하고, 이후 다섯 편씩 단계적으로 나누어 20편 전체로 확장 적용하는 접근을 택하였다.³⁰⁾

29)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문서 집합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가중치 산출 방식이다. TF(단어 빈도)는 해당 문서 안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측정하고, IDF(역문서 빈도)는 그 단어가 전체 문서 집합에서 얼마나 드물게 등장하는지를 측정한다. 두 값을 곱함으로써, 특정 문서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다른 문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즉 해당 문서의 개념적 특성을 잘 대표하는 단어—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본 연구에서는 『논어』 각 장을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고, 각 장의 개념적 특성을 대표하는 핵심 어휘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들 사이의 어휘 유사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30) 본 논문의 군집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코드는 다음 깃허브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sy527991/Analects-Clustering>

2) Jiayan 형태소 기반 군집 분석 결과

첫 번째 층위는 고대 한문 형태소 분석기 Jiayan(甲言)³¹⁾을 활용한 TF-IDF 기반 군집 분석이다. ‘형태소 분석기’란 각 장을 품사 단위로 분절하는 도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절 결과 가운데 실제 의미를 담는 명사류(n, nh, ns)만을 추출하여 개념 단위의 어휘 분포를 측정하였다. 즉, 허사·접속사 등 문법 기능어를 제거한 상태에서 각 장을 문서로 간주하고 단어의 출현 빈도와 역문서 빈도를 결합한 TF-IDF 벡터를 산출함으로써 표면적 어휘 패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능어를 제거한 명사류 벡터로 군집을 산출하되, 군집이 형성된 뒤에는 각 군집의 문형 경향을 별도로 관찰했다. 따라서 군집을 가르는 입력값은 명사류에 한정되며, 뒤에 제시할 <표 2>의 문형 특징은 이렇게 형성된 군집을 사후적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형태소 분석 기반의 이 층위는 같은 글자가 반복 등장하는 장들이 실제로 묶이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효하며, 기무라가 연쇄 방식의 근거로 제시한 공유 글자의 역할을 계량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학이>편 첫 장의 형태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된다.³²⁾

31) Jiayan(甲言)은 ‘갑골문언(甲骨文言)’에서 이름을 딴 고대 한문 자연어 처리(NLP) 전문 툴킷이다. 기존의 중국어 NLP 툴은 대부분 현대 중국어(백화문)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조사나 어휘 체계가 완전히 다른 고대 한문을 처리할 때 분절 오류가 심하고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다. Jiayan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고대 문헌 데이터를 디지털 정보로 쉽게 전환(인공지능 분석, 텍스트 마이닝 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GitHub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https://github.com/jiaeyan/Jiayan>

32) Jiayan 고전 한문 품사 태그셋은 다음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jiaeyan/Jiayan/tree/master/jiayan/postagger> 형태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사(verb)인 學이 명사(general noun)로 표시되고, 부사(adverb)인 不가 명사로 표시되는 것과 같이, 문맥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글자에 태깅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Jiayan과 같은 통계적·딥러닝 기반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서 學이 ‘학문’·‘배움’이라는 명사로 쓰인 사례가 많을 경우, 문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子(n) 曰(v) 學(n) 而(c) 時(v) 習(v) 之(u) 不(n) 亦(d) 說(v) 乎(u) 有(v) 朋(n) 自(r) 遠(v) 方(n) 來(v) 不(n) 亦(d) 樂(v) 乎(u) 人(n) 不(d) 知(v) 而(c) 不(v) 慍(n) 不(n) 亦(d) 君子(n) 乎(u)

군집화는 K-Means 알고리즘으로 수행하였으며, 군집 수 K는 엘보우 방법(Elbow Method)에 따라 K=5로 설정하였다.³³⁾ 1~5편 전체 121장을 5개 군집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군집	장수	핵심어휘 및 문형특징	대표 개념
Cluster 0 ³⁴⁾	25	여기조사 矣 활용, 상태·판단의 단정적 서술	道·孝
Cluster 1 ³⁵⁾	10	‘~하는 자(者)’, ‘~할 수 있다(能)’ 결합	仁
Cluster 2 ³⁶⁾	52	也·之·其 빈출, 진행적 평서문 구조	人·知
Cluster 3 ³⁷⁾	26	不·乎·則 빈출, 질문·조건·통치 논의	民
Cluster 4 ³⁸⁾	7	행동(行)과 이익(利)의 대조 구조	君子·小人

<표 2> Jiayan 형태소 분석 기반 클러스터링 결과

동사 용법에서도 명사로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말뭉치(corpus)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로서 장들 사이의 상대적 어휘 분포 패턴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TF-IDF 분석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어휘 층위 분석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uwenBERT 임베딩 기반 분석을 병용하였다.

- 33) K-Means는 데이터를 사전에 지정한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centroid)에 배정하고, 배정된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군집 중심을 갱신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군집 내 유사성을 최대화한다. K값의 결정은 군집 수를 늘려도 군집 내 분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지점을 시각화하는 엘보우 방법과, 각 장이 자신의 군집에 얼마나 적합하게 배치되었는지를 수치화하는 실루엣 계수(silhouette coefficient)를 함께 적용하여 K=5를 최적값으로 선정하였다.
- 34) Cluster 0 군집에 해당하는 25개의 장은 다음과 같다.(이하, 같은 방식으로 나열) LY0103, LY0108, LY0111, LY0113, LY0114, LY0202, LY0203, LY0205, LY0206, LY0207, LY0211, LY0301, LY0302, LY0316, LY0325, LY0404, LY0408, LY0409, LY0420, LY0423, LY0502, LY0506, LY0513, LY0515, LY0526
- 35) Cluster 1: LY0112, LY0322, LY0401, LY0402, LY0403, LY0405, LY0406, LY0413, LY0511, LY0519

각 군집의 성격을 살펴보면, Cluster 0은 공자의 발언 중에서도 道와 孝를 핵심 개념으로 하며, 어기조사 矣를 통해 어떤 상태나 판단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문형 패턴이 두드러진다. Cluster 1은 仁과 관련된 장들이 강하게 묶였으며, ‘~하는 자(者)’·‘~할 수 있다(能)’ 등의 표현과 결합하여 인을 실천하는 인물이나 그 가능성을 서술하는 패턴을 보인다. Cluster 2는 사람(人)에 대한 知(知)을 핵심 개념으로 다루되, 也·之·其 등의 대명사와 종결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고전 한문의 가장 전형적인 평서문 구조로 묶인다. Cluster 3은 民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핵심 개념으로 하며, 부정부사 不·의문조사 乎·조건절 則을 통해 질문을 던지거나 조건을 따지는 문형 패턴이 두드러진다. Cluster 4는 君子와 小人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며, 이들의 행동(行)과 이익(利)을 뚜렷하게 대조하는 특수한 구조의 장들로 구성된다. 이 군집은 1~5편에서는 소규모로 나타나지만, 20편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더 뚜렷한 군집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를 기무라의 장군 분류와 대조하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이 확인된다. 우선 Cluster 1은 장군 이론 04a(LY0401~0407)³⁹⁾를

36) Cluster 2: LY0102, LY0110, LY0115, LY0116, LY0201, LY0208, LY0210, LY0213, LY0216, LY0217, LY0218, LY0221, LY0222, LY0223, LY0224, LY0304, LY0305, LY0307, LY0308, LY0309, LY0310, LY0311, LY0312, LY0313, LY0315, LY0317, LY0318, LY0319, LY0323, LY0324, LY0407, LY0410, LY0414, LY0421, LY0422, LY0426, LY0501, LY0503, LY0504, LY0505, LY0507, LY0508, LY0509, LY0512, LY0514, LY0516, LY0518, LY0521, LY0522, LY0524, LY0525, LY0528

37) Cluster 3: LY0101, LY0104, LY0105, LY0106, LY0107, LY0109, LY0204, LY0209, LY0212, LY0214, LY0215, LY0219, LY0220, LY0303, LY0314, LY0320, LY0321, LY0326, LY0415, LY0417, LY0418, LY0419, LY0425, LY0517, LY0523, LY0527

38) Cluster 4: LY0306, LY0411, LY0412, LY0416, LY0424, LY0510, LY0520

39) 04a<이인>: 4-1. 子曰 里仁爲美... 4-2. 子曰 不仁者不可以久處約... 4-3. 子曰 唯仁者能好人... 4-4. 子曰 苟志於仁矣... 4-5.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以所欲也... 4-6. 子曰 我未見好仁者... 4-7. 子曰 人之過也...

중심으로 기무라가 仁 개념의 집중 서술로 묶은 장군과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이는 기무라의 정성적 분류가 어휘 층위에서도 지지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Cluster 2는 52개 장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인 가장 큰 군집으로, 기무라가 서로 다른 장군으로 분류한 장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TF-IDF 기반 클러스터링이 표면적 어휘 패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식인 만큼, 고전 한문의 전형적 문형을 공유하는 장들이 내용과 무관하게 하나로 묶이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의미 층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임베딩 기반 분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무라 분류와의 정밀한 대조는 의미 층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임베딩 기반 클러스터링 결과와 함께 제4절 ‘일치·불일치 구간의 해석과 신뢰도 판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GuwenBERT 임베딩 기반 군집 분석 결과

두 번째 층위는 고대 한문을 사전 학습한 언어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s)인 GuwenBERT⁴⁰⁾를 활용한 임베딩 기반 군집 분석이다. 각 장은 768차원의 고차원 벡터로 표현되며, 이 벡터는 어휘 분포의 표면 패턴을 넘어 문장 전체의 문맥과 철학적 의미를 함께 반영한다. 따라서 본 층위는 仁과 禮처럼 글자는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장들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군집화는 형태소 분석과의 비교를 위해 동일하게 K-Means 알고리즘으로 5개 군집(K=5)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40) GuwenBERT(古文BERT)는 始知閣古代文獻(중국의 고전 문헌 디지털화 프로젝트) 코퍼스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로, 고대 문헌 15,694종, 약 17억 자(字)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모든 번체자는 간체자로 변환 처리되었다. <https://github.com/Ethan-yt/guwenbert>

군집	장수	특징	대표 개념
Cluster 0 ⁴¹⁾	16	학문의 목적과 도덕적 실천을 통한 군자됨의 당위적 논의	學・君子
Cluster 1 ⁴²⁾	26	덕치・효도・인물 평가 등 관계 속 역할 수행의 철학적 사유	德治・孝
Cluster 2 ⁴³⁾	22	仁・禮의 본질 논의 및 제자의 학문 태도・정교 효과에 대한 공자의 평가	仁・禮
Cluster 3 ⁴⁴⁾	8	단호한 경구와 경계해야 할 태도의 선언적 발화	경구・단정
Cluster 4 ⁴⁵⁾	48	道・知에 관한 보편적 담론. 서술 맥락의 일반성이 응집 배경	道・知

〈표 3〉 GuwenBERT 임베딩 기반 클러스터링 결과

각 군집의 성격을 살펴보면, Cluster 0은 學과 君子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군자인가’라는 당위적 물음을 공유하는 장들이 모인 군집이다. 학문의 목적과 도덕적 실천이 하나의 의미 축을 이루며, 교육적 논의가 응집의 중심을 이룬다. Cluster 1은 德治와 孝를 핵심

41) Cluster 0: LY0101, LY0104, LY0106, LY0108, LY0218, LY0219, LY0220, LY0222, LY0304, LY0313, LY0317, LY0326, LY0402, LY0413, LY0418, LY0522

42) Cluster 1: LY0116, LY0201, LY0202, LY0206, LY0210, LY0213, LY0214, LY0301, LY0302, LY0305, LY0314, LY0316, LY0319, LY0403, LY0414, LY0416, LY0420, LY0422, LY0424, LY0426, LY0514, LY0517, LY0518, LY0520, LY0524, LY0528

43) Cluster 2: LY0109, LY0211, LY0215, LY0224, LY0303, LY0310, LY0312, LY0318, LY0320, LY0325, LY0401, LY0407, LY0409, LY0411, LY0417, LY0419, LY0421, LY0503, LY0506, LY0511, LY0523, LY0527

44) Cluster 3: LY0103, LY0212, LY0216, LY0404, LY0408, LY0412, LY0423, LY0425

45) Cluster 4: LY0102, LY0105, LY0107, LY0110, LY0111, LY0112, LY0113, LY0114, LY0115, LY0203, LY0204, LY0205, LY0207, LY0208, LY0209, LY0217, LY0221, LY0223, LY0306, LY0307, LY0308, LY0309, LY0311, LY0315, LY0321, LY0322, LY0323, LY0324, LY0405, LY0406, LY0410, LY0415, LY0501, LY0502, LY0504, LY0505, LY0507, LY0508, LY0509, LY0510, LY0512, LY0513, LY0515, LY0516, LY0519, LY0521, LY0525, LY0526

개념으로 하여, 정치·사회 속에서 인간과 군자의 역할을 다루는 군집이다. 덕치주의·인물 평가·효도 등 관계 중심의 철학적 사유를 담은 장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Cluster 2는 유학의 핵심 개념인 仁과 禮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군집으로, 공자 자신의 시각에서 제자들의 학문적 태도와 政敎의 효과를 평가하고 관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Cluster 3은 규모가 가장 작으나 가장 특징적인 군집으로, “巧言令色(LY0103)”, “君子不器(LY0212)”, “朝聞道, 夕死可矣(LY0408)” 등 공자의 단호한 경구와 강하게 경계해야 할 태도를 선언하는 장들이 발화 방식의 유사성을 매개로 응집된다. Cluster 4는 전체 장의 절반 가까이 포함된 가장 큰 군집으로, 道와 知에 관한 『논어』의 가장 보편적인 담론들이 해당하며, 특정 주제보다는 서술 맥락의 일반성이 응집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결과를 형태소 분석 기반 군집과 비교하면, 양자는 서로 다른 차원의 텍스트 구조를 드러낸다. 형태소 분석 기반 군집이 어기조사(也·乎·矣)나 부정어(不)의 배치와 같은 문법적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GuwenBERT 군집은 ‘이 장이 군자다움의 당위를 논하는가, 관계 속의 역할을 다루는가, 선언적 경구인가’와 같이 텍스트 이면의 주제적·철학적 의미 유사도를 포착하여 분류한다. 이로써 『논어』 텍스트가 어휘 층위와 의미 층위에서 각각 다른 응집 구조를 갖는 다층적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기무라의 장군 분류와 대조하면 형태소 분석 기반 군집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Cluster 2의 仁·禮 관련 장들이다. 이 군집은 기무라가 〈이인〉편과 〈팔일〉편에서 각각 별도의 장군으로 분류한 장들을 편 경계를 넘어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다. 이는 기무라가 편 내부 구조 분석에서 포착하지 못한 편 경계를 넘나드는

개념적 연관을 의미 층위에서 확인한 사례이며, 본 연구가 기무라의 장군론을 편 경계를 넘어서는 개념 단위 분류로 확장하려는 방향과도 부합한다.⁴⁶⁾ 반면 Cluster 3의 경구·단정 군집은 기무라의 장군 분류와 직접 대응하는 단위를 찾기 어려운데, 이는 공자의 경구적 발화 방식이라는 문체적 특성이 기무라의 의미 연관 분류와는 다른 기준으로 장들을 묶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임베딩 기반 분석은 기무라가 다루지 않은 문체 차원의 군집까지 식별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정합·부분 일치·인문학적 재검토

앞에서 수행한 두 층위의 군집 분석 결과를 기무라의 장군 분류와 대조하면, 분석 결과는 단순한 일치나 불일치의 이분 구조가 아니라 정합 구간, 부분 일치 구간, 인문학적 재검토 구간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식별된다.

기무라의 정성적 판단이 형태·의미 두 계량 분석 결과와 모두 일치하는 정합 구간은, 분류의 타당성이 어휘 층위와 의미 층위에서 독립적으로 검증된 사례에 해당한다.

가장 뚜렷한 사례는 〈이인〉 제4편 04a의 仁 집중 서술 구간이다. 이 장군은 Jiayan 형태소 기반 분석에서 Cluster 1로, GuwenBERT 기반 분석에서 Cluster 2로 묶이며 두 층위 모두에서 높은 응집도를 보였다.

46) 클러스터링 수치만 놓고 보면 LY0319의 이질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형태소 분석에서 LY0319는 LY0314·0316장과 다른 군집에, 임베딩 분석에서는 LY0315·0317·0318장과 다른 군집에 배치된다. 두 층위 모두에서 LY0319가 인접 장들과 연관되게 다른 군집에 놓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여기에 내용적으로도 주나라 예의 기준과 고레 실천을 논하는 제14~18장과 달리, LY0319는 군신 관계를 다루며 발화 형식도 구별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기무라의 단장 판단이 어휘·의미 층위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곧 어휘 차원에서는 仁·者·能 등의 핵심 어휘가 반복되고, 의미 차원에서는 仁의 본질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적 응집성이 함께 확인된다. 이는 기무라가 정성적 독해에 근거하여 제시한 분류 기준이 두 층위에서 동시에 지지되는 가장 강력한 사례이며, 본 연구의 분류 체계에서 확정적 단위로 채택될 수 있다. 또한 <팔일> 제3편 03B 부록 구간⁴⁷⁾과 일부 단장 후보들은 두 분석 모두에서 본편 장군과 이질적인 군집으로 분류되어, 기무라가 본편과 분리한 정성적 판단이 계량적으로 지지되었다.

두 계량 분석 가운데 한 측면에서만 기무라의 분류와 부합하는 부분 일치 구간은, 기무라의 분류가 어휘 또는 의미 중 한 층위에서만 변별력을 갖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두 분석 방법이 서로 다른 차원의 텍스트 구조를 포착함으로써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표적 사례가 LY0319⁴⁸⁾이다. 이 장은 형태소 분석에서 인접 장 LY0314·0316과 다른 군집에, 임베딩 분석에서 인접 장 LY0315·0317·0318과 다른 군집에 배치된다. 곧 두 층위 모두에서 인접 장들과 일관되게 다른 군집에 놓이지만, 어휘 층위와 의미 층위에서 이질성을 드러내는 양상은 서로 다르다. 내용적으로도 LY0319는 주나라 예의 기준과 고레 실천을 논하는 인접 장(LY0314~0318)⁴⁹⁾과 달리 군신 관계를 다루며 발화 형식도 구별된다. 이러한 패턴은 기무라의 단장 판단이 어휘·의미 층위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 연구의 분류 체계에서 단장 후보로 잠정 분류될 수 있다.

47) 03B의 1차부록 구간(03f): 3-20. 子曰 關雎 樂而不淫... 3-21. 哀公問社於宰我... 3-22. 子曰 管仲之器小哉...

03B의 2차부록 구간(03g): 3-23. 子語魯大師樂曰 樂其可知也... 3-24. 儀封人請見曰... 3-25. 子謂韶 盡美矣... 3-26. 子曰 居上不寬...

48) LY0319: <팔일> 3-19.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49) 3-14. 子曰 周監於二代... 3-15. 子入太廟 每事問... 3-16. 子曰 射不主皮... 3-17. 子貢欲去告朔之餼羊... 3-18. 子曰 事君盡禮 人以爲諂也

또 다른 사례로 GuwenBERT의 Cluster 2(仁·禮의 본질 논의)는 기무라가 〈이인〉 제4편과 〈팔일〉 제3편에서 각각 별도의 장군으로 분류한 장들을 편 경계를 넘어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다. 이는 의미 층위에서는 통합적 군집이 형성되지만 어휘 층위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사례로, 기무라가 편 내부 구조 분석에 머무름으로써 포착하지 못한 편 경계 횡단적 연관을 본 연구가 새롭게 식별한 지점이다.

두 계량 분석이 모두 기무라의 분류와 어긋나는 인문학적 재검토 구간은, 정성적 판단과 계량적 측정이 포착하는 텍스트 구조의 차원이 서로 다름을 시사하는 지점이며, 비판적 정독을 통한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GuwenBERT의 Cluster 3(경구·단정)은 기무라의 장군 분류와 직접 대응하는 단위를 찾기 어렵다. 이 구간은 향후 비판적 정독을 통해 기무라의 분류를 유지할지, 새로운 기준을 추가할지를 판정해야 할 지점으로 남는다.⁵⁰⁾ 예컨대, 이 군집은 “君子不器”(LY0212), “朝聞道, 夕死可矣”(LY0408) 등 공자의 단호한 경구로 묶인 군집인데, 기무라의 장군 분류 기준이 의미 연관에 있다면 이 군집은 문체적 특성이라는 다른 기준으로 장들을 묶은 셈이다. 이는 기무라 이론의 반증이 아니라, 기무라가 채택한 의미 연관 기준 외에도 문체 차원의 군집 기준이 『논어』 텍스트에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문체 차원의 군집 기준은 분석 범위를 20편 전체로 확장할 때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향당〉 제10편이다. 이 편은 공자의 말(語)을 문답 형식으로 전하는 『논어』의 일반적 서술 방식과 달리, 공자의 용모·의복·식사·행동거지를 객관적으로 묘사

50) 여기서 새로운 기준이란 기무라의 의미 연관 외에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를 토대로 도입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최술의 문헌 신뢰도 평가, 역대 주석가들이 착간·연문으로 지목한 장에 대한 검토, 경구형·단정형 등 발화 방식의 유형화가 그 후보에 해당한다.

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통적으로도 여타 편과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공자의 행동을 묘사하는 구절들은 〈술이〉 제7편의 “子之燕居 申申如也 夭夭如也”(LY0704)처럼 여러 편에 산재해 있는데, 의미 연관이 아니라 서술 양식을 공유하는 이 장들은, 기무라의 장군 분류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임베딩 기반 군집에서는 하나의 문체적 단위로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체 군집에 대해서도 의미 기반 군집과 어떻게 위계적으로 결합할 것인지 20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상의 세 구간 체계를 통해 본 연구는 기무라의 장군 이론에 대해 단순한 채택이나 각각의 판정이 아니라, 층위별 변별력에 따른 차등적 타당성 판정을 수행하였다. 정합 구간은 분류의 확정적 단위로, 부분 일치 구간은 잠정적 단위 또는 편 경계 횡단적 재편성의 후보로, 인문학적 재검토 구간은 정독을 통한 추가 판정 대상으로 각각 식별된다. 이 차등적 판정 체계는 기무라의 분류를 출발점으로 삼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량적 외부 준거를 통해 검증·조정·확장하는 분류 방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5. 결론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기무라 에이이치의 장군 이론을 군집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무라는 『논어』 각 편 내에서 의미·형태적으로 연관된 장들을 군집 단위로 묶고 그 형식을 유형화함으로써 『논어』 문헌 연구를 구조적 재편성의 단계로 심화시켰으나, 그의 분류 근거는 산문 서술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정형화된 데이터로 구조

화하기 어렵고, 그 정성적 판단이 계량 분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타당성은 지금껏 검증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기무라의 분류를 대분류·소분류의 두 층위로 정형화하여 『논어』 제1~5편의 분류 모델을 수립하였고, 이어 고대 한문 형태소 분석기 Jiayan을 활용한 TF-IDF 분석과 고대 한문 언어모델 GuwenBERT 임베딩 분석으로 어휘 층위와 의미 층위의 유사성을 각각 측정하여 기무라의 분류와 대조하였다. 분석 결과는 단순한 일치·불일치의 이분 구조가 아니라 기무라의 판단이 두 계량 분석 결과와 모두 일치하는 정합 구간, 한 측면에서만 부합하는 부분 일치 구간, 두 결과 모두 분기되어 비판적 정독이 요구되는 인문학적 재검토 구간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식별되었다. 이러한 차등적 타당성 판정을 통해 본 연구는 기무라의 장군 이론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이분법적 평가를 넘어, 그의 분류를 검증·조정·확장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1~5편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구로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될 것이다.

첫째, 분석 범위의 확장이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방법론은 이후 다섯 편 단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논어』 20편 전체로 확장될 것임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섯 편씩 단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간마다 IDF가 독립적으로 산출되므로 동일한 어휘의 변별 비중이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는 남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기술적 보정보다 각 구간의 군집 결과를 연구자가 직접 검토하는 ‘인문학적 재검토 구간’을 별도로 분류하고 정성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확립된 방법론을 20편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공자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최적의 편장 체계 선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의 목표이다. 분석 범위가 확장되면 선행 연구로 서술한 최술·나유의·이토 진사이 등 선행 경학사 논의와 계량 분석 결과가 어떤 점에서 상응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도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분석 결과의 데이터 구조화이다. 본 연구가 산출한 타당성 정보, 즉 각 장의 군집 배치, 기무라 분류와의 정합도, 세 구간 분류는 TEI/XML⁵¹⁾ 문서로 구조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산문으로만 기술되어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려웠던 기무라의 분류는 물론, 선행 연구에서 디지털화한 최술의 문헌 비평 정보까지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비판 정보 안에 결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행 20편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 장에 대해 최술의 신뢰도 평가, 기무라의 장군 분류, 본 연구의 군집 분석 결과가 다층적인 주석으로 부착된 형태의 정본이 구축되는 것이다.

셋째, 공유와 협업 기반의 마련이다.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비판 정본은 GitHub 등 오픈 플랫폼에 공개하여, 후속 연구자가 동일한 작업을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고도 기존 성과 위에서 자신의 연구를 이어 갈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하게 할 것이다. 텍스트와 주석 데이터를 누구나 내려받고, 비판하고,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비판 정본은 한 연구자의 성과물이 아니라 학술 공동체의 공동 자산으로 기능하

51)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W3C가 표준화한 마크업 언어로, 데이터에 일정한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그 체계를 통해 인간의 가독성과 기계의 처리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다만 XML은 마크업의 문법적 틀을 제공할 뿐 무엇을 어떻게 표시할지는 규정하지 않는데, 이 틀 위에서 인문학 텍스트의 표현 방식을 표준화한 국제 규약이 TEI(Text Encoding Initiative)이다. TEI는 1987년 출범한 국제 협력체이자 그 결과물인 가이드라인을 가리키며, 원문·이체자·교감·주석·인물 및 지명 정보 등 고전 문헌 연구에 필요한 요소들을 표준화된 태그로 기술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본 연구가 산출한 타당성 정보를 TEI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호화하면, 특정 도구나 개인에 종속되지 않고 연구자 사이에서 공유·재사용·상호검증이 가능한 형식으로 정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경학자료를 대상으로 한 TEI를 준수하는 XML 데이터 설계 연구는 김서운(2024) 논문을 참조.

게 된다.

또한 계량적인 분석을 위해 기무라의 이론을 구조화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방법론이 『논어』를 넘어 『맹자』·『대학』·『중용』 등 다른 경서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성적 비평을 정형 데이터로 명시화하고, 계량 분석으로 그 타당성을 교차 검증하며, 결과를 표준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공유하는 일련의 절차는 텍스트를 다루는 여러 학문 전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절차를 다른 경서에 적용함으로써 동아시아 경학 연구의 디지털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단지 기무라 이론의 검증이나 『논어』 한 편의 재편성에 그치지 않는다. 정성적 비평의 정형화, 계량적 교차 검증, 표준 형식의 데이터 구조화, 그리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공유라는 일련의 순환 구조를 통해, 개별 연구자의 정성적 통찰이 학술 공동체의 누적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디지털 경학의 방법론적 틀이자, 공유와 협업을 지향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방법론이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 伊藤仁齋(1712), 『論語古義』, 奎文館, 1712.
荻生徂徠(1737), 『論語徵』, 大和屋孫兵衛, 1737.
太宰春臺(1745), 『論語古訓外傳』, 嵩山房, 1745.
朱熹(1779), 『論語集注』, 乾隆御覽四庫全書薈要本, 1779.
朱彝尊, 『經義考』, 臺灣商務印書館, 1983.

2. 연구 논저

- 단행본

- 武內義雄(1939), 『論語の研究』, 岩波書店.
木村英一(1971), 『孔子と論語』(東洋學叢書), 創文社.
錢穆(1990), 『四書釋義』, 學生書局.
김용옥(2000), 『논어한글역주1』, 통나무.
김용옥(2008), 『논어한글역주3』, 통나무.
崔述, 박준원 역(2013), 『論語餘說』, 지식을만드는지식.
기무라 에이이치, 나종석 역(2020), 『공자와 논어(孔子と論語)』, 예코리브르.

- 한국어

- 김서윤(2024), 「한국경학자료시스템 XML 검토 및 데이터 설계」, 『대동문화연구』 제12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김서윤(2025), 「崔述의 『論語餘說』과 디지털 비판 정본-청대 고증학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시론-」, 『민족문화』 제71집, 한국고전번역원.
김영기(2011), 「공자 사후 공문 후계구도와 《논어》의 편찬-학이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58집, 영남중국어문학회.
김영기(2012a), 「공자의 지향과 《논어》 편차(篇次)에 관한 소고(小考) -〈학이〉, 〈위정〉, 〈팔일〉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제22집, 동아인문학회.
김영기(2012b), 「최술의 『논어』 학이편 제2장 其爲人也孝弟章 考信에 대한 검토」, 『중국어문학』 제60집, 영남중국어문학회.

김윤조(2008), 「論語 學而篇 研究 —논어 편찬 과정에 대한 一 管見—」, 『동양한문학연구』 제27집, 동양한문학회.

박재복(2009), 「출토문헌에 보이는 『論語』 고찰 — 定州 漢墓와 敦煌에서 발견된 『論語』 「述而」편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제36집, 동양고전학회.

송병렬(2015), 「『論語』 「泰伯」편 構成과 主題에 관한 研究」, 『동방한문학』 제65집, 동방한문학회.

이예성·이강재(2018), 「『논어정의』에 나타난 노론(魯論)」, 『인문논총』 제75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기타 동양어

佐藤一郎(1958), 「論語 子張篇の研究—論語原典批判 其—」, 『日本中國學會報』, 第10期, 日本中國學會.

3. 웹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종합DB』, <https://db.cyberseodang.or.kr>

維基文庫 <https://zh.wikisource.org>

CTEXT, <https://ctext.org>

殆知閣, <https://daizhige.org/>

甲言(Jiayan), <https://github.com/jiaeyan/Jiayan>

古文BERT(GuwenBERT), <https://github.com/Ethan-yt/guwenbert>

TEI(Text Encoding Initiative), <https://tei-c.org/>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https://www.w3.org/XML/>

A Quantitative Examination of Kimura Eiichi's (木村英一)
Chapter-cluster (章群) Theory:
A Cluster Analysis of Books 1 -5 of the Analects and the Identification
of Humanistic Reexamination Zones

Kim, Seoyun *

This study aims to examine Kimura Eiichi's (木村英一) theory of chapter-clusters (章群) quantitatively and to diagnose its validity. By grouping semantically and formally related chapters within each book of the Analects into clusters and typologizing the modes of their connection, Kimura advanced the philological study of the Analects into the stage of structural reorganization. His theory, however, is set out in extensive pros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nvert into structured data, and the validity of his qualitative judgments—the degree to which they accord with quantitative analysis—has never been tested.

To address this,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two stages of work. First, Kimura's theory was formalized into a two-tier model of primary and secondary categories, on the basis of which a classification model for Books 1-5 of the Analects was established. This step translates Kimura's prose-based judgments into a structured data format. Second, a dual-layer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and its results were compared with Kimura's classification: a TF-IDF analysis using the classical Chinese morphological analyzer Jiayan measured formal similarity in lexical patterns, while an embedding-based analysis using the classical Chinese language model GuwenBERT measured contextual similarity in meaning.

* Researcher, Center for Digital Humanit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E-mail: sy527991@gmail.com

The results cannot be reduced to a binary of agreement or disagreement; rather, they are identified along three distinct zones. These are the zone of convergence, in which Kimura's judgment aligns with both the morphological and the semantic results; the zone of partial convergence, in which it accords with only one of the two layers; and the zone calling for humanistic reexamination, in which the two quantitative analyses diverge and depart from Kimura's classification, thereby requiring further critical close reading. This three-zone framework shows the position of this study: that quantitative analysis does not replace humanistic judgment but functions as a diagnostic instrument for identifying the points that call for reexamination. As a pilot study of Books 1-5, the methodology established here can be extended to all twenty books of the Analects in future work.

Key Words

Analects, chapter-cluster theory, Kimura Eiichi, cluster analysis, Jiayan, GuwenBERT

논문접수일: 2026.05.11. 심사완료일: 2026.06.07. 게재확정일: 2026.06.24.
--

‘조선시대 科試 연구’의 성과와 의의^{*}

양원석(제1저자)^{**}, 강성규(교신저자)^{***}, 이미진(교신저자)^{****}

-
1. 머리말
 2. ‘과시 총서’ 성과와 의의
 - 1) 연구총서
 - 2) 자료총서
 - 3) 번역총서
 3. ‘과시 학술논문’ 성과와 의의
 4. 맺음말 -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종합적 성과와 향후 과제
-

■ 국문요약

이 글은 조선시대 科試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수행하였던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1단계 2019년-2022년, 2단계 2022년-2025년)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의의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의 과시 연구가 주로 과거 제도와 운영 중심에 치우쳐 있어 한계를 지닌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644)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 E-mail: yang1st@korea.ac.kr

^{***}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국어국문학교육연구단 연구교수 / E-mail: 4iya@korea.ac.kr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E-mail: leemijin@korea.ac.kr

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진은 1단계에서 조선시대 과시 자료를 목록화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2단계에서는 DB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아울러 연구, 자료, 번역의 세 방면에서 전문성을 특화한 총 21종의 과시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과시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총서 총 6권은 과문의 문화적 영향, 사서의, 과문의 지성사적 의미, 한국 과문의 양식, 응제와 제술을 통한 통치 문학 등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자료총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중 科文六體 중심의 선본 17종을 엄선하고 상세한 해제를 붙여 총 10권으로 영인 발간함으로써 희소성과 실증성을 갖춘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번역총서 총 5권은 과거 관련 법전, 중국 과거 문체 연구서, 조선 초기 전시 장원 대책 선집인 『동국장원책』 등을 정밀하게 역주하여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저변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 사업의 성과는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 과시만의 독자적 문체 양식을 체계화하여 한국한문학의 주체성을 부각하고, 과거제를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입체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조선시대 지성사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과제로 타 학문 분야와의 융합 연구 개발, 동아시아 문화권 내 과거제 비교 분석의 질적·양적 확대, 미공개·희귀 과시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 및 DB 고도화, 과시 자료의 후속 역주 작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조선시대, 科試, 데이터베이스, 수사문체, 논리구축방식, 지성사, 科文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科試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수행하였던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¹⁾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의의를 확인하고 또 앞으

1)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

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방목, 과문선집, 개인문집, 역사기록 등 현 전하는 조선시대 과시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조선시대 학술 및 문학, 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과시 답안의 문체와 수사법의 변모 양상을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차별되는 한국한문학의 독자성을 보여줄 수 있다. 대개 한국한문학 연구가 중국과의 수용 관계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조선 과시에서 사용된 문체 양식은 중국 과시에서 사용된 문체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한국한문학의 독자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시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기본 자료로 학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과시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 과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과거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세부 내용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과거를 실시했던 일본(일시적으로나마 헤이안 시대에 시행된 바 있음) 및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과문의 특징적 면모를 더 효율적으로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지성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은 과시를 통해 문인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으므로, 과거에 출제된 문제와 이에 대한 답안은 당시의 정치와 사회, 사상과 문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 대한 기존 연구가 과거 제도와 운영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번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서 수행한 연구임. 1단계 2019년-2022년, 2단계 2022년-2025년, 총 6년간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하 ‘조선시대 과시 연구’로 약칭하겠음.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조선의 지성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조선시대 과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서 21권 및 60여 편의 학술논문을 성과로 산출하였다. 즉 과시를 중심으로 수사문체 및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한 성과인 [연구총서], 주요 과시 자료를 선별하여 영인하고 해제를 붙인 [자료총서], 과시 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자료를 역주한 [번역총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연구’,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 등의 세부 주제를 설정하여 참여 연구원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다수의 학술논문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조선시대 과시 자료 DB를 구축하였으며²⁾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과시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과문의 특징적 면모를 규명하고, 나아가 조선시대의 학술 경향과 문화적 역량, 학술 논쟁의 역사와 학술 방법, 수사문체 및 논리구축방식의 변화를 밝히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조선시대 과시 연구’를 통해 산출할 총서와 학술논문의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의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2) 과시 자료를 토대로 한 DB 구축의 성과와 전망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사업의 개요와 전망에 대해서는 김정·김광년,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 사업의 개요와 전망』, 『동아한학연구』 1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21, 263~292면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간략하게만 제시하기로 한다.

2. ‘과시 총서’ 성과와 의의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1단계(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와 2단계(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과시 문제, 답안, 수험서 등 과시 관련 자료들의 DB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1차년도에는 방목, 과문선집, 개인문집, 역사기록 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5,000건의 문제 자료 수집 및 DB 구축을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시권, 과문선집, 개인문집, 역사기록 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1,800건의 답안 자료 수집 및 DB 구축을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차년도에는 과시 작법 참고서 및 예문 모음집, 策括類 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500,000자 이상의 원문 자료를 입력, 가공하여 DB로 구축하는 것을 내부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1단계 연구가 DB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 연구는 DB 활용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크게 연구·자료·번역 세 방면에서 전문성을 특화하여 총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총서], [자료총서], [번역총서]를 출간하였다.

[연구총서]는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연구’,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그 성과를 집적한 것이다. [자료총서]는 1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중에서 선본을 선별하고 해제를 붙인 것으로, 이를 통해 과시 관련 중요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번역총서]는 과시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번역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과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저변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1) 연구총서

본 연구진은 '조선시대 과시 연구'를 수행하면서 총 6권의 [연구총서]를 발간하였다. 아래에서 그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연구총서1: 조선시대 과시 문헌과 문체]는 '조선시대 과시 연구'에 공동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제출한 연구 논문을 모은 것으로, 조선시대 과시 관련 문헌과 수사문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집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주로 과시와 관련한 문헌을 발굴하여 검토하고, 문헌에 실린 시제나 시권, 참고서 등을 문체별로 고찰한 것이다. [연구총서1: 조선시대 과시 문헌과 문체]에 수록된 성과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심경호,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종래 조선시대 과거 관련 연구가 제도의 연혁이나 합격자 등용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과거 연구는 부과 문체 및 제목을 검토하고, 필수 공용서적(운서·자서 등), 수험대비용 서적, 수험결과 편찬물의 유통을 조사하여, 각 시대의 학술 경향과 문화적 역량, 학술논쟁의 역사와 학술방법의 변화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과거 관련 자료가 방목 자료 이외에, 문집·과문편집본·필기잡록류·단행(별행)자료·시권 등 다양한 종류의 문헌 자료에

편제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향후의 연구 방향 설정에 길잡이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김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近藝雋選』研究」: 조선후기에 필사된 과체시 선집인 『근예준선』을 연구하여, 이것이 1780년대 남인이 분파하기 이전의 문학적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選集『儷林』에 대하여」: 조선후기 과문선집인 『儷林』을 발굴 및 연구하였다. 이 책은 주로 숙종·영조·정조 대에 활동했던 90명의 작가들이 실제 과거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와 습작한 科表 708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과문의 전범이 되었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김기엽, 「『嶠南賓興錄』의 판본과 御考 科賦 試券에 대한 小考」: 정조대에 시행된 지방 別試의 전말을 기록하고, 별시에 합격한 시권을 수록한 자료인 賓興錄을 발굴 및 연구하였다. 정조대 영남 지방에서 시행된 도산별시 관련 자료를 살피고, 과거 시험 문제 중의 하나인 科賦의 수사와 규식, 그리고 시권의 비점에 반영된 평가 기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의 실체에 관한 일고찰」: 『東儷文』과 『儷林』이라는 텍스트에 주목하여 응시자들이 어떤 과문 작가들과 작품들을 주목했는지 살펴보고, 두 책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조선 후기 응시자들이 科表 작성의 모범으로 참고했던 작품들의 양상과 그 실체를 규명하였다.

· 김광년,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臨軒功令』研究」: 조선 正祖 연간부터 편찬이 이루어진 과문집인 『臨軒功令』의 체제와 내용 및 그 특징 등을 탐색하였다. 이 책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조 연간 이후 다양한 과거 시험의 시행일자, 문제, 답안, 해당 답안의 작성자 및

성적 등 관련 자료가 매우 풍성하고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는 것으로써 당대 과거 문화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

· 이상욱, 「조선 후기 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조선후기 科策 참고서인 『策型』과 『駢儷華藻』를 연구하여 17세기 후반 과시 전용 참고서의 구성과 내용 등을 밝혀내었다. 특히 이 책들은 과책이라는 수사 문체의 전범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 윤선영, 「한·중 科舉 經義文 비교 - 조선시대 四書疑·五經義와 명·청대 八股文을 중심으로」: 명·청대와 조선시대 과시의 경의문 비교를 통해 양국 과거 시험 답안에 드러나는 존주자적 양상과 이러한 흐름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시의 한 과목이었던 경학 시험을 중점으로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을 해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연구총서1]을 통해 과시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이후에는 연구원 개인의 집중 연구를 통해서 질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기획 의도에 따라 5종의 [연구총서]를 이어서 간행하였다.

[연구총서2: 조선의 과문]은 공동연구원인 이상욱 박사의 저작물이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 과문의 정의와 과문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과문 형식의 성립과 변천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과거제는 천년 이상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운영되면서 학술과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는데, 저자는 특히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 당시의 개별자들에게 각각 끼친 문화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과문은 조선이라

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글쓰기의 내용과 방법을 창출하고, 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가 되며, 개인의 입장에서 과문의 능숙한 구사는 사회적 권력의 획득 수단이 된다. 기본적으로 과문 글쓰기는 국가와 개인 입장의 두 가지 힘이 부딪혀 생성된 조선 특유의 문화적 결과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조선시대 정치, 문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과문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의 종류와 변이는 어떠한지 실제 과문선집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총서3: 과거로 물은 논어]는 공동연구원인 윤선영 박사의 저작물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과거에서 소과와 문과 초시에서 시행된 ‘四書疑’를 중심으로 살핀 연구서이다. 사서의는 관리 선발의 핵심 기준이자 유교 문화의 정수를 담은 경학을 평가 과목으로 삼는 시험으로, 당대 학계의 동향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응시자들 각자가 정자·주자의 주석을 토대로 창의적인 논리를 전개하며 입격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사서의 가운데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던 『논어』 시험의 산물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문화사와 사회적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총서4: 숙종-정조대 과책 과표 연구]는 공동연구원인 박선이 박사의 저작물이다. 이 책은 조선후기 과거 시험의 핵심 문체인 과책(대책)과 과표를 중심으로, 숙종에서 정조 시기에 이르는 시기의 학문적 담론과 문체적 변화 양상을 고찰한 연구서이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 과거 제도를 ‘선발 시스템’의 관점을 넘어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입체적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숙종-정조대의 역동적인

시기의 사상적 쟁점들을 과문이라는 구체적인 매개체로 연결함으로써, 조선후기 지성사의 공백을 메우고 당시 지식인들의 고민과 학문적 지향점을 생생하게 복원해 내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총서5: 한국 과문의 양식과 시제]는 공동연구원인 심경호 명예교수의 저작물이다. 이 책은 과거제도와 관련한 여러 주제, 즉 과거시험 운영 방식과 종류, 科文의 양식과 시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과거 시행의 양상, 시대별 문학사조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집대성한 종합연구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과거제도가 단순히 관직 진출의 수단을 넘어, 국가가 지식인층에게 요구하는 이념, 학술 사상, 현실 인식, 문학내용을 經世의 규모에 통합시키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에 주목하여, 고려와 조선의 다양한 科種과 문체가 시대적 상황 및 국가 이념과 어떻게 결합하여 변화해 왔는지를 조망하였다. 아울러 과거 응시를 위해 편찬된 다양한 참고서와 기출문제집(과문규식 참고서 등)의 유통 경로를 밝힘으로써 당시 지식인층의 학습 방법과 지식 생산 구조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문을 통해 근대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문학’이라는 더 넓은 범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조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연구총서6: 응제와 제술]은 공동연구원인 심경호 명예교수의 저작물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국왕의 시문인 御製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지어 올린 글인 應製, 製述의 실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한 연구서이다. 조선의 통치 체제 안에서 문학이 어떻게 국가 이념을 구현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하면서, 특히 館閣 문학의 규범성과 그 변화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학문적

지향과 정치적 실천 양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 문학 양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선시대 문학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정치권력과 학술 사상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장으로서의 ‘통치 문학’을 재발견하여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서적 편찬, 鑄字 발문, 외교 문서 등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지식이 국가 주도로 어떻게 생산되고 표준화되어 유통되었는지 그 구조를 밝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총서1: 조선시대 과시 문헌과 문체]는 과시 문헌 및 과시의 개별 문체를 주로 연구한 것이며, [연구총서2]부터 [연구총서6]까지는 과문의 문화적 영향, 사서의(논어), 과책·과표의 지성사적 의미, 한국 과문의 양식과 시제, 응제와 제술을 통한 통치 문학 등을 심도 있게 조명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과거 시험 관련 문헌과 문체의 다방면의 양상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료총서

‘조선시대 과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문헌 조사 작업을 통해서 확인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큰 선본을 선별하여 총 10권 이상의 [자료총서]로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약 4년간에 걸쳐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255종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번	서명	청구기호	연번	서명	청구기호
----	----	------	----	----	------

1	正始文程	만송 D5 A2	128	義東	만송 D5 A146
2	震英粹語	만송 D5 A7 1	129	射中	만송 D5 A147
3	震英粹語	만송 D5 A7 1(2)	130	箭紅	만송 D5 A148
4	震英粹語	만송 D5 A7B	131	參壹	만송 D5 A149
5	瓊林聞喜錄	만송 D5 A27	132	雜說文	만송 D5 A150
6	鳴波	만송 D5 A28	133	山堂同苦錄	만송 D5 A151
7	科文抄集	만송 D5 A29	134	昆山片玉	만송 D5 A152
8	蓮桂賦	만송 D5 A30 1	135	正鵠	만송 D5 A153
9	桂紅	만송 D5 A31	136	荊雲	만송 D5 A154
10	省對	만송 D5 A32 1~2	137	錦繡	만송 D5 A155
11	近藝窩選	만송 D5 A33	138	貫玉	만송 D5 A156
12	始發	만송 D5 A34 2	139	詩流	만송 D5 A157
13	舉業	만송 D5 A35 1~2	140	龍飛	만송 D5 A158
14	東儷	만송 D5 A36	141	張侯捷鵠	만송 D5 A159
15	繡虎	만송 D5 A37	142	觸臚	만송 D5 A160
16	雜說	만송 D5 A38	143	類聚	만송 D5 A161
17	經國大手	만송 D5 A39	144	天葩	만송 D5 A162
18	科文抄	만송 D5 A40	145	杏藏	만송 D5 A163
19	科文抄	만송 D5 A41	146	珠玉錦囊	만송 D5 A164
20	古則	만송 D5 A42	147	鳩聚	만송 D5 A165
21	(通史)千丈扶雲	만송 D5 A44	148	腔子	만송 D5 A166
22	莊文	만송 D5 A45	149	課草	만송 D5 A167
23	東賦	만송 D5 A46	150	奎章題錄	만송 D5 A168
24	科文抄	만송 D5 A47	151	天必感	만송 D5 A169
25	善變	만송 D5 A48	152	鳩玉	만송 D5 A170
26	古賦	만송 D5 A49	153	桂心箭	만송 D5 A171
27	細川集	만송 D5 A50	154	詩抄	만송 D5 A172
28	所庵札	만송 D5 A51	155	驪珠	만송 D5 A173
29	策抄	만송 D5 A52	156	竹天集	만송 D5 A174
30	科賦抄	만송 D5 A53	157	雜哀	만송 D5 A175
31	繡藻	만송 D5 A54 1~9	158	賦抄	만송 D5 A176

32	科文抄	만송 D5 A55	159	箭箭中(仁)	만송 D5 A177 1
33	終南經	만송 D5 A56	160	箭箭中(義)	만송 D5 A177 2
34	雜書抄	만송 D5 A57	161	箭箭中(禮)	만송 D5 A177 3
35	筌蹄	만송 D5 A58	162	箭箭中(智)	만송 D5 A177 4
36	東葩	만송 D5 A59	163	語孟演義	만송 D5 A178
37	清選	만송 D5 A60	164	東詩	만송 D5 A179
38	屈宋餘響	만송 D5 A61	165	策文抄	만송 D5 A180
39	經義問對	만송 D5 A62	166	東策	만송 D5 A181
40	大計	만송 D5 A63 1~17	167	肯構篇	만송 D5 A182
41	明珠寶鏡	만송 D5 A64	168	紅箭	만송 D5 A183
42	時中	만송 D5 A65	169	策文抄	만송 D5 A184
43	利見	만송 D5 A66	170	儷文格式	만송 D5 A185
44	開結	만송 D5 A67	171	經義問對	만송 D5 A186
45	屠龍劔(抄)	만송 D5 A69	172	蕉隱艸	만송 D5 A188
46	時中	만송 D5 A70	173	片金	만송 D5 A189
47	東策大體	만송 D5 A71	174	殿策	만송 D5 A190
48	東賦抄	만송 D5 A72	175	眞實珠集	대학원 貴 504
49	大將鼓	만송 D5 A73	176	東林	만송 D5 A191
50	頓齋所得	만송 D5 A74	177	靑藻	만송 D5 A192
51	三日糧	만송 D5 A75	178	龍樓習步	만송 D5 A193
52	類編古今策 學衍義	만송 D5 A76 2	179	震賦	만송 D5 A194
53	經學論義抄	만송 D5 A77	180	垂釣	만송 D5 A195
54	短棹尋原	만송 D5 A78	181	攀蜃	만송 D5 A196
55	廣川餘派	만송 D5 A79	182	團梯	만송 D5 A197
56	赤鳥几几	만송 D5 A80	183	桂華	만송 D5 A198
57	唱名終	만송 D5 A81	184	義受	만송 D5 A199
58	經策	만송 D5 A82	185	馬榮	만송 D5 A200
59	壯策粹	만송 D5 A83	186	大觀	만송 D5 A201
60	架壘說	만송 D5 A84	187	賦稿	만송 D5 A202
61	明月珠	만송 D5 A85	188	溪涯	만송 D5 A203

62	箭中	만송 D5 A86	189	明理文天	만송 D5 A204
63	珠卷	만송 D5 A87	190	一戰霸	만송 D5 A205
64	採蓮寶抄	만송 D5 A88	191	玉峯詩草	만송 D5 A206
65	春塘抄	만송 D5 A89	192	寫表式	대학원 D5 A1
66	愛蓮說	만송 D5 A90	193	正始文程	대학원 D5 A2
67	博士業	만송 D5 A91	194	表東	대학원 D5 A3
68	大對	만송 D5 A92	195	東國策	대학원 D5 A4
69	龍虎榜	만송 D5 A93 3	196	還餉對策	대학원 D5 A5
70	葩叢	만송 D5 A94	197	經玉	대학원 D5 A6
71	智端	만송 D5 A95	198	震英粹語	대학원 D5 A7
72	鄒疑	만송 D5 A96	199	壯元集	대학원 D5 A15
73	二子篇	만송 D5 A97	200	殿策	대학원 D5 A19
74	邁選	만송 D5 A98	201	科賦	대학원 D5 A228
75	時調	만송 D5 A99	202	尺木	대학원 D5 A187
76	驪珠	만송 D5 A100 1	203	大策正宗	대학원 D5 A207 1-2
77	驪珠	만송 D5 A100	204	大策正宗	대학원 D5 A207
78	八脚	만송 D5 A101	205	渾天賦	대학원 D5 A208
79	元陵青黃科	만송 D5 A102	206	丙箭	대학원 D5 A209
80	片玉	만송 D5 A103	207	書義	대학원 D5 A210
81	咄咄	만송 D5 A104	208	義	대학원 D5 A211
82	疑東	만송 D5 A105	209	策學提綱	대학원 D5 A213
83	玉楚	만송 D5 A106	210	論集	대학원 D5 A215
84	要抄	만송 D5 A107	211	經解(易)	대학원 D5 A217
85	絃角	만송 D5 A108	212	東賦	대학원 D5 A218
86	天山弓	만송 D5 A109	213	東論	대학원 D5 A219
87	寶匣	만송 D5 A110	214	大對	대학원 D5 A220
88	利見	만송 D5 A111	215	瑤雅	대학원 D5 A221
89	進步	만송 D5 A113	216	集大成	대학원 D5 A222
90	藝選	만송 D5 A114	217	震策	대학원 D5 A223
91	居中	만송 D5 A115	218	震賦	대학원 D5 A224
92	驚得	만송 D5 A116	219	科文	대학원 D5 A227

93	一中	만송 D5 A117 1	220	儷體	대학원 D5 A229
94	科賦抄	만송 D5 A117 2	221	龍門	대학원 D5 A230
95	川策	만송 D5 A118 1	222	科文	대학원 D5 A231
96	湖策	만송 D5 A118	223	珠玉	대학원 D5 A232
97	海策	만송 D5 A118	224	紫騰	대학원 D5 A233
98	坪策	만송 D5 A118 2	225	東義	대학원 D5 A234
99	神聲抄	만송 D5 A119	226	大璞	대학원 D5 A235
100	四書纂要	만송 D5 A120 1	227	雜錄	대학원 D5 A236
101	荷珠	만송 D5 A120 2	228	海東駢儷	대학원 D5 A238
102	四子問答	만송 D5 A120 3	229	三儷	대학원 D5 A239
103	四子脚下	만송 D5 A120 4	230	東策	신암 D5 A8A
104	春臺龍	만송 D5 A121	231	策問	신암 D5 A9
105	科一	만송 D5 A122	232	科賦	신암 D5 A10
106	獨對	만송 D5 A123	233	鸞儷	신암 D5 A11
107	百鍊金	만송 D5 A124	234	科文	신암 D5 A12
108	表東人	만송 D5 A125	235	科文	신암 D5 A12A
109	庸學中	만송 D5 A126	236	〔對〕策	신암 D5 A13
110	眼藏	만송 D5 A127	237	策問中頭各體	신암 D5 A14
111	花推	만송 D5 A128	238	心手記	신암 D5 A16
112	司馬門	만송 D5 A129	239	東詩	신암 D5 A17
113	四書問答	만송 D5 A130	240	表式	신암 D5 A18
114	蓋冠	만송 D5 A131	241	列聖贊語	신암 D5 A68
115	儷一	만송 D5 A132	242	經綸手	신암 D5 A112
116	小睡補忘	만송 D5 A133	243	經國策	육당 D5 A1
117	設鵠	만송 D5 A134	244	論語義云	육당 D5 A2
118	揣摩	만송 D5 A135	245	齊壇子等	육당 D5 A3
119	上天足	만송 D5 A136	246	近穀	육당 D5 A4
120	筌蹄	만송 D5 A137	247	金聲	육당 D5 A5
121	有聲畫	만송 D5 A138	248	昭代名儷	육당 D5 A6
122	大中	만송 D5 A139	249	賜石科試各體	육당 D5 A7
123	體認	만송 D5 A140	250	儷規	육당 D5 A8

124	補忘丸	만송 D5 A141	251	儷文	육당 D5 A9
125	箭箭中紅	만송 D5 A142	252	儷文	육당 D5 A9A
126	听庭大對	만송 D5 A143	253	儷林	육당 D5 A10
127	雲雷消息	만송 D5 A144	254	蓮榜詩格(抄)	육당 D5 A11
			255	東嶽(목활자본)	화산 D5 A8A

〈표1〉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조사 목록

본 연구진은 고려대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에서 [자료총서]에 수록할 만한 선본 과시 자료를 선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과거 시험 과목으로 규정된 총 14종의 과시 문체 가운데 출제 빈도가 높은 ‘疑, 義, 詩, 賦, 表, 策’, 이른바 科文六體³⁾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문체별로 중요한 자료를 취합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아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희소성을 가진 자료를 선별하였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가 대부분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 과제시 선집인 『東詩』[자료총서2]와 사서의 참고서인 『上天足』[자료총서9] 등과 같이 시기별 또는 문체별로 볼 때, 현재까지 ‘유일본’으로 전해져 학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수로 연구되어야 하는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과문선집이 18세기 이후에 집중된 상황에서, 16세기 말~17세기 중엽에 작성된 답안지 등이 수록된 『東林』[자료총서4]이나 16세기 말 목활자로 간행된 『東策』[자료총서7]처럼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간행(필사)된 문헌을 통해 18세기 이전 과문의 양상과 변천사를 추적할 수 있다.

셋째, 모범 답안, 입격 답안을 모아놓은 자료뿐만 아니라, 당시 과거 시험의 시행 맥락을 복원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당

3) 이미진(2025), 「조선시대 科試 문체 箴의 현황과 특징」, 265~266면.

시 유생들의 과시 준비 과정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다. 『表東』[자료총서5-6]과 『大對』[자료총서7]처럼 시험 관련 정보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은 당시 과거제도의 실제 운영 실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상천죽』[자료총서9]처럼 試題 전문을 온전히 수록한 자료는 당대의 출제 경향과 大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미입격 답안이 수록된 『近藝雋選』[자료총서1]과 같이 명편선집이라고 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도 기존 선집에서 볼 수 없는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당대 유생들의 과체시 학습 과정 및 과체시에 대한 평가 기준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表東人』[자료총서6]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과표의 핵심인 ‘對偶’를 구성하는 기초 연습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震策』[자료총서8]과 같이 수험생이 투식(허두·구괘·편중 등)과 관련하여 남겨놓은 메모를 통해 당대 수험 학습의 실상을 복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17종의 대상 자료를 정리하고 문체별로 편성하면서 영인 자료에 대한 상세 해제를 부기하여 [자료총서] 총 10권을 간행하였다.⁴⁾ 총서의 구성과 대상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총서1: 科詩]

- 近藝雋選(만송 D5 A33 / D5 A114): 『근예준선』은 乾集(만송 D5 A33)과 坤集(만송 D5 A114)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집에는 총 80수, 곤집에는 총 75수의 시가 수록. 대부분 미입격한 작품이며, 선정된 작가들이 모두 18세기 남인계 인물임.

- 科賦抄(만송 D5 A53): 『과부초』는 과체시선집으로 총 118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1882년 무렵 필사된 것으로 추정. 대부분 한유나 구양

4) <표1>에 [자료총서] 영인 대상 문헌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수와 같은 당송팔가의 산문을 시제로 삼은 작품을 수록.

· 錦繡(만송 A155): 『금수』에 수록된 작품 수는 총 74수. 과체시의 형식을 준수하거나 그 형식을 고려하여 작성된 과체시가 다수이며, 실제 출제되었던 시제로 詩作한 과체시도 확인됨.

[자료총서2: 科詩]

· 採蓮寶抄(만송 D5 A88): 『채련보초』는 17세기 중후반~19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문인들의 과시를 모아둔 과체시 선집으로, 수록된 작가는 39명이며, 작품은 총 206수임.

· 東詩(신암 D5 A17): 『동시』는 과체시 선집으로, 38명의 작가의 작품 총 74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三下의 성적을 받았음. 작품에는 시험년도, 시험종류, 시관, 성적 등이 부기.

[자료총서3: 科賦]

· 科賦(대학원 D5 A228): 『과부』는 전 5책(궁상각치우)으로, 현재 영본 2책(궁, 각)만 전함. 궁집은 1774~1790년까지 총 126명의 과부 작품 수록, 각집은 1801~1822년까지 총 194명의 과부 작품 수록.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과부의 시제, 응시 유생들의 작품 및 인적 정보, 시험 정보 등 부기.

[자료총서4: 科表]

· 東林(만송 D5 A191): 『동림』은 과표선집으로, 16세기 말~17세기 중엽까지 활동했던 34명의 인물들이 실제 과거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와 그들이 습작하거나 私作한 과표 56편을 모아서 인물별로 분류하고 편집.

・儷文(육당 D5 A9A): 『여문』은 과문선집으로, 17세기 중반~18세기 후반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이 실제 시험에 제출했던 과표를 수록. 증광시와 식년시 등 정식 과거시험의 초·복시 답안뿐만 아니라 각종 泮試를 비롯해 翰林召試 및 重試 등 다양한 유형의 시험에서 작성된 과표를 시행 시기순으로 수록.

[자료총서5: 科表]

・表東(대학원 D5 A3): 『표동』은 총 5책으로, 영조 연간부터 정조 연간까지 시행된 다양한 과시에서 지어진 과표 및 과문별체 작품 총 519편을 수록. 문과 및 반시, 응제 등에서 출제되었던 과표 문제와 답안을 수록하면서 작품마다 작가 및 시험 관련 정보를 기재.

※ 『표동』 1~3책은 [자료총서5]에 수록. 『표동』 4~5책은 [자료총서6]에 수록.

[자료총서6: 科表]

・表東人(만송 D5 A125): 『표동인』은 漢 高祖, 漢 惠帝, 漢 文帝, 齊 高祖, 梁 武帝, 唐 高祖, 唐 太宗, 宋 太祖, 宋 太宗 등 漢代부터 宋代까지의 역대 황제를 表題로 하여 지은 63편과 시대를 표제로 하여 지은 五季 1편을 합쳐 총 64편의 작품 수록.

[자료총서7: 科策]

・東策(화산 D5 A18A): 『동책』은 과책문집으로 전 2책 중 上策만 전함. 梁應鼎, 金慶雲, 李長榮, 徐崦, 李珥, 金濂, 任百英의 16세기 중반 執事策 10편을 수록.

・大對(대학원 D5 220): 『대대』는 1597년부터 1672년 사이에 작성

된 殿策들을 수록하고 있는 선집으로, 총 37인(작자 미상 포함)의, 26제, 42편 수록. 대부분 별시에서 작성된 작품이며, 다수의 작품이 壯元作임.

[자료총서8: 科策]

· 震策(대학원 D5 A223): 『진책』은 숙종 연간에 활동한 孫命來(1664~1722) 등 15명의 인물들이 실제 과거 시험에서 제출했던 대책 답안지와 그 책문 문항을 모아서 엮은 선집.

· 昕庭大對(만송 D5 A143): 『혼정대대』는 숙종 연간에 활동한 李光佐(1674~1740) 외 11인의 대책문 답안 18편을 모아서 엮은 선집.

[자료총서9: 四書疑]

· 上天足(만송 D5 A136): 『상천족』은 사서의 과목 참고서로, 16세기 중반 중종~숙종 연간의 290편이 넘는 분량의 시제와 답안을 수록하고 있고, 그중 40여 명의 실제 생원시 입격자들의 답안 수록.

[자료총서10: 科文別體]

· 東論(대학원 D5 A219): 『동론』은 李奎報(1168~1241), 朴光佑(1495~1545), 李滉(1501~1570), 柳順善(1516~1577), 崔嵬(1539~1612) 등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활동했던 34명의 과거 시험 답안지와 습작 및 사작한 科論 54편 수록.

· 儷一(만송 D5 A132): 『여일』은 정조대에 활동했던 李書九, 徐榮輔, 南公轍 등 109명의 상량문, 송, 잠, 명, 律賦 등 다양한 문제의 과거 시험 답안지 170편 수록.

이처럼 본 연구진은 학계에 체계적으로 소개된 적 없던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중 선본 17종을 엄선하여 총 10권의 [자료총서]로 발간하였다. 자료 선정은 과문육체 중심의 대표성, 필사본 중심의 희소성, 그리고 과거 시험의 실제 맥락과 수험 학습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증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18세기 이전 과문의 양상과 변천사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시험 정보(시험 연도, 종류, 시관, 성적, 시제 등)가 온전히 수록된 자료들을 통해 당대 과거제도의 실제 운영과 실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입격 답안, 습작과 사작 등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를 통해 당대 지식인들의 생생한 과시 학습 실상과 평가 기준을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하였다.

3) 번역총서

[번역총서]는 과시 자료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엄선하여 정밀하게 역주한 심층 연구의 결과물로, ‘조선시대 과시 연구’에서는 당초 [자료총서] 대상 자료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선별 및 번역하여 일반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총 5권 이상의 출간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진은 당초의 [번역총서] 간행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조선시대 과거가 국가에서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되었기에 과거제도와 그 문화에 대해 살피려면 우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거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판단으로 사업 초기부터 참여 연구원들이 관련 원전 자료에 대한 강독 세미나를 먼저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과시에 대한 배경지식을 축적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원활하

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총서1]~[번역총서4]는 과거시험의 연혁과 제도 등과 같이 과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번역 작업을 선행하였고, [번역총서5]부터는 실제 과시 자료에 대한 번역을 진행한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번역총서1]~[번역총서4]의 번역 대상 자료를 소장처와 함께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번	서명	번역 대상 자료 및 소장처
1	역주 과거급과문	『科擧及科文』(서울대 규장각)
2	역주와 해설 조선 과시 법전	『經國大典』(1471)·『續大典』(1746)·『大典通編』(1785) 中 「禮典 諸科」(서울대 규장각)
3	역해 과거사목·상정과거규식	『科擧事目』(1553)·『詳定科擧規式』(1557) (고려대 도서관)
4	역주 과거문체연구	『科擧文體研究』 (汪小洋·孔慶茂 著, 天津古籍出版社, 2005)
5	역주 동국장원책 갑	『東國壯元策』 甲集(국립중앙도서관)

〈표2〉 번역총서 원전 자료 현황

[번역총서1: 역주 과거급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科擧及科文』을 대상으로 원문 전체를 입력하고 역주 작업을 진행하며 세미나에서 윤독한 결과물이다. 조선 말~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鄭萬朝(1858~1936)의 자는 大卿, 호는 茂亭이며 본관은 東萊이다. 그는 1889년 문과 급제 후 주로 文翰職을 역임했던 문신이자 학자로, 1910년대 이후에 과거제도 전반에 대해 정리한 『과거급과문』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실제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험이 있는 저자(1889년 알성시에서 병과 35위로 급제)가 과거제도·시험 과목·시험 종류·문

체별 과문의 특징 등 과시와 관련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총서를 통해 과시의 제도적·문체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번역총서2: 역주와 해설 조선 과시 법전]은 『經國大典』(1471), 『續大典』(1746), 『大典通編』(1785) 등 조선시대의 역대 법전 중에서 과거 관련 법령이 수록된 「禮典 諸科」 항목, 그중에서도 문과 시험에 대한 조목들을 추려 역주하고, 각 조목에 대해 주요 논의 및 관련 참고 사항을 정리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조목에 대한 당대의 여러 논의들, 참고 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번역총서3: 역해 과거사목·상정과거규식]은 조선전기 과거제도에 대한 제반 규정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당시 국법이었던 『경국대전』에 실린 과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科擧事目』(1553)과 『詳定科擧規式』(1557)을 번역하고 주해한 것이다. 이 두 자료는 담당 관사인 禮曹의 啓目과 이에 대한 왕의 啓下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선전기 과거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논의를 보여준다. 『과거사목』과 『상정과거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시의 경관 과견, 조흘강의 시행, 시권의 품질과 규격 통일 등은 『과거사목』에서 처음 발의된 규정으로, 당시 과거의 제도적 보완이 어느 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문과 중장 고시 과목에서 율부의 비중을 높인 규정에서 당시 사료문 기반의 율부 문체를 중시하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수협 규정의 강화, 과거장 난입 잡인의 단속 등 시험장 내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적 보완이 『과거사목』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강경의 세부 절차, 科次의 방식 등 국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 시행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번역총서2]의 연속선상에서 과거제도의 설립 배경과 함께 조선전기와 후기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번역총서4: 역주 과거문체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 분야 중 하나인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의 측면에서 중국의 과거 문체를 통시적으로 조망한 『科舉文體研究』를 번역하고 주해한 것이다. 『과거문체연구』는 중국의 고대문학 연구자인 汪小洋과 孔慶茂의 공저로, 중국 과거제도의 핵심이었던 문체를 단순한 시험 형식이 아닌, 국가 이데올로기와 유가적 세계관이 결합된 제도적 담론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시대별로 策, 論, 八股文 등 다양한 문체가 인재 선발의 기준이자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정치·교육 체계와 긴밀히 맞물려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거 문체를 고대 중국의 정치 문화와 지적 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총체적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의 과거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과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들에 대한 번역 작업을 선행하였다. 이어 출간한 [번역총서5: 역주 동국장원책 갑]은 조선 태조부터 세조 연간까지 문과 최종 시험인 殿試에서 장원 또는 상위권에 든 對策 52편을 수록한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과문선집 『東國壯元策』 甲集을 번역하고 주해한 것이다. 이 책은 卞季良, 鄭麟趾, 崔恒, 李石亨 등 당대 최고 인재들의 국정 운영 인식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서, 책문과 대책을 함께 수록하여 당시 국가가 당면했던 시무와 역대 역

사의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국장원책』은 갑집·을집·병집으로 총 3책으로 간행되었으며, [번역총서5]는 그중 갑집(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우선 역주하여 과거 문체의 특징과 연혁, 수험용 서적의 편찬과 유통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국장원책』을집과 병집의 역주도 후속 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 연구진은 과거제도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기초 자료에 대한 강독 세미나를 진행하여 번역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총 5권의 [번역총서]를 출간하였다. 이를 통해서 과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중요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과거제도 운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의 과거 문체 연구를 포함함으로써 한국의 과거 문화를 단순한 일국적 현상이 아닌,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 및 지적 전통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비교·조망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아울러 『동국장원책』과 같은 핵심 자료의 역주를 통해 조선 초기 최고 지식인들이 당면했던 국가적 현안과 역사적 쟁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수험 서적의 유통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총서 간행은 제도사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던 기존의 과거에 대한 연구 구도를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 과시만의 문체 양식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과거제를 단순한 ‘선발 시스템’이 아니라, ‘조선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그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과시 학술논문’ 성과와 의의

본 연구 과제는 조선시대 科試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하고 DB로 구축한 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과문의 특징을 파악하고 학술, 문학, 출판인쇄 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하며, 나아가 수사문체 및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연구’,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그 성과를 집적하였다.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법의 연구’에서 수사문체란 한문 글쓰기에 있어서의 수사 방법과 한문 문체별로 요구되는 독특한 글쓰기 관습을 가리키며, 논리구축방법은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한편의 글을 구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즉 과시라는 한문학의 특수한 글쓰기 방식에서 출발하여 한문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과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는 과거가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등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과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제도를 시행했던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과거제와 문학사의 전개’, ‘科擧를 통해 본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과거제도를 시행했던 다른 국가의 연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폭넓은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는 과거제도가 조선시대의 대표적 인재 선발 방식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정

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제 방면과 매우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과거라는 큰 주제를 둘러싼 우리 역사와 문화의 맥락을 자세히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지성사와 학술사의 새로운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로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개별 연구와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진은 사업기간인 2019년 9월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과시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해당 연구를 선도하여 왔다. 6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일반공동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은 총 21명, 연구보조원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사업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아울러 학술논문 60여 편을 작성하여 학계에 발표하였다. 또한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시 관련 주제로 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SCIE 학술지에도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연구성과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수사 문체와 논리구축방법 연구〉

① 박선이, 「조선후기 科文의 실체에 관한 일고찰: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80, 2020.9.)

② 이상욱, 「조선후기 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策型』과 『駢儷華藻』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 72, 2020.10.)

③ 김경, 「조선후기 향촌사회 科詩 창작 一考 —『科賦抄』所在「醉翁亭記」대상 작품을 중심으로」(『동방한문학』 88, 2021.9.)

④ 이미진, 「雪峯 姜栢年の 表를 통해 본 조선시대 月課 창작의 일단면」(『고전과해석』 36, 2022.4.)

⑤ 이상옥, 「三淵 金昌翁 科詩 고찰—17세기 조선 科詩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열상고전연구』 77, 2022.6.)

⑥ 이창희, 「科體詩 翻譯에 대한 체제 모색과 제언」(『한문학논집』 62, 2022.6.)

⑦ 이상옥, 「조선후기 科賦 참고서와 공부 방법」(『대동한문학』 72, 2022.9.)

⑧ 김광년, 「조선 시대 怪異, 災變 관련 科文 研究」(『고전과해석』 38, 2022.12.)

⑨ 김광년, 「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한문고전연구』 45, 2022.12.)

⑩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五經義 과목의 답안 구성과 특징」(『고전과해석』 38, 2022.12.)

⑪ 이미진,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을 통해 본 科試 문체로서의 銘」(『고전과해석』 42, 2024.4.)

⑫ 이상옥, 「조선 科詩와 古詩의 관계 고찰」(『어문연구』 52, 2024.9.)

⑬ 이상옥, 「숙종대 과문 변화 양상 고찰 (1) —試券 모음 과문집을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 85, 2025.2.)

⑭ 이미진, 「조선시대 科試 문체 箴의 현황과 특징」(『어문연구』 53, 2025.3.)

‘수사 문체와 논리구축방법 연구’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科詩를 다룬 연구(③, ⑤, ⑥, ⑫), 科表를 다룬 연구(①, ④), 科策을 다룬 연구(②, ⑧) 科賦를 다룬 연구(⑦), 義를 다룬 연구(⑩), 科文別體를 다룬 연구(⑨, ⑪, ⑭)가 제출되어 과시 문체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축적하였고,

실제 수험생들의 시권을 모아놓은 과문집을 중심으로 숙종 대에 나타난 과문의 변화 양상을 살핀 연구(⑬)도 제출되었다.

⑦은 조선시대 과시 과목 중 하나인 科賦의 공부 방법과 그 문체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과부 글쓰기를 위한 참고서 두 종, 『騷賦彙芳』(서울대 규장각)과 『小大由之』(국립중앙도서관)를 검토하여, 과부 시험을 대비하여 수험생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이를 통해 과부 문체의 핵심 평가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과부가 역사적으로 변화해 간 과정을 추적하고, 그 대체적 추세와 경향성에 대해 논하며, 조선이 과거시험을 통해 시험 응시자들에게 요구한 자질은 무엇이었는지 역추적하여 그 실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⑧은 조선시대에 자연재해나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치리졌던 과거 시험 답안을 분석하여, ‘怪異’와 ‘災變’ 관련 과문의 특징과 추이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에는 주로 『洪範』 九疇나 災異說에 기반하여 天人感應의 논리에 따라 국왕의 修省과 도덕적 실천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구체적인 실무책, 행정적 대안, 민생 안정책을 요구하는 실무적인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괴이와 재변 관련 책문에 답하는 대책은 현상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정치 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군주의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유가 경전의 전고를 활용하여 재앙을 물리칠 구체적인 방안을 논리 정연하게 전개하는 구조적 특징을 밝혔다. 이는 재이설의 문학적·제도적 실천과 실상을 규명하고, 조선시대 유생들의 현실 인식과 정치 참여 재조명하였으며, 과문을 통한 정책 담론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⑬은 시권 모음 과문집들을 중심으로 숙종대 과문 문체의 변화 문제를 살펴 새롭게 형성된 당대 과거시험 관련 문화를 고찰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과표, 과책, 과시, 과부의 실제 시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과문집에 편차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성균관과 四學의 課試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문 형식의 정형화 시기와 관련하여 흔히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보던 기존 학계의 통념을 수정하면서, 그 실질적인 틀과 수험 문화의 전환이 이미 17세기 후반 숙종대에 예비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⑮ 윤선영, 「한중 과거 經義文 비교」(『한국한문학연구』 83, 2021.04.)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를 수행한 ⑮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과거에서 經義를 시험하기 위해 치러진 과목들의 답안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조선의 四書疑·五經義 과목과 명·청시대의 八股文에 대해 주자설 인용 방식과 의존도 변화 양상에 대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의 경의문은 주로 주자학파의 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자신의 설은 내세우지 않은 채 선유들의 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팔고문은 주자설을 위주로 하였으나 이를 문장 속에 간접적으로 녹여냈으며, 후기로 갈수록 주자설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한·중 과거제 연구가 주로 ‘제도사’나 ‘문체의 기원’ 등 형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양국의 실제 과거 시험 답안의 내용을 직접 비교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로 조선과 청대 科場의 사상적 개방성 차이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 연구〉

①⑥ 김경, 「事實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동양고전연구』 80, 2020.9.)

①⑦ 김경・이진경, 「諧謔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대동한문학』 64, 2020.9.)

①⑧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五經義 시제 소고」(『남명학연구』 67, 2020.9.)

①⑨ 심경호, 「朝鮮의 科擧와 文字生活」(『동아한학연구』 15, 2021.3.)

②⑩ 박선이, 「조선 후기 策題와 출제 경향에 관한 일고찰—肅宗~正祖 시기를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93, 2021.9.)

②⑪ 박선이, 「肅宗・英祖代 科擧制와 科文의 推移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한국한문학연구』 83, 2021.9.)

②⑫ 김광년, 「奎章閣의 1781년—內閣日曆을 통해 본 抄啓文臣 應製의 실상」(『동양고전연구』 85, 2021.12.)

②⑬ 김경, 「『於野談』의 ‘科擧談’ 양상과 특징」(『고전과해석』 38, 2022.12.)

②⑭ 김경, 「『梅翁閑錄』所在 科擧談 研究」(『동양고전연구』 91, 2023.6.)

②⑮ 김경, 「『雜記古談』의 科擧談 양상과 특징」(『고전과해석』 41, 2023.12.)

②⑯ 김기엽, 「조선시대 학자들의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 양상」(『대동한문학』 74, 2023.3.)

②⑰ 이미진, 「『記聞叢話』에 나타난 과거담 양상과 특징」(『동아한학연구』 17, 2023.3.)

②⑱ 윤선영, 「조선시대 생원시 응시자들의 과목 선택과 등제 양상」

(『한국문화』 102, 2023.6.)

㉔ 박선이, 「肅宗代 科文의 변화 양상과 당대 문인의 시각」(『고전과 해석』 40, 2023.8.)

㉕ 윤선영, 「四書五經의 經文을 주제로 한 科詩 및 科賦 시제에 관한 연구」(『동방한문학』 96, 2023.9.)

㉖ 김경, 「조선후기 科學談의 轉載와 變改—『東稗洛誦』所在 科學談을 중심으로」(『한국시가문화연구』 54, 2024.8.)

㉗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箴·銘·頌 시제 연구—경문에서 인용한 시제를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96, 2024.9.)

㉘ 김경, 「『溪西雜錄』所在 科學談 研究」(『Journal of Korean Culture』 68, 2025.2.)

㉙ 김광년, 「科試 以後: 大韓帝國期 科學 復元論에 대한 考察」(『동아한학연구』 20, 2025.3.)

㉚ 박선이, 「17~18세기 科學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 배경에 대하여」(『동아한학연구』 20, 2025.3.)

㉛ 윤선영, 「과거제 폐지 이후의 경학 시험과 출제 문제 고찰: 『經義問對』 수록 시제를 중심으로」(『동아한학연구』 20, 2025.3.)

㉜ 김경, 「『二旬錄』所在 科學談의 양상과 특징」(『어문논집』 103, 2025.4.)

㉝ 박선이, 「正祖代 抄啓文臣 製述과 그 의미에 대하여—試題 출제 경향과 문체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한문학보』 52, 2025.6.)

㉞ 윤선영, 「조선 후기 출제 경학 관련 御題를 통해 본 국왕들의 관심사」(『경학』 10, 2025.12.)

㉟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落幅紙의 재활용 문화」(『민족문화연구』 92, 2022.11.)

④ 윤선영, 「科擧 落幅紙의 着服과 流通 實態를 통해 본조선 후기 생활상」(『한국한문학연구』 90, 2024.4.)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과거 시험의 시제 및 출제 경향 분석을 다룬 연구(18, 20, 30, 32, 36, 38, 39), 과거 공부 및 응시 양상을 다룬 연구(19, 22, 26, 28), 과거제를 둘러싼 정치·역사적 배경 및 제도 변동을 다룬 연구(21, 29, 34, 35), 야담 및 문집 속 ‘科擧談’ 연구(16, 17, 23, 24, 25, 27, 31, 33, 37), 과거를 통한 문화사 연구(40, 41)가 제출되어 과거를 통한 시대적·역사적 현상과 당대의 인식 등을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⑤은 과거제 폐지 이후 경학을 바탕으로 성균관 박사를 선발하는 시험인 『經義問對』의 출제 양상을 사서의와 비교하여 구한말 관학으로서의 유학의 마지막 동향을 살폈다. 경의문대는 1894년 과거 제도가 공식 폐지 이후 총 4회(1897·1900·1903·1906)에 걸쳐 설행된 인재 선발 제도로, 기존 사서의 시험과 거의 비슷하면서 질문 방식과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과거제에서 근대적 관리 임용 시험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당대 유생들의 경학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 구한말~대한제국기 문인 연구 부족으로 인해 개인 문집이나 일기 속에서 방치되어 있던 경의문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정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⑥는 조선후기 과거 시행 과정에서 당파 간 정치적 갈등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과거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숙종 및 영조 대에 발생한 대규모 과거 관련 옥사나 합격자 답안의 격식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시험의 공정성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대 당파의 합격자

수를 줄이고 주요 인물들을 조정에서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정쟁의 도구화 경향은 조선 후기 과거제 운영 전반에서 부정행위와 혼란이 끊이지 않고 더욱 극심해진 배경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있는 과거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붕당 간의 정권 교체, 정국 주도권 싸움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고, 기묘과옥·임진과옥의 처결 과정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과거를 통한 조선 후기 정치사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㉔은 과문 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의 태도를 보였던 조선시대 학자들의 여러 논의를 정리하여 그들의 학문적 지향과 현실 인식을 살폈다. 전통적으로 載道的 관점에서 성호 이익을 비롯한 조선의 유학자들은 과문이 올바른 문장 체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학문의 본질을 방해하고 士習을 경박하게 만든다고 강력히 비판하였고, 정약용, 윤기, 이상정 등은 현실적 관점에서 임금을 섬겨 경세의 뜻을 펼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자 부모를 봉양하고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과문 학습을 회의적으로 수용하는 상반된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학자들이 도학적 이상과 현실적 입신양명이라는 사이에서 겪었던 내면적 갈등과 타협하는 과정을 ‘과문 학습’이라는 구체적인 매개체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㉕은 조선시대 科擧의 실상과 문화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 『雜記古談』에 담긴 科擧談의 특징을 구명하였다. 『잡기고담』은 24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10개의 일화가 과거담에 해당하는데,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계층의 응시를 통해 과거를 통한 출세의 욕망이 오히려 공고화되는 경향을 담고 있다. 이는 신분제의 混淆와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윤리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선비로서의 명분과 현실 대응 사이에서 균열된 틈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유생과 校生의 관계를 통해 조선후기 지방 교육의 현실과, 代述을 통해 과거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부정행위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同接끼리 공동 답안 작성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알 수가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양반과 서울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왔던 응시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문제 및 문체·수험결과물·수험참고서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를 주제로 발굴된 과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서지적·내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를 학계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④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 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Journal of Korean Culture』 50, 2020.8.)

④ 김광년,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 『臨軒功令』 研究」(『동양고전연구』 80, 2020.9.)

④ 심경호,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동양고전연구』 80, 2020.9.)

④ 김광년, 「조선 후기 科試 연구와 『承政院日記』의 활용」(『동방한문학』 85, 2020.12.)

④ 김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민족문화』 57, 2021.3.)

④ 김기엽, 「『嶠南賓興錄』의 판본과 御考 科賦 試券에 대한 小考」(『동방한문학』 87, 2021.6.)

④ 노요한 외 3인,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개」(『한문학논집』 62, 2022.6.)

④9 박선이,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表東人』에 관한 일고찰」(『한문학논집』 62, 2022.6.)

⑤0 노요한,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 『壯策粹』에 나타난 대책문의 수사법에 대하여」(『동아한학연구』 17, 2023.3.)

⑤1 이상옥, 「방각본 『史要聚選』 내용 연구」(『어문연구』 51, 2023.6.)

⑤2 김광년, 「국립중앙도서관 所藏 科試 資料의 현황과 의미」(『동양고전연구』 92, 2023.9.)

⑤3 이미진, 「科表 참고서 『表式』 연구—고려대 신암문고본을 중심으로」(『한문고전연구』 47, 2023.12.)

⑤4 김광년, 「延世大學校 所藏 科策集 『策海勻選』 研究」(『Journal of Korean Culture』 50, 2024.8.)

⑤5 김광년, 「奎章閣 所藏 科試 資料의 現況과 그 特徵」(『한국문화』 107, 2024.9.)

⑤6 김경, 「고려대 신암문고본 『東詩』에 대하여」(『한문학논집』 72, 2025.9.)

과시 자료의 문헌학적 연구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문체별 과문선집 및 참고서 연구(과시: ④6, ⑤1, ⑤6 / 과표: ④2, ④9, ⑤3 / 과책: ⑤0, ⑤4 / 과부: ④7 / 종합: ④3), 주요 소장처별 과시 자료 연구(④8, ⑤2, ⑤5), 자료 정리 및 활용에 대한 연구(④4, ④5)가 제출되어 과시 연구에서 중요한 과시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⑤3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신암문고본 『表式』의 구성과, 소재 작품 양상을 살펴 조선시대 과표 참고서의 한 단면과 조선시대 과표 작

성의 실재를 파악하였다. 『표식』은 출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과표의 세부 문체별 작법을 실었으며, 비슷한 의미의 글자를 수험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향용자식도 실었으며, 科次 9등급 이상의 작품을 위주로 실어 수험자가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간의 과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작품 양상도 살펴 『표식』에 실린 작품이 특정 이미지를 대구 안에서 대비시켜 작품 속 상황을 극적으로 재연하고 주제를 강조하였고, 소리나 역사 인물 등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켜 이를 부각함으로써 작품의 완결성을 꾀하고 작자의 심정을 대변하며,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로써 그간 형식에만 치우친 과시 연구를 보완하였으며 조선 후기 과표 참고서의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④⑧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대표적인 장서인 '만송문고'에 소장된 과시 관련 필사본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별로 분류하여 그 현황과 가치를 규명하였다.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들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시, 과부, 사서의·오경의, 과책의 4가지 문제 중심으로 해당 자료들을 개괄하여 제시하고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한 문헌학적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과시 연구'와 관련하여 사업 초기부터 본 연구진이 지속적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255종에 대한 서지사항 조사와 이미지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그 성과의 일부를 공유한 것이다. 이를 통해 DB 구축, 연구 논문 발표, 총서 간행과 같은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던 기초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목록집과 해제집을 학계에 보고하여 과시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④⑨는 과시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그동안 정식 과시 자료로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승정원일기』 속 과시 관련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분석하였다. 『승정원일기』가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에 비해 비정규 시험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방목이 별도로 남지 않은 유생 응제나 절일제 같은 비정규 시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낱짜별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문신 課製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과시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고, 과거의 문화사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 과시 자료로서 『승정원일기』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과거 시험 연구가 주로 과문집, 참고서, 방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연구 경향을 확장하여 『승정원일기』, 개인 문집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정규 과거 시험 이외에도 유생이나 문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 시험의 실상 복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과거와 관련된 사건, 현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연차별로 과거 문제 및 문체·수험결과물·수험 참고서의 목록 조사와 DB 구축을 진행하고,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⑤7~⑥0이 DB 구축 과정에 기여한 논문이라면, ⑥1은 DB를 활용한 분석·평가·새로운 연구 수행에 관련된 논문이다.

⑤7 유인태, 「디지털 한문학의 가능성과 그 실현에 관한 모색」(『동아한학연구』 17, 2023.3.)

⑤8 이길환·변은미·유인태, 「조선시대 科試 자료와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한국한문학연구』 92, 2024.12.)

⑤9 김홍구, 「필사본 원문 입력 방식에 대한 종합적 고찰: 과시 자료를

중심으로」(『동아한학연구』 20, 2025.3.)

㉞ 변은미 · 이길환, 「XML을 활용한 科文選集의 디지털화 방안 연구」(『동아한학연구』 20, 2025.3.)

㉟ 한승현 · 정태선 · 마효환 · 양원석, 「KLS Bench: Evaluating LLM Capabilities on Korean Literary Sinitic Texts in Historical Context」(Applied Sciences 16-2, No.953, 2026.1.)

특히 ㉟은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에서, SCIE 등재지 『Applied Sciences』에 게재함으로써 해외 학자들에게 본 연구의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저자원 역사 언어(low-resource historical languages) 이해와 처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조문과방목 등의 과거시험 문제 및 모범 답안을 활용한 KLS(Korean Literary Sinitic) 벤치마크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진이 진행했던 DB 구축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다시 점검하면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종합적 성과와 향후 과제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조선시대 과시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하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과거 답안의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역사적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기존의 한국한문학 연구가 주로 중국과의

수용 관계나 과거 제도의 연혁, 합격자 등용과 같은 제도사적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면, 본 연구는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 과시만의 독자적인 문체 양식을 체계화하여 한국한문학의 주체성을 부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과거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답안이 당대의 정치, 사회, 사상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제를 ‘선발 시스템’을 넘어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조선시대 지성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과시 연구의 기초 자료 구축과 연구 방법론을 마련한 선도적 성과이자, 대학과 기관별로 분산된 과시 자료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모델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선시대 과시 연구’ 1단계의 방대한 자료 수집과 DB 구축 성과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연구·자료·번역의 세 방면으로 전문성을 특화하여 총 21종의 총서를 발간하는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총서]를 통해 과문의 문화적 영향, 경학 시험인 사서의, 과문의 지성사적 의미, 한국 과문의 양식, 국왕과 신하의 응제·제술 등 세부 주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필사본 중 희소성과 실증성을 갖춘 선본 17종을 엄선하여 영인하고 해제를 붙인 [자료총서]를 학계에 제공함으로써 과시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다. [번역총서]는 과거 관련 법령이 수록된 법전, 중국 과거 문체 연구서, 그리고 조선 초기 전시 장원 대책 선집인 『동국장원책』 등을 정밀하게 역주함으로써 과시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대중적 저변을 동시에 확장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과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참여 연구원들은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연구’,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하여 학술 킬로쿼임,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60편에 달하는 학술논문 성과를 학계에 제출하여 과시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학술논문에서는 과시 참고서 분석을 통해 당시 유생들의 과거 공부의 실상을 밝혔고, 정책적·정치적 담론의 변화를 과문을 통해서 규명하였으며, 과거 시험이 붕당 간의 정쟁 도구로 활용된 정치사적 이면을 조명하였다. 또한 한·중 과거 답안인 경의문과 팔고문 비교를 통해 양국 과장의 사상적 개방성 차이를 도출했고, 과거제 폐지 이후 대한제국 기에서의 과거 시험 제도와 관련한 실상과 담론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이 도학적 이상주의와 현실적인 입신양명 사이에서 겪은 내면적 갈등을 과문 학습이라는 매개체로 조명하는 한편, 지방 교육의 실상과 代述 등의 부정행위를 목인하던 당대의 생생한 응시 문화를 다각도로 복원하였다. 한편으로는 과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 지평을 넓혔으며,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연구 성과를 제출하여 전통 한문학 연구를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으로 선도하고 전 세계에 그 우수한 성과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 주제를 심화하면서 조선시대 지성사·학술사·문화사·문학사의 전개를 보다 체계적이고도 역동적으로 해명하는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여 폭넓은 시야로 실상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거를 기반으로 하여 지성사와 학술사의 전모를 분명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의 학제 간 융합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법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과시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과거제

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 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과거 문화의 전반적인 실상을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과시 연구자와의 학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성과를 축적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정리되지 못했거나 누락되었던 과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집성하여 자료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기존에 구축된 DB를 보강하여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자료총서] 작업 범위를 확장하여, 국내외 국공립 기관에 산재한 미공개·회귀 과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255종에 대한 전수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자료총서]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추가 선별하고 해제를 붙여 후속 간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고 과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원전 자료들을 정밀하게 역주하여 학계의 과시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동국장원책』 甲集에 이어, 乙集과 丙集의 역주 및 간행 작업을 후속 과제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료총서]로 간행된 자료, [자료총서]로 간행되지 않았지만 과시 연구에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별도로 선별하여 학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성과를 단절 없이 이어가고, 과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조선시대 여러 가지 사적 국면들을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한문학 및 한국학의 질적 향상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2020), 「事實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 김경(2021),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 김경(2021), 「조선후기 향촌사회 科詩 창작 一考 —『科賦抄』所在 「醉翁亭記」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 김경(2022), 「『於于野談』의 ‘科舉談’ 양상과 특징」, 『고전과해석』 38, 고전문화한문학연구학회.
- 김경(2023), 「『梅翁閑錄』所在 科舉談 研究」, 『동양고전연구』 91, 동양고전학회.
- 김경(2023), 「『雜記古談』의 科舉談 양상과 특징」, 『고전과해석』 41, 고전문화한문학연구학회.
- 김경(2024), 「조선후기 科舉談의 轉載와 變改—『東稗洛誦』所在 科舉談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54, 한국시가문화학회.
- 김경(2025), 「『溪西雜錄』所在 科舉談 研究」, 『Journal of Korean Culture』 68,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 김경(2025), 「『二旬錄』所在 科舉談의 양상과 특징」, 『어문논집』 103, 민족어문학회.
- 김경(2025), 「고려대 신암문고본 『東詩』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72, 근역한문학회.
- 김경·이진경(2020), 「諧謔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대동한문학』 64, 대동한문학회.
- 김경·김광년(2021), 「조선후기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 『동아한학연구』 1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김광년(2020),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 『臨軒功令』 研究」,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 김광년(2020), 「조선후기 科試 연구와 『承政院日記』의 활용」, 『동방한문학』 85, 동방한문학회.
- 김광년(2021), 「奎章閣의 1781년—內閣日曆을 통해 본 抄啓文臣 應製의 실상—」, 『동양고전연구』 85, 동양고전학회.
- 김광년(2022), 「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

회.

- 김광년(2022), 「조선 시대 怪異, 災變 관련 科文 研究」, 『고전과해석』 38,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 김광년(2023), 「국립중앙도서관 所藏 科試 資料의 현황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92, 동양고전학회.
- 김광년(2024), 「奎章閣 所藏 科試 資料의 現況과 그 特徵」, 『한국문화』 10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광년(2024), 「延世大學校 所藏 科策集『策海勾選』 研究」, 『Journal of Korean Culture』 50,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 김광년(2025), 「科試 以後: 大韓帝國期 科擧 復元論에 대한 考察」,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김기엽(2021), 「『嶠南賓興錄』의 판본과 御考 科賦 試券에 대한 小考」, 『동방한문학』 87, 동방한문학회.
- 김기엽(2023), 「조선시대 학자들의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 양상」, 『대동한문학』 74, 대동한문학회.
- 김홍구(2025), 「필사본 원문 입력 방식에 대한 종합적 고찰: 과시 자료를 중심으로」,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노요한 외 3인(2022),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개」, 『한문학논집』 62, 근역한문학회.
- 노요한(2023),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 『壯策粹』에 나타난 대책문의 수사법에 대하여」, 『동아한학연구』 17,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박선이(2020), 「조선 후기 科文選集『儷林』에 대하여: 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0,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 박선이(2020), 「조선 후기 科文의 실체에 관한 일고찰: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 박선이(2021), 「肅宗·英祖代 科擧制와 科文의 推移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83, 한국한문학회.
- 박선이(2021), 「조선 후기 策題와 출제 경향에 관한 일고찰 —肅宗~正祖 시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93, 한민족어문학회.
- 박선이(2022),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表東人』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62, 근역한문학회.

- 박선이(2023), 「肅宗代 科文의 변화 양상과 당대 문인의 시각」, 『고전과해석』 40,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 박선이(2025), 「17~18세기 科擧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 배경에 대하여」,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박선이(2025), 「正祖代 抄啓文臣 製述과 그 의미에 대하여—試題 출제 경향과 문체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52, 우리한문학회.
- 변은미·이길환(2025), 「XML을 활용한 科文選集의 디지털화 방안 연구」,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심경호(2020),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 심경호(2021), 「朝鮮의 科擧와 文字生活」, 『동아한학연구』 1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유인태(2023), 「디지털 한문학의 가능성과 그 실현에 관한 모색」, 『동아한학연구』 17,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윤선영(2020), 「조선후기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五經義 시제 소고」, 『남명학연구』 67, 경남문화원.
- 윤선영(2021), 「한·중 科擧 經義文 비교」, 『한국한문학연구』 83, 한국한문학회.
- 윤선영(2022), 「조선후기 과거 落幅紙의 재 활용 문화」, 『민족문화연구』 9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윤선영(2022), 「조선후기 과거 五經義 과목의 답안 구성과 특징」, 『고전과해석』 38,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 윤선영(2023), 「四書五經의 經文을 주제로 한 科詩 및 科賦 시제에 관한 연구」, 『동방한문학』 96, 동방한문학회.
- 윤선영(2023), 「조선후기 생원시 응시자들의 과목 선택과 등제 양상」, 『한국문화』 10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윤선영(2024), 「科擧 落幅紙의 着服과 流通 實態를 통해 본조선후기 생활상」, 『한국한문학연구』 90, 한국한문학회.
- 윤선영(2024), 「조선후기 과거 箴銘頌 시제 연구—경문에서 인용한 시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96, 동양고전학회.
- 윤선영(2025), 「과거제 폐지 이후의 경학 시험과 출제 문제 고찰: 『經義問對』 수록 시제를 중심으로」,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윤선영(2025), 「조선후기 출제 경학 관련 御題를 통해 본 국왕들의 관심사」, 『경

- 학』 10, 한국경학학회.
- 이길환·변은미·유인태(2024), 「조선시대 科試 자료와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한국한문학연구』 92, 한국한문학회.
- 이미진(2022), 「雪峯 姜栢年の 表를 통해 본 조선시대 月課 창작의 일단면」, 『고전과 해석』 36, 고전문학한문학회.
- 이미진(2023), 「『記聞叢話』에 나타난 과거담 양상과 특징」, 『동아한학연구』 17,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이미진(2023), 「科表 참고서 『表式』 연구—고려대 신암문고본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7, 한국한문고전학회.
- 이미진(2024),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을 통해 본 科試 문체로서의 銘」, 『고전과 해석』 42, 고전문학한문학회.
- 이미진(2025), 「조선시대 科試 문체 箴의 현황과 특징」, 『어문연구』 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상욱(2020), 「조선후기 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策型』과 『駢儷華藻』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2, 열상고전연구회.
- 이상욱(2022), 「三淵 金昌翁 科詩 고찰—17세기 조선 科詩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 이상욱(2022), 「조선후기 科賦 참고서와 공부 방법」, 『대동한문학』 72, 대동한문학회.
- 이상욱(2023), 「방각본 『史要聚選』 내용 연구」, 『어문연구』 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상욱(2024), 「조선 科詩와 古詩의 관계 고찰」, 『어문연구』 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상욱(2025), 「숙종대 과문 변화 양상 고찰 (1)—시권 모음 과문집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85, 열상고전연구회.
- 이창희(2022), 「科體詩 翻譯에 대한 체제 모색과 제언」, 『한문학논집』 62, 근역한문학회.
- 한승현·양원석·Xiaohan Ma·정태선(2026), “KLS Bench: Evaluating LLM Capabilities on Korean Literary Sinitic Texts in Historical Context”, *Applied Sciences* 16-2, No.953.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the Joseon Dynasty’^{*}

Yang, Won-seok^{**} & Kang, Seong-kyu^{***} & Lee, Mi-jin^{****}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achievements of the research project “Construction of a Database of Material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the Joseon Dynasty’ and a Historical Study of Changes in Rhetorical Styles and Modes of Logical Construction,” supported by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Support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conducted in two phases from 2019 to 2022 and from 2022 to 2025. It also seeks to assess the significance of the project and to explore future research tasks.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hich tended to focus primarily on the institutional system and administra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our research team sought to overcome these constraints. In the first phase, we catalogued materials related to Joseon-period civil service examinations (gwasi, 科試) and constructed them into a database. In the second phase, while continuing to enhance the database, we published a total of twenty-one volumes in the Serie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specializing in three areas: research, source materials, and transl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2093644).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inographic Literatures at Korea University. / E-mail: yang1st@korea.ac.kr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BK21 Four R&E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E-mail: 4iya@korea.ac.kr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 E-mail: leemijin@korea.ac.kr

Through these efforts, we were able to identify diverse aspects of Jose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illuminate their scholarly significance.

The six volumes in the research series examine, from multiple perspectives, such topics as the cultural influence of examination writings, interpretations of the Four Books, the intellectual-historical significance of examination prose, the genres of Korean examination writing, and the literature of governance produced through royal examination responses and literary composition. The source-material series consists of ten facsimile volumes, for which eighteen rare and exemplary texts centered on the six genres of examination writings were carefully selected from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materials held by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and accompanied by detailed bibliographical introductions. This series provides a research infrastructure distinguished by both rarity and empirical value. The five volumes in the translation series offer meticulous annotated translations of legal codes related to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Chinese studies of examination literary styles, and *Dongguk jangwonchaek*, an anthology of top-ranking palace examination policy essay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ese translations expand both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the scholarly scope of research in this field.

The achievements of this research project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ystematize the distinctive stylistic forms of Jose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China, thereby highlighting the subjectivity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They also broaden the horizon for understanding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from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f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knowledge.” As future tasks, this article propose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comparative studie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s within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the continued discovery of

unpublished and rare civil service examination materials, the further enhancement of the database, and subsequent annotated translation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materials.

Key Words

Joseon dynasty, civil service examination, database, rhetorical style, mode of logical construction, intellectual history, examination writing

논문접수일: 2026.05.25. 심사완료일: 2026.06.11. 게재확정일: 2026.06.24.
--

과시(科試) 데이터셋 편찬에 관하여^{*}

변은미(제1저자)^{**}, 이길환(제1저자)^{***}, 유인태(교신저자)^{****}

-
1. 서론: 데이터 기반 과거(科擧) 연구 환경의 필요성
 2. 과시 데이터셋의 기술(description) 원칙 및 체계
 3. 과시 데이터셋의 학술적 의의와 활용 맥락
 4. 결론: 과거 연구의 심화를 기대하며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편찬한 과시(科試) 데이터셋의 기술(description) 원칙과 데이터 구조, 그리고 학술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종래의 과시 연구는 과거제도의 운영 양상이나 합격자의 인적 구성과 같은 외연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과시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시제나 답안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은 미진했다. 과시 데이터셋 편찬은 이러한 연구 지형상의 공백을 채우고 동시에 연구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작업이다. AI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 편찬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시험(Exam)·문제(Question)·답안(Answer)을 데이터셋의 중심축으로 삼아 14개의 클래스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644)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E-mail: di0567@korea.ac.kr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E-mail: chinichi95@naver.com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 E-mail: ryuintae@gmail.com

의미적으로 연결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했다. 식별자(id)의 값(value)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위계·단계·문제·장소 등 다층적 정보를 코드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질의 가능성 및 연구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으며, 자료 가용 범위를 충실히 검토하여 방목류, 과문선집류, 개인문집류, 역사기록류, 시권·증서류, 필기류 등 여섯 갈래의 자료군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편찬한 초기 버전(ver 0.1)의 데이터셋은 노드(node) 1만 8천여 건, 엣지(edge) 2만 2천여 건, 총 4만여 건의 규모를 갖추었다. 해당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Semantic Data Archive) 구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에, 과시 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탐색이 가능하고, 기구축된 유관 디지털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과시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학술 환경이 곧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과시, 科試, 조선시대, 과시 데이터셋, 시맨틱 데이터, 데이터 모델, 디지털 인문학

1. 서론: 데이터 기반 과거(科擧) 연구 환경의 필요성

전근대기에 시행된 과거(科擧) 또는 과시(科試)는 인재 선발을 위해 시행된 제도적 장치이다. 응시자의 현실감각이 얼마나 탁월하고 예리한지 학문과 문예를 매개로 검증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과시의 문제와 답안은 당대의 학술과 사상, 그리고 문예적 역량이 집약된 산물이라 하겠다. 실제 출제된 문제를 보면, 학문적·문예적 역량에 대한 요구가 당시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얹혀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도 당대 지식인의 현실 인식이 학문적 소양 및 사상적 토대 그리고 문예적 지향 속에 담겨 있어, 과시의 문제와 답안은 사상사·문학사적 검토와 조망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

한 당위적 요청과 별개로 그동안의 과시 연구는 과거제도의 운영 방식이나 급제자의 성분을 분석하는 과시의 외연적 측면에 치중해 왔으며, 정작 시제(試題)에 내포된 함의나 답안의 문체적 특징 및 수사 전략을 검토·분석하고자 하는 접근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 지형의 공백은 과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환경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정보와 관련된 대표적 데이터베이스 자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¹⁾이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방목(榜目)에 담긴 합격자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충실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관 정보가 필요한 학술 분야에서 필수적 자원으로 기능해 왔다. 다만 방목을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이기에 합격자 명단을 매개한 인물 정보 조회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지만, 문제나 답안과 같이 구체적인 시험 내용을 검토·탐색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과시(科試) 데이터셋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데이터 편찬 결과물이라 하겠다.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과시연구센터에서 편찬한 과시 데이터셋은 과거와 관련하여 작성·활용·유통된 여러 자료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 차원에서 재정의함으로써 과거의 수사문체와 논리구축 방식의 변천을 분석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²⁾ 특히 시제의 출제 방식과 응시자

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URL: <http://people.aks.ac.kr>

2) 과시 데이터셋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6년의 연구기간(2019.09.01. ~ 2025.08.31.)에 걸쳐 지속적으로 심화·확장해 온 연구 결과물이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소속 심경호, 윤재민, 양원석 교수가 차례로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그 역할을 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무의 경우 1단계 연구 기간에는 김경, 김광년, 한승현이, 2단계 연구 기간에는 유인태, 이길환, 변은미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외에 공동연구원으로 강성규, 김기엽, 김홍구, 노요한, 박선이, 윤선영, 이미진, 연구보조원으로 강다형, 김민구, 김동현, 김동협, 김세연, 김영건, 김영인, 남윤지, 송

의 답안에 내재한 논리 전개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시제의 내용적 함의와 답안의 문예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초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업 이면에 자리한 일관된 문제 의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향을 바탕으로 과시 데이터셋은 시험-문제-답안을 데이터셋의 중심축으로 하여 작성자·시기·장소·출처 등의 유관 정보를 의미 기반의 관계망으로 연결하고 왕조·시험·문제·답안·문헌·소재·인물 등 다양한 차원에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간 곳곳에 분산된 수많은 자료를 직접 수집-대조해야 했던 연구 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단서이자, 다종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다각적 탐색과 분석적 발견이 가능한 새로운 연구 환경의 기초 자원으로서, 해당 데이터셋의 학술적 가치는 충분하다 하겠다.³⁾

본 논문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편찬된 과시 데이터셋의 규모와 형식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장에서는 과시 데이터셋의 편찬 원리와 체계를, 3장에서는 과시 데이터셋이 지닌 학술적 의의를, 4장에서는 실질적 성과 및 향후 보완·확장 과제를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채은, 이창희, 홍심두 등 다수의 참여 연구원이 기초 자료 정리와 데이터 입력, 검수 작업에 참여했다.

3) 물론 과문육체(科文六體) 등 개별 과문 장르의 문체적 특성이나 답안 내부의 상세한 문맥 구조를 온전히 온톨로지화하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이를 위한 필수 선행 작업으로서 과거시험에 대한 제도적 외연과 시제 입력에 일차적으로 집중했다.

2. 과시 데이터셋의 기술(description) 원칙 및 체계

과시 데이터셋의 기초 자원인 과시 자료는 조선시대 과거를 중심으로 산출-축적된 제반 정보를 포괄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이 있었으며, 어떤 출처를 기반으로 무슨 문제가 출제되었고, 누가 응시하여 어떠한 답안을 제출했으며, 그 결과 합격 여부와 등제 및 성적은 어떠했는지, 그러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출처로서 문헌은 무엇인지 등 과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체의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어느 한 자료군에 일목요연하게 집적되어 전하지 않는다. 시험 실행에 관한 기본 정보는 주로 방목에 수록되어 있으나, 시제와 답안은 별도의 시권이나 과문선집, 그리고 작성자의 개인문집 등에 산재해 있으며, 시험 시행을 둘러싼 제도적-공식적 정황은 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관찬 사료에, 과거시험과 관련된 인물 중심의 서사적 맥락은 야담·필기류 등에 전승되어 전해진다.⁴⁾

이에 과시 데이터셋은 특정 자료군에 국한하여 개념적 설계를 치밀화하는 방향을 취하기보다는 시험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유관 자료들을 연결하고 데이터 간 의미적 관계를 정의하는 데 초점을 둔 데이터 설계를 근거로 했다.⁵⁾ 본 장에서는 과시 데이터셋의 기술(description) 원칙, 주요 도메인(Domain)과 문헌적 리소스(Resource), 데이터의 질적 구

4) 물론 야담집에 수록된 과거담의 경우 허구적인 기록이 많은바 방목류 및 역사기록류와의 교차 검증 속에서 작품 속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적절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순록(二旬錄)』의 민재인(閔齊仁, 1493-1549) 일화만 보더라도 서사 속 후정시(後庭試) 응시 기록이 실제 『계유방목(癸酉榜目)』의 식년시 입격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일화에 대한 분석은 '김경(2025), 『『二旬錄』所在 科擧談의 양상과 특징』, 『어문논집』 103, 민족어문학회, 73-100면'에 자세히 다룬다.

5) 과시 데이터셋의 설계 및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이길환·변은미·유인태(2024), 「조선시대 科試 자료와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한국한문학회연구』 92, 한국한문학회, 66-104면'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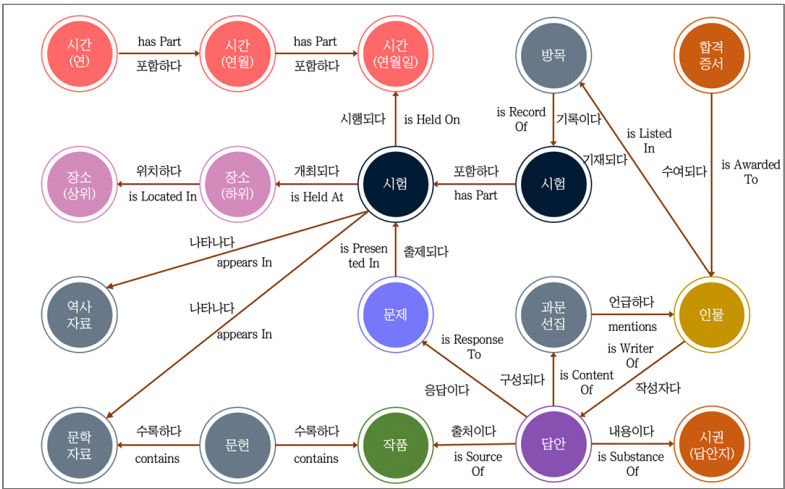
조 및 양적 규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1 과시 자료의 특징 및 데이터 기술 원칙

과시 자료의 본질적 특징은 정보 단위 각각의 내부 구조가 다층적이면서 여러 단위가 시험이라는 단일 사건을 중심으로 결합된다는 점에 있다. '시험' 단위 하나만 살펴봐도 그 내부 분류는 여러 축이 동시에 교차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험은 우선 종류에 따라 식년시·증광시·별시·알성시·친시·정시 등으로 나뉘며 위계에 따라 소과와 대과로 대별되는데, 두 축은 서로 교차한다. 소과는 식년시와 증광시 두 종류로 시행되고 그 안에서 다시 생원시와 진사시로 분기되며, 대과는 식년시, 증광시 외에도 별시, 알성시, 친시, 정시 등 한층 다양한 종류로 시행되어 분류 체계가 더욱 복잡하다. 거기에 더해 동일한 시험 안에서도 초시·복시·전시 등 단계가 구분되고 각 단계는 다시 초장·중장·종장으로 세분되어 장마다 출제 문체를 달리한다. 여기에 향시·한성시 및 1소·2소 등의 장소 구분도 더해진다. 하나의 시험은 그것이 시행된 시간, 출제된 문제, 제출된 답안, 응시·합격한 인물, 설행된 장소 등 여러 정보 단위와 결합하며, 결합하는 각 단위 역시 시험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복합적 분류 체계를 지닌다.

요컨대 과시 자료는 균질한 정보 집합이 아니라 개별 정보 단위가 내부적으로 다층 분기하면서 동시에 시험이라는 단일 사건을 중심으로 서로 결합하는 정보들의 집합이다. 과시 데이터셋의 설계는 바로 이러한 다층성과 결합성을 함께 담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험(Exam) 클래스를 중심으로 시간(Time)·문제(Question)·장소(Place)·답안(Answer)·인물(Person)·시권(Sigwon)·개인문집

(CollectionA) · 과문선집(CollectionB) 등 총 14건의 클래스가 의미적 관계를 맺는 형식으로 디자인했다. 각 클래스는 독립적인 정보 단위 이면서 시험 클래스를 매개로 상호 연결되며, 특정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누가 어떤 답안을 작성했는지, 그 시험이 언제 어디서 시행되었는지에 이르는 일련의 맥락 정보를 유기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1] 과시 데이터셋 온톨로지의 도상

14개 클래스 가운데 시험, 문제, 답안 세 가지 주요 클래스는 식별자(id)의 값(value)을 구성하는 논리를 공유한다. 과시 데이터셋의 식별 값은 단순히 개체(entity, instance)를 구분하기 위한 일련번호가 아니라, 해당 개체가 속한 시험의 종류 · 단계 · 문체 · 장소 등 다층적 정보를 코드화하여 담아내는 의미 단위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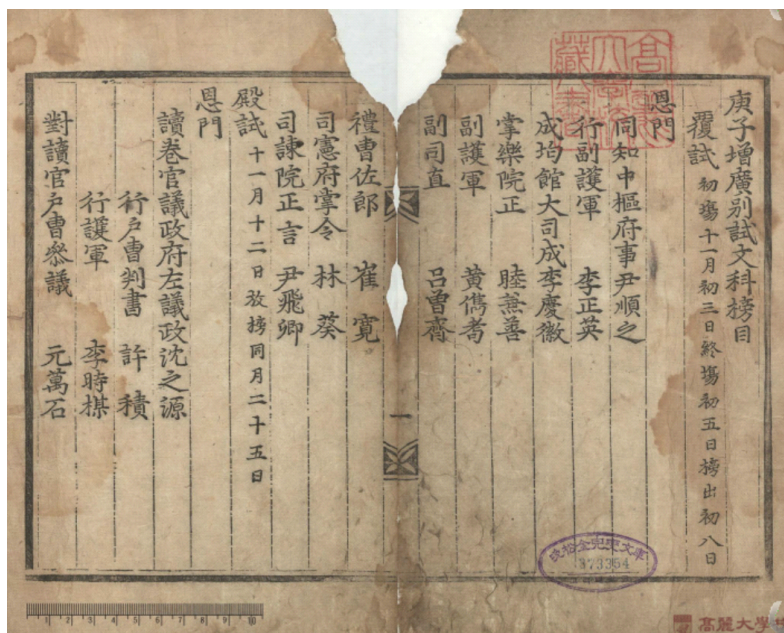
Class	Example
시험 클래스 Exam Class	E + 일시 + 대소구분(B-S) + [생원 Scripture/진사 Literature] + 초/복/전(F-S-T) + 초/중/종(1-2-3) + [Suffix] E16780212BF3 [1678년 중광시 문과 초시 종장] E17170801BTA[1717년 함경도별시 문과 전시]
문제 클래스 Question Class	Q + 일시 + 시험분류 + [생/진] + 초/복/전 + 초/중/종 + 장소(1-2) + 문제순서 + 응시구분(○:Provincial-Unknown) Q14610124BT [1461년 별시 문과 전시 문제] Q16790812SSF322 [1679년 식년 생원시 초시 2소 문제]
답안 클래스 Answer Class	A + 일시 + 시험분류 + [생/진] + 초/복/전 + 초/중/종/미(1-2-3-0) + 장소(1-2-0) + 문제순서 + 응시구분 + [Suffix] A16750214SSF302 [1675년 식년 생원시 초시 ?소 답안] A16991021BTa [1699년 중광 문과 전시 답안]

[그림2] 시험, 문제, 답안 클래스의 식별값 구성 논리

식별자의 값에는 정기·비정기 시험, 시험 종류, 시험 단계, 문체 구분, 장소 구분 등 시험을 둘러싼 다층적 정보를 포괄하기 위한 논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 논리는 과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주요 클래스의 식별값 체계를 관통하는 원칙으로 기능한다.

과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모든 데이터는 1차 자료에 근거하여 편찬되었다. 시험에 관한 기본 정보는 해당 시험의 방목을 근거로 했으며, 시제와 답안은 시권, 과문선집, 개인문집 등 원전을 직접 참조했다. 방목과 실록, 승정원일기 등 여타 사료가 시행일이나 합격자 정보 등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 방목의 기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방목이 해당 시험의 공식적 산출물로서 시험 단위의 정합성을 가장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으로 방목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자료의 정황에 따라 교차검토를 거쳐 데이터를 확정된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시험 일자의 경우 방목에서 제시하는 날짜가 시험의 실제 시행일이 아니라 출방일(出榜日) 또는 방방일(放榜日)을 기준으로 기재된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예를 들어 1540년 별시 문과 전시의 경우 실록에는 10월 1일에 시험 설행 기사가, 3일에 출방 기사가 각각 실려 있는데, 방목의 일자는 3일로 기재되어 있다. 방목의 일자가 출방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방목과 여타 사료의 기록을 교차 검토한 뒤 시험 일자를 확정했다.⁶⁾ 출제 문체의 경우에도 소과의 경우 방목에 부(賦), 시(詩), 의(疑), 의(義) 순으로 기재되는 것이 전형이나, 일부 방목에서는 시, 부, 그리고 의(義), 의(疑)의 순서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 간 차이를 임의로 정정하지 않고 원자료의 기록을 그대로 반영하여 데이터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림3] 복시 시행 일자가 확인되는
『경자증광별시문과방목(庚子增廣別試文科榜目)』
[고려대 만송 B8 A2 1660]

- 6) 시험 일자가 방목과 실록 등에서 불일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자가 앞선 기록을 따랐다. 한 시험의 방목들 사이에서 일자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를 제외 한 뒤 다수 기록 또는 가장 이른 일자를 채택하되, 일자 차이의 폭과 정황을 함께 고려하였다. 단회방목(單回榜目)이 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했다.

그리고 데이터 포섭 범위의 경우 방목을 기본 축으로 삼되,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결정하였다. 소과와 대과의 방목은 모두 시험 최종 단계의 정보만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소과의 방목에는 복시의 정보가, 대과의 방목에는 전시의 정보가 주로 기재된다. 과시 데이터셋 편찬은 이러한 자료의 근본적 조건을 토대로 시험 위계에 따라 포섭 양상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소과의 경우 비교적 정형화된 운영 양상에 근거하여 방목에 직접 기재된 복시 단계뿐 아니라 초시 단계의 데이터까지 함께 생성하였다. 반면 대과는 방목이 수록한 바에 따라 전시 단계의 데이터만을 생성하였으며, 시권, 과문선집, 개인문집 등 여타 자료를 통해 초시, 복시 단계를 정보를 재구할 수 있거나 [그림 3]과 같이 단회방목(單回榜目)이 남아 있어 이전 단계의 시험 정보가 부수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를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과는 단계별 정보가 균질하게 편찬되는 반면, 대과는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시험마다 불균질하게 편찬되는 양상을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방목 자체가 간행되지 않은 시험은 시범 구축 단계(ver 0.1)의 데이터셋 편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황柑제(黃柑製), 인일제(人日製), 칠석제(七夕製) 등의 절일제(節日製)나 초계문신(抄啓文臣)을 대상으로 시행된 시험 등은 별도의 방목이 작성되지 않은 만큼 본 단계의 데이터셋 편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후속 버전의 데이터셋에서는 이들 자료를 정리한 결과 정보를 본격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대상 자료의 발굴-정리가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데이터셋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운영 방식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 과거의 제도사적 변화 또한 데이터에 반영하였다. 예컨대 진사시가 설행되지 않았던 조선 초기의 경

우 실록 등 유관 자료를 통해 시험 운영 양상을 확인한 뒤 실제 실행된 생원시에 한하여 데이터를 생성했다. 개별 시험에 부과된 문체 정보 역시 법전에 규정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시험의 실제 기록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생성했다. 이상의 자료 중심 데이터 편찬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과시 데이터셋이 시험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집적한 저장소(storage)에 머물지 않고, 실증적 분석이 가능한 하나의 연구 환경(environment)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2 데이터셋의 주요 도메인과 리소스

상술한 데이터 편찬 원칙을 바탕으로 과시 데이터셋이 어떤 정보 영역을 포함하고 어떠한 자료군에 기초하여 편찬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관련해서 아래의 그림은 과시 데이터 편찬을 위해 기본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은 정보 영역, 곧 과시 자료의 주요 도메인을 시각화한 것으로, 과시 데이터셋 편찬이 지향하는 정보의 외연을 보여준다.



[그림 4] 과시 데이터셋의 주요 도메인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과시 관련 정보는 시험·시간·장소·인물·문제·답안 등 하나의 사건(Event)으로서 시험의 시행에 관한 것을 기초 토대로 하여 제도·용어·법령집·문체 등 시험을 규율한 제도와 방목·시권·개인문집·과문선집·관찬사료·필기·간찰 등 시험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고 유통된 자료, 자료의 위치와 참조 맥락에 이르기까지 약 20개의 영역에 걸쳐 흩어져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과시 데이터셋은 이 광범위한 도메인 가운데 자료의 골격을 이루고 분석의 근거로 기능하는 핵심 정보를 선별하여 ‘시험’ 정보를 중심으로 14개의 클래스를 설계하고 데이터 간의 의미적 관계를 정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찬되었다. 이는 과시 자료의 전모를 포괄하기 위한 핵심 골격을 우선 구축한 것으로, 향후 연구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과시 데이터셋의 편찬 과정에서 활용된 주요 자료는 방목류, 과문선집류, 개인문집류, 역사기록류, 시권·증서류, 필기류 총 6가지이다.



[그림5] 과시 데이터셋의 주요 리소스

방목류는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부로서 합격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험 일자, 시험 문제, 시권, 시험 장소, 방방 일자 등 시험 단위의

골격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시 데이터셋의 핵심 정보를 재구하기 위한 주요 자원에 해당한다.

과문선집류와 개인문집류, 시권·증서류는 시제·답안 정보를 보완하는 핵심 자원이다. 초시 시행 정보나 응시자의 성적, 불합격자의 답안 등 방목류와 같은 공식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제반 정보를 보충하는 데 활용되었다. 특히 과문선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제·답안 정보에 더해 인물, 성적, 장소, 시관, 합격자 정보 등이 함께 부기된 경우가 많아 유용한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다만 세 자료군은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자료군의 특성에 맞게 단계적·선별적 접근을 취했다. 과문선집류의 경우 우선 국공립기관 소장 주요 자료를 검토하고 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려(科麗)』(국립 古朝26-15) 제공 정보들을 데이터셋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고려대학교 소장 주요 과문선집 15종을 문체별로 선별하여 텍스트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셋에 반영했다. 시권류의 경우 <한국고문서자료관>⁷⁾에서 제공하는 시권 가운데 시험 정보, 인물 정보 등 주요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대상 자원에 포함했다. 개인문집류의 경우 『한국문집총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입력된 시제 중심의 검색 및 과거시험 관련 주요 키워드를 생성해 전수 검토를 진행했다.⁸⁾

7) <한국고문서자료관> URL: <https://archive.aks.ac.kr>

8) 검토에 활용한 주요 키워드는 개인문집에 과시 자료가 수록되는 양상을 고려하여 시험 종류, 성적, 기타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시험 종류는 시험의 명칭·단계·장소를, 성적은 합격 등급과 장원 관련 표현을, 기타는 앞의 두 범주에 들지 않는 관련 용어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① 시험 종류: 式年·謁聖·增廣(科)·別試(科)·庭試·監試(科)·初試·覆試·會試·東堂(初試)·漢城試·司馬(試)·重試·進士試·生員試, ■科·■所. ② 성적: 甲科·乙科·丙科, 三上·三中·三下·三之(下), 二上·二中·二下, 上之(上·下), 亞元, 狀元·壯元, 魁

야담·필기류는 관찬 사료 중심의 공식 기록에서 포착되지 않는 일화·관행·서사를 담고 있는 자료군이다. 응시자의 일상적 경험, 시험장의 풍경, 시관과 응시자 사이의 일화, 합격과 낙방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등이 이 자료군에 산재해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서 ‘과거’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하는 데 잠재적 가치가 크다. 시범 구축 단계(ver 0.1)의 데이터셋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데이터의 규모와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포섭할 자료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2.3 데이터셋의 질적 구조와 양적 규모

본 절에서는 데이터 기술(description) 원칙과 주요 도메인·리소스 구성이 실제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해 질적·양적 두 가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질적 차원에서 시험·문제·답안 등 주요 클래스의 개체·속성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데이터의 구조에 관해 살펴보고, 양적 차원에서 클래스·관계별 데이터를 집계함으로써 그 규모를 제시한다. 과문선집을 반정형 데이터로 구축·가공한 맥락과 그 규모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1) 데이터의 질적 구조

시맨틱 데이터 체계로서 과시 데이터를 구성하는 클래스(Class)는 ‘시험’을 중심축으로 여타 클래스 사이의 의미적 연계가 이루어지며, 각 클래스는 독립된 정보 단위로서 고유한 속성 구조와 식별값 논리를 지닌다. 개별 클래스의 속성은 개체별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는 동시에 연구

(擢魁·居魁). ③ 기타: 入格, 科體, 殿策(執策), 春塘臺.

에서의 활용과 관리 또한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아래는 과시 데이터셋의 핵심 클래스인 시험, 문제, 답안의 구조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 시험(Exam) 클래스

시험 클래스는 과시 데이터셋의 중심 매개체로서, 단일 시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체(instance)의 범주이다. 예를 들어 1849년 식년시 소과(E1849S1)와 같은 추상적 시험 단위와 그 하위의 1849년 식년 진사시 초시(E18480827SLF1), 1849년 식년 생원시 복시(E18490227SSS3) 등 단계별 시험 단위도 개체로 포함되며, 양자는 재귀적 결합 관계로 연결된다.

시험 클래스의 식별자(id)는 'E + 시험 연월일(8자리) + 위계(B/S) + 단계(F/S/T) + 장(1/2/3)'의 논리로 그 값이 정의되며,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이 논리에는 시험 일시, 위계, 단계 등의 정보가 코드화되어 있다. 예컨대 식별자가 'E18030906BF2'인 시험 개체의 경우 1803년 9월 6일에 시행된 식년시 대과(B) 초시(F) 중장(2)임을 알 수 있으며, 'E18070224SSS3'의 경우 1807년 2월 24일 식년시 소과(S) 생원시(S) 복시(S) 중장(3)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의 비균질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 처리 장치도 식별자의 논리 체계에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초·중·종장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전시의 경우 'E18040307BT'와 같이 마지막 자릿값이 생략되며, 동일한 종류의 시험이 한 해에 여러 차례 시행되어, 각 시험의 식별자가 같아질 경우 'E1776B6A, E1776B6B, E1776B6C'처럼 알파벳 접미사를 부가하여 구분했다. 또한 중시(重試)는 별시 등과 대거(對舉)로 동일한 날자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별자가 동일해지는 사례에 한하여

‘E16081225BRT’와 같이 중시에 별도의 마커(Retake)를 부여했다. 다만 일자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규칙만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여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시험 클래스는 식별자 외에도 소과/대과 위계, 진사/생원 여부, 시험 종류의 유개념, 시험 단계, 세부 단계, 윤달 여부 등을 속성으로 지닌다. 이는 검색 및 탐색 그리고 집계가 가능한 여러 정보를 데이터의 속성으로 안배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연구의 효용성과 질의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 문제(Question) 클래스

문제 클래스는 시험에서 출제된 단일한 시제(試題)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정보화한 개체의 범주이다. 특히 시제의 문제 정보와 전고 정보를 함께 갖추어 출제 양상과 그 기반을 아울러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 클래스의 식별자(id)는 ‘Q + 시험 연월일(8자리) + 위계(B/S) + 단계(F/S/T) + 장(1/2/3/0) + 소(1/2/0) + 문제 순서(1/2/3/4)’의 논리를 지닌다.

예컨대 ‘Q18030216SF111’은 1803년 2월 16일 증광시 소과 초시 초장 1소에서 출제된 첫 번째 문제를 가리킨다.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위치에는 ‘0’을 부여함으로써 식별자가 그 자체로 자료 가용성의 한계까지 드러내도록 디자인했다. 문제에 해당하는 속성은 대분류(category)와 소분류(category2) 두 층위로 구분되어 있어, 가령 오경의(五經義)의 경우 대분류에는 ‘의(義)’가 소분류에는 ‘역의(易義)’, ‘서의(書義)’ 등이 값으로 부여된다. 시제의 전문은 본문(contents) 속성에 그대로 입력하고, 해당 시제가 근거한 전고는 문헌명과 편명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속성에 담아냈다.

○ 답안(Answer) 클래스

답안 클래스는 응시자가 시제에 대해 작성한 구체적 답안을 정보화한 개체의 범주이다. 데이터 편찬 과정에서 문제 데이터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응하는 답안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었으며, 실제 답안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답안의 작성자와 그 본문을 속성값으로 부여했다. 한 시제에 복수의 답안이 확인될 경우 'A16340314BTa, A16340314BTb, A16340314BTc'와 같이 알파벳을 부가하여 구분했다. 그리고 소과의 경우 시권을 통해 비편(備篇)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편 여부를 별도의 속성값으로 기록하여 모든 답안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자 했다.

답안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문제 데이터에 대응하며 생성되는 개체이지만 작성자 정보와 성적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문제 클래스와 구별되며, 답안 클래스의 본문 정보를 통해 축약된 시제의 구체적 내용이나 출제 근거가 되는 문헌 등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용이 있다. 또한 과문선집, 개인문집, 시권 등 답안의 출처가 되는 문헌이 별도의 클래스로 존재하여 각 답안 클래스는 해당 문헌 클래스와의 연결을 매개로 개별 답안의 수록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험(Exam), 문제(Question), 답안(Answer) 세 클래스의 데이터 구조는 과시 데이터셋이 어떤 정보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 그 중심적인 양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데이터 디자인이 실제 데이터 편찬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로 실현되었는지는 아래 클래스별·관계별 집계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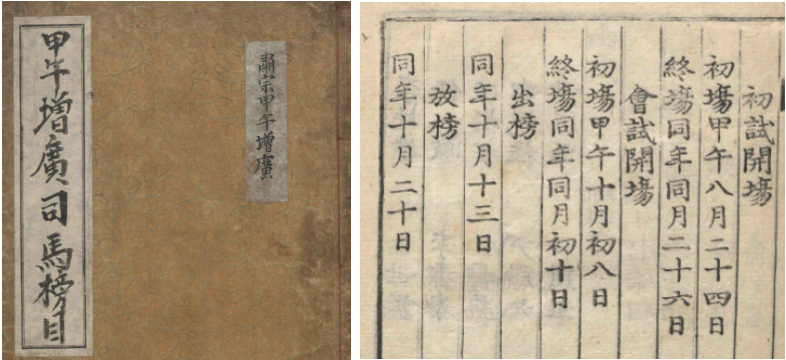
(2) 데이터의 양적 규모

〈표 1〉 과시 데이터셋(ver 0.1)의 데이터 규모 (2026.06.30. 기준)

클래스명	집계	관계명	집계
시험(Exam)	3,045건	Time - Time	2,554건
시간(Time)	3,034건	Exam - Time	3,065건
문제(Question)	4,820건	Exam - Place	1,618건
답안(Answer)	5,280건	Exam - Exam	2,058건
장소(Place)	82건	Place - Place	32건
인물(Person)	1,118건	Question - Exam	4,820건
개인문집(CollectionA)	102건	Answer - Question	5,280건
과문선집(CollectionB)	38건	Person - Answer	1,360건
시권(Sigwon)	301건	Answer - CollectionA	133건
• 클래스 데이터: 17,820건 • 관계 데이터: 22,227건 • 현재 총 데이터: 40,047건		Answer - CollectionB	961건
		Answer - Sigwon	346건

현재까지 입력한 과시 데이터셋(정형 데이터)의 규모는 총 40,047건이다. 생성된 노드 현황을 보면 답안(Answer) 클래스가 5,280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데이터셋 편찬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은 과문선집류·시권류·개인문집류 등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답안 정보의 보완·확장에 집중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답안 데이터는 전시 합격자의 답안 위주로 제공되어 온 기존의 과거 관련 데이터와는 다르게, 초시·복시에 해당하는 답안 및 초장·중장·종장 등 시험 내 단계별 시제와 답안을 재구한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 단위의 향시 데이터까지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 합격자의 답안뿐만 아니라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의 답안까지 포괄함으로써, 과문(科文)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의 위상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험(Exam) 클래스의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시험 관련 정보와의 대조 작업을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 시스템 내 일부 시험정보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반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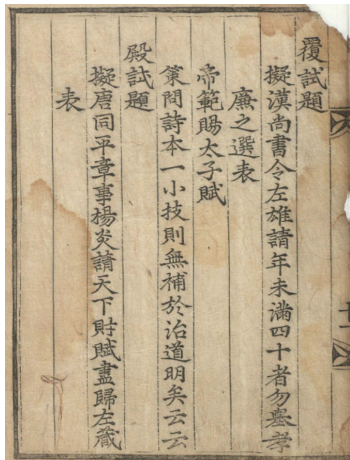
id	name	sortK	sortB	sortC	sortD	sortE	intercalary	resource	url	기타 사항
E171452	1714년 증광시 소과	소과		증광시						
E171406249L1	1714년 증광시 소과	소과	전사	증광시	복시	초장		사과장목		
E171406259S1	1714년 증광시 소과	소과	생원	증광시	복시	중장		사과장목		
E17141008S1	1714년 증광시 복시	소과	전사	증광시	복시	초장		사과장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데이터통합정보 시스템 기저 시험 일자 오류 확인 및 수정
E17141010S3	1714년 증광시 복시	소과	생원	증광시	복시	중장		사과장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데이터통합정보 시스템 기저 시험 일자 오류 확인 및 수정

[그림6] 『갑오증광사마방목(甲午增廣司馬榜目)』(古朝26-29-31)에 기재된 실제 시험 일자(위)와 과시 데이터셋의 시험 일자 오류 수정 사례(아래)

1714년에 시행된 증광시 소과를 예로 들면,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시스템>에는 해당 시험의 시험일이 ‘1714년 11월 12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방목에 기재된 실제 시험 일자와 차이가 있다. 사마방목에는 초시와 복시의 시험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복시의 경우 초장은 10월 8일, 종장은 10월 10일에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데이터셋은 방목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기 시스템의 시험일 기재가 오류임을 확인하고, 이를 방목에 제시된 실제 시험 일자에 따라 수정했다.

문제(Question) 클래스의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도 동일한 대조 프로

세스에서 시험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가 있다. 동 시스템에는 ‘擬唐同平章事楊炎請天下財賦盡歸左藏’이라는 표(表)가 1소의 시제로, ‘擬漢尚書令左雄請年未滿四十者勿舉孝廉之選’이라는 표, ‘帝範賜太子’라는 부(賦), ‘詩本一小技則無補於治道明矣云云’이라는 책문(策問)이 2소의 시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1소·2소의 장소 구분이 아니라 시험 단계를 구분한 것이다. 즉, 2소의 시제로 기재된 문제들은 실제로는 문과 복시 초장·종장의 시제이고, 1소의 시제로 기재된 문제는 전시의 시제이다. 과시 데이터셋은 이를 단계 정보로 바로잡아 반영하였다.



연도	현종(顯宗) 1
시험장	1660년 11월 12일
한국지명	1660년 11월 25일
시험종류	문과시(文擧試)
발의정보	발의명 : 장지증광별시문과방목(庚子增廣別試文科榜目) 표제명 : 擬唐文宗榜目 관주자 : 趙顯宗(趙顯宗) 卷之十一
1소 시제장	복시문(復試問) 의정부의정(議政府正議) 김지영(金之英) 청주(靑丘) 복시문(復試問) 의정부좌사(行營左司) 최익(崔益) 양천(襄川) 복시문(復試問) 의정부좌사(行營左司) 이시현(李時顯) 대목문(對讀問) 호조참의(戶曹參議) 원익(元翼) 영주(溇州) 대목문(對讀問) 호조판서(弘文館副提學) 유익(劉益) 기해(杞海) 대목문(對讀問) 호조판서(弘文館副提學) 이만(李萬) 전주(全州) 대목문(對讀問) 호조판서(弘文館副提學) 이경정(李正定) 전주(全州)
1소 시제단	표(表) 의정부의정(議政府正議) 김지영(金之英) 청주(靑丘)
2소 시제장	복시(復試) 문과(문과) 문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문순지(文順之) 해평(海平) 복시(復試) 문과(문과) 판부(判書) 이경정(李正定) 전주(全州) 복시(復試) 문과(문과) 판부(判書) 이경정(李正定) 전주(全州) 복시(復試) 문과(문과) 판부(判書) 이경정(李正定) 전주(全州) 복시(復試) 문과(문과) 판부(判書) 이경정(李正定) 전주(全州) 복시(復試) 문과(문과) 판부(判書) 이경정(李正定) 전주(全州) 복시(復試) 문과(문과) 판부(判書) 이경정(李正定) 전주(全州) 복시(復試) 문과(문과) 판부(判書) 이경정(李正定) 전주(全州)
2소 시제단	표(表) 의정부의정(議政府正議) 김지영(金之英) 청주(靑丘)

id	name	sortA	sortB	contents
Q16601103BS101	1660년_중과_문과_복시_초장_■소_문제	表		擬漢尚書令左雄請年未滿四十者勿舉孝廉之選
Q16601103BS102	1660년_중과_문과_복시_초장_■소_문제	賦		帝範賜太子
Q16601105BS301	1660년_중과_문과_복시_종장_■소_문제	策		詩本一小技則無補於治道明矣云云
Q16601112BT	1660년_중과_문과_전시_문제	表		擬唐同平章事楊炎請天下財賦盡歸左藏

[그림 7] 『경자증광별시문과방목(庚子增廣別試文科榜目)』(만승 B8 A2 1660)에 기재된 시제 및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시제 기록 화면(위)과 과시 데이터셋의 시제 오류 수정 사례(아래)

인물(Person) 클래스의 경우 현재는 답안(Answer)의 작성자인 경

우만 입력된 상태로, 인물과 답안(Person-Answer) 관계에 의거하여, 1,118건의 인물 노드가 답안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방목류의 합격자 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방목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편입하는 시점에 인물 데이터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물 클래스의 데이터는 추후 응시자와 시관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정밀화할 계획이다. 방목류의 경우 현 단계에서 시험·시제·장소 등 과시 데이터셋의 핵심 정보를 재구하기 위한 주요 리소스로 활용되어 과시 데이터셋의 구조적 뼈대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방목이 그 자체로 독립적 클래스로 정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향후 별도의 클래스로 편제할 예정이다. 한편 과시 데이터셋은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총 14개의 클래스를 설계 단위로 확정했으나 현 단계에서 방목·합격증서·역사자료 등 일부 클래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클래스는 향후 데이터 입력 작업의 진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상의 정형 데이터 편찬과 별개로 과문선집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정형 데이터인 XML 포맷으로 편찬되었다. 과문선집은 단일 자료 내에 시제·답안은 물론 인물·성적·장소·시관·합격자 정보 등이 함께 부기되어 있고 표·부·책문 등 과문의 장르마다 텍스트 구조가 달라 계층 구조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XML이 그 구조적·내용적 특성을 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XML 스키마는 이후 정형 데이터로의 변환을 염두에 두면서도 과문선집의 자료적 성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소장 과문선집 가운데 자료적 가치와 문체에 의거하여 현재 15종이 선별되었으며, 원문 이미지 확보와 원문 확정을 거쳐 XML 편찬까지 완료하였고, 그 결과물은 GitHub 계정⁹⁾을 통해 공

9) 깃허브 계정 URL: <https://github.com/KU-HJHM/Civil-Service-Examination>

유하고 있다.¹⁰⁾ 과문선집 XML 데이터는 표·부·책문 등 문체별 텍스트 구조를 정밀하게 담아냄으로써, 향후 문체별 데이터 모델링의 토대 자료로 기능할 것이며, 비점·주목·남목 정보 등의 마크업을 통해 데이터 고도화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3. 과시 데이터셋의 학술적 의의와 활용 맥락

상기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과시 데이터셋은 과거라는 사건(Event)을 중심으로 각종 유관 자료에 담긴 다채로운 정보와 풍부한 지식, 온톨로지(Ontology)를 통해 재현한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이다. 현재는 시험(Exam)·시간(Time)·장소(Place)·문제(Question)·답안(Answer)·시권(Sigwon)·인물(Person)·작품(Work)·문헌(CollectionA)·방목(Bangmok)·과문선집(CollectionB)·합격증서(Certificate) 등 과시의 기본 뼈대가 되는 개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의 고도화와 범용성을 고려해 클래스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¹¹⁾ 아울러 현 단계(ver 0.1)의 데이터셋은 방목류·역사기록류·과문선집류를 중심으로 기완비된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적재하고 있으나, 수집 및 편찬이 꾸준히 진행 중인 개인문집류·시권류 등의 자료 역시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DB-Project

10) 과문선집의 디지털화 방안과 구체적 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변은미·이길환 (2025), 「XML을 활용한 科文選集의 디지털화 방안 연구」,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153-183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1) 가령 개체 차원에서는 야담이나 일기와 같은 필기류 맥락의 자료, 일상적 정보를 담고 있는 간찰 등을 독립된 클래스로 추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속성 차원에서도 시험 클래스에는 '시행 국왕'이나 '시행 사유'와 같은 항목을, 문제 클래스에는 인용 문헌의 유형 분류[경·사·자·집·도·불], 시제의 주제 분류의 항목을, 인물 클래스에는 응시자·시권 등 참여 유형을 구분하는 속성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아날로그 연구 환경에서는 연구자가 원자료 이미지 및 텍스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지의 소장 기관을 확인·방문해야 했으며, 심지어 온라인 환경에서도 여러 국공립기관이 제공하는 플랫폼의 링크를 일일이 펼쳐놓고 입력해야 하는 등 자료 확보 단계부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편찬한 과시 데이터셋은 기존 과거 연구 대비 유관 자료 취합 및 기초 정제에 소요되는 연구 노동을 단축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뚜렷하겠다. 추후 과거 자료를 다룬 연구성과물 속에 정리되어 있는 과시 실행 정보나 문제·답안 정보 역시 원자료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해 과시 데이터셋의 추가 확장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시 데이터셋 편찬은 단순히 아날로그 환경의 원자료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문자열 검색 기능에 기초한 검색 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AI 환경에서 문맥 추론 및 탐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섬세하게 구조화함으로써, 기계가 과거 관련 정보를 의미 관계 속에서 파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과거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유관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과정 전반의 능률과 속도를 높이고 분석 시야와 단위를 확장하는 데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 나아가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과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폭넓게 참조·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 성격의 데이터 인프라로 기능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아래는 이러한 맥락에서 과시 데이터셋 편찬이 함의하는 몇 가지 학술적 의의와 기대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3.1 주제 중심 고전학 시맨틱 데이터 자원 확보

과시 데이터셋은, 개별 문헌 단위의 전산화(Digitization, Digitalization)나 단일 노드 정보의 축적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Event)’이라는 개체를 중심축으로 삼아 트리플 구조로 표현되는 ‘과시(科試)’ 중심의 시맨틱 데이터 체계를 지향한다. 이는 특정 리소스의 경계를 넘어 과거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내포하고 있는 직간접적 자료라면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식그래프 연결망 안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확장성이 뚜렷하다.

실제로 과시 데이터셋은 ①방목류, ②과문선집류, ③개인문집류, ④역사기록류, ⑤시권·증서류, ⑥필기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①과거시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합격자 명단, ②수험서에 수록된 응시자들의 모범 답안, ③문집에 실린 문인들의 실제 답안, ④과거시험의 실행과 방방 등의 기록을 다룬 관한 자료, ⑤실제 시험에 제출된 답안지와 합격 교지, ⑥과거시험 정보가 담긴 야담·일기·야사 등 특정 중심 주제를 구심으로 성격이 각기 다른 문헌[장르]들이 연결·통합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에 관한 풍성한 이야기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각종 종합편찬자료 및 지역기반자료 아카이브와 더불어 최근 <한의학고전DB>¹²⁾나 <외규장각 의궤 아카이브>¹³⁾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한국가사문학DB>¹⁴⁾나 <연행록DB>¹⁵⁾처럼 특정 장르 단위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 디지털 아카이

12) <한의학고전DB> URL: <https://www.medicclassics.kr>

13) <외규장각 의궤 아카이브> URL: <http://uigwe.museum.go.kr>

14) <한국가사문학DB> URL: <https://www.gasa.go.kr>

15) <연행록DB> URL: <https://kcer.skku.edu>

브들의 출현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과시 데이터셋의 경우 ‘과거(科擧)’라는 주제가 조선의 정치·사회·문화·예술 전반과 긴밀히 연결된 제도적 중추였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수용·연계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는 개성을 지닌다.

3.2 과거(科擧) 정보의 다각적 탐색 환경 조성

기존 과거 관련 연구는 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과거 및 취재” 디렉토리에 있는 방목류 명단 조회를 매개하여 이루어졌다. 해당 시스템은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함께 역대 급제자의 인적 정보를 왕조별·시험별로 분류·관리하여 한문학 및 조선시대사 분야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연구 자료로 기능해 왔다.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정에서도 역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된 국공립기관의 방목 이미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물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역시 방목류 기록을 바탕으로 시험 일시·장소·시관·시제 등의 주요 정보를 일정 부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물 조회를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에서 탐색 경로가 합격자 개인을 중심으로 제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해당 시스템이 과거시험에 합격한 특정 인물의 본관·자·호·가족관계 등 제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과시 데이터셋은 문학 연구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해당 인물이 치른 각 단계별 시험의 시제는 어떠한가?”, “그래서 해당 시제에 대한 제출 답안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즉 시험에서 생성된 과문(科文)에 대한 수집과 관리로 그 시야를 확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과시 데이터셋은 기존의 방목류 중심 구조에서 더 나아가 비교적 답안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개인문집류·과문선집류·시권류 등에 담긴 정보를 적극 반영했다.

이는 개별 방목 자료를 하나씩 열람하는 일방향적 조회 방식이 아니라, 14개 범주의 개체(Class), 122건의 속성(Property), 20건의 관계(Relation)를 기반으로 문제·문체·답안·인물·시험 종류·문헌·장소 등 과거를 구성하는 여러 정보에 입각한 입체적 지식 탐색 채널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유관 정보를 Triple(S-P-O) 구조로 연계한 시맨틱 데이터를 통해 다층적 질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수집 및 분석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기초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아래는 현재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연구 질문(Query)의 대표적 예시다.¹⁶⁾

01 소과와 대과를 합쳐 3번 이상 과거시험에 응시한 인물을 출력하기	05 문과 시험에서 개념어 '홍'의 빈출 횟수가 5회 이상인 榜 답안을 기준으로 해당 문제의 시제와 출전을 출력하기	09 특정 왕조 기간 동안 장림급제한 인물들을 정렬하고, 합격자 평균 연령도 출력하기
02 특정 인물이 응시한 시험과 문제 및 작성 답안, 합격 여부를 출력하기	06 개인문집류에서 발견되는 답안 중 당대 간행된 과문선집에도 수록된 사례들을 출력하기	10 각 지역별 합격자의 비율과 합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을 함께 출력하기 [왕조별·시행별]
03 특정 문헌을 출전으로 삼은 시험 문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출력하고, 정렬 및 빈도를 표시하기	07 식년시 소과에 출제된 문제 중 문제가 '풀'이면서 '황子'를 언급한 문제를 모두 출력하기	11 동일한 시험에 응시해 함께 합격한 인물들이 본관과 거주지 분포를 출력하기
04 대과 시제에서 출전 유형의 비중은 어떠한지와 최소 3회 이상 출제된 반영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기	08 대과를 기준으로 특정 시험의 전사가 이루어진 시소가 어디이며, 시소별 횟수를 순별로 출력하기	12 시제를 기준으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출제된 문제가 다른 경우를 출력하기

[그림8] 과시 데이터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 질의 예시

16) 다만 현 시점에서 과시 데이터셋이 조선시대 문과의 모든 종류와 절차별 시제 및 답안을 전수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위 질의 예시는 현 단계의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질의 가능한 맥락과 접근이 어떠한 형식과 심도를 갖는지를 참고하기 위한 예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과거의 실상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된 데이터셋의 규모를 상회하는 양적 확대가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 단계의 작업이 과거 시험의 골격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 온 만큼, 각 답안의 서술 구조와 논리 전개, 문체적 특징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고도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과시 데이터셋 편찬 작업이 현 단계(ver. 0.1)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확장되어야 할 장기 프로젝트임을 의미한다.

3.3 과거(科擧) 진행 과정의 구조적 복원과 검증

방목은 시험 종류·시행 장소·시험 일시·방방일·시관·합격자 및 가문 정보 등 과거의 실상을 재구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되는 핵심 문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문과 방목만 하더라도 최종 단계인 전시 중심의 정보[결과]만을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마방목 역시 각 세부 시험별 시제 정보 등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과시 데이터셋은 방목류가 지닌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구 초기부터 과문선집류, 개인문집류, 역사기록류, 시권·증서류 등을 주요 편찬 대상으로 고려했다. 합격 확정 후 순위를 매기는 전시 이전의 정보에 대한 관심 속에서 초시와 복시, 초장·중장·종장 등 이전 단계의 시험들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각 시소별로 어떤 시제와 답안이 오갔는지, 실제 설행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 과거의 구체적 실상을 최대한 재구해 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간 과정의 재구 과정에서는 기 구축된 DB 상의 사소한 오류를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동일한 시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여러 문헌의 기록이 상이할 경우 교차 검토를 통해 특정 자료의 오류 가능성까지 점검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정은 단순히 디지털 환경 및 데이터 처리 기술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군을 유기적으로 연결·비교함으로써 조선시대 과거의 실제 운영 양상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 토대 위에서 재구하고자 한 구체적 단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 관련 정보의 자료적·정보적 외연을 장기적으로 확장해 나갈 경우, 과문 연구의 심화는 물론 작가론 연구 및 해제 작업 과정에서 개별 문인들의 과거 응시 이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복원해 볼 수 있으며, 야담집(野談集)에 빈번히 등장하는 과거담의 사실·허구

여부를 역으로 검증해 보는 등 문학 분야에서만 하더라도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4 유관 디지털 자원과의 연계-확장 가능성

과시 데이터셋 편찬의 기반이 된 연구과제는 2019년 9월 1일에 시작해 2025년 8월 31일로 사업 기간을 마무리했으나, 데이터 편찬 및 적재 작업은 현재도 일부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여타 과거 관련 연구 수행 주체와의 협업, 과거 관련 디지털 자원을 구축·관리하고 있는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고려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한적실을 비롯한 국공립기관 및 주요 대학의 도서관만 하더라도 과문선집류·시권류 등의 자료가 상당수 소장되어 있으며, 다수의 고문헌 이미지 아카이브 역시 방대한 과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의 경우 단순 관리 번호나 크기 및 재질 등의 외형적·서지적 수준에만 정보의 심도가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연구 환경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다행히도 <디지털 장서각>¹⁷⁾과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¹⁸⁾의 경우 모두 주제분류 디렉토리에서 “정치/행정-과거”라는 항목이 있으며, 과거 관련 자료를 일정 수준 목록화하고 소해제 작업까지 수행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목록화 및 이미지화가 완료된 자원들의 경우 자료 접근성 차원에서 향후 과시 데이터셋이 연계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지닌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¹⁹⁾에서 제공하는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의 경우 개별 문인 답안 텍스트의 전산화 및 인물 해

17) <디지털 장서각> URL: <https://jsg.aks.ac.kr>

18)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URL: <http://kostma.korea.ac.kr>

19) <한국고전종합DB> URL: <https://db.itkc.or.kr>

제 작업이 높은 수준으로 완료된 바, 답안(Answer)·시험(Exam)·인물(Person) 클래스 등을 보완·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데이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시범 편찬 단계(ver 0.1)에서 102개의 문집을 중심으로 답안 정보 추출 및 실행 정보 복원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약 150건 내외의 과거 관련 주요 핵심어를 선정해 〈한국고전종합DB〉을 바탕으로 ‘키워드 검색 → 관련 기사 확보 → 상호 비교 검증 → 데이터 정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여러 기관에서 과거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26년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장서각 소장 과문선집(科文選集)의 문헌학적 검토와 디지털화 방안 연구」(2026)라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과거 연보(科擧年譜) DB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정리」(2023-2028)²⁰⁾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기관 단위에서 축적된 데이터 자원과 연구 성과가 향후 과시 데이터셋과 연계·통합될 경우, 학제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더욱 범용적인 과거 연구 인프라 구축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²¹⁾

20)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김영준(2025), 「조선시대 과거 연보(科擧年譜) DB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사업 소개와 DB구축 방법」, 『전북사학』 73, 전북사학회, 137-162면.’을 참고할 수 있다.

21) 이들 사업의 성과는 향후 과시 데이터셋을 확장·보강하는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다.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의 과거 연보 DB 구축 사업은 시험 범주의 확장과 과거제 운영의 연대기적 맥락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과시 데이터셋 편찬에서 재구한 시험 정보와의 교차 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과문선집 디지털화 사업은 시제·답안·과문선집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현 과시 데이터셋의 문제·답안·인물·과문선집 클래스 등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과거 연구의 심화를 기대하며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과시 데이터셋은 조선시대 과거와 관련한 다종다양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상황에 대응해 유관 자료를 수집·정제하고 이를 시맨틱 데이터로 가공함으로써, 과거 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2026년) 가을 데이터 아카이브 론칭을 통해 공개를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셋(ver. 0.1)은 조선시대 과거 자료를 구조화하기 위한 핵심 개체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모델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자료 기반의 실증적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데 근본적 목적을 둔 연구 결과물이다. 현재도 관련 분야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보완과 편찬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범 구축 단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자료의 확장과 데이터 고도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분기를 단위로 하여 데이터 정제 및 확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과시 데이터셋 편찬 내용의 실질적 성과 및 학술적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시 데이터셋은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군[①방목류·②과문선집류·③개인문집류·④역사기록류·⑤시권 및 증서류·⑥필기류]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시맨틱 데이터 모델 설계를 완료했다. ‘시험(Exam)’을 중심으로 시간·장소·문제·답안 등 14개 클래스(Class)를 정의하고 122건의 관련 속성을 디자인했다. 이를 통해 지식그래프를 매개한 AI 환경에서 기계가 효과적으로 학습·참조할 수 있는 과거(科擧) 지식의 구조적 뼈대를 완성했다.

둘째, 결과적으로 과시 데이터셋은 과거 관련 자료군의 목록화·촬

영·입력·가공·검수 등의 공정 과정을 거쳐 9가지 문과 시험 유형을 기준으로 노드(Node, Class) 데이터 17,820건, �지(Edge, Relationship) 데이터 22,227건 총 40,047건의 데이터와 과문선집류 15종의 XML 데이터로 편찬되었다. 특히 전시 합격자에 편중되었던 기존 자료의 한계를 넘어 초시·복시의 시제와 향시의 답안 등까지 포괄함으로써, 기존 방목 중심 연구 환경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과문 자료의 외연을 실질적으로 확장했다.

셋째, 사건(Event)을 중심축으로 삼는 주제 중심의 고전학 시맨틱 데이터셋을 편찬했다는 사실이다. 개별 문헌 이미지의 디지털화나 방목 중심의 단선적 정보 누적에서 벗어나 '과거'라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종다양한 자료와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장르의 문헌에 담긴 주요한 정보를 지식그래프 체제로 유연하게 포괄했으며,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조선왕조실록DB〉, 〈한국고문서자료관〉, 〈e뮤지엄²²⁾〉 등의 아카이브와 향후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증명했다.

넷째, 과시 데이터셋은 기존 방목류 중심의 편중된 검색 환경을 넘어 과거 과정에서 제출된 과문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다각적 탐색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개인문집류·과문선집류 등 답안 중심 자료를 포괄함으로써 단순 합격자 조회를 넘어 특정 시제에 대한 실제 답안과 문체 양상까지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문제·문체·답안·인물·장소·왕조 등 다양한 경로의 탐색과 여러 세부 조건이 중첩되는 복합적 질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시야를 넓히고 자료 수집 및 탐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적·물리적 비용을

22) 〈e뮤지엄〉 URL: <https://www.emuseum.go.kr>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섯째, 문과의 경우 최종 결과만을 수록한 방목류의 한계를 과문선 집류와 개인문집류 등으로 보완하고자 했으며, 전시(殿試)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초시·복시·초장·중장·종장 등의 중간 진행 과정을 복원함으로써, 설행 정보와 시제 및 답안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재구해냈다. 이 과정에서 관찬 사료 및 기구축 DB의 정보 오류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료의 디지털화(Digitization, Digitalization)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과거 관련 자료 제공 아카이브들 역시 과시 데이터셋을 통해 연계·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여섯째, 범용성·확장성 높은 데이터 모델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유관 디지털 자원과의 연계 및 확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 역시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업의 중요한 의의라 하겠다. 과시 데이터셋의 데이터 구조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문집 중심의 답안 텍스트 자원을 비롯해 〈디지털 장서각〉,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등에서 축적된 과거 관련 이미지·해제 자료 등과도 분명한 접점을 지닌다. 나아가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소장 과문선집 디지털화 사업이나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의 과거 연보 DB 구축 사업 결과물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추후 과거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유의미한 협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참고문헌

심경호 외(2023), 『조선시대 과시 문헌과 문제』, 인다.

김경·김광년(2021),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

- 식의 변천사 연구〉사업의 개요와 전망」, 『동아한학연구』 1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김경(2025), 「『二句錄』所在 科學談의 양상과 특징」, 『어문논집』 103, 민족어문학회.
- 김영준(2025), 「조선시대 과거 연보(科學年譜) DB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사업 소개와 DB구축 방법」, 『전북사학』 73, 전북사학회.
- 변은미·이길환(2025), 「XML을 활용한 科文選集의 디지털화 방안 연구」,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이길환·변은미·유인태(2024), 「조선시대 科試 자료와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한국한문학연구』 92, 한국한문학회.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URL: <http://kostma.korea.ac.kr>

〈디지털 장서각〉 URL: <https://jsg.aks.ac.kr>

〈연행록DB〉 URL: <https://kcer.skku.edu>

〈외규장각 의궤 아카이브〉 URL: <http://uigwe.museum.go.kr>

〈e뮤지엄〉 URL: <https://www.emuseum.go.kr>

〈한국가사문학DB〉 URL: <https://www.gasa.go.kr>

〈한국고문서자료관〉 URL: <https://archive.aks.ac.kr>

〈한국고전종합DB〉 URL: <https://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URL: <http://people.aks.ac.kr>

〈한의학고전DB〉 URL: <https://www.medicclassics.kr>

Construc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Dataset

Byeon, Eun-mi^{*} & Lee, Gil-hwan^{**} & Ryu, In-tae^{***}

This paper offer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description principles, data structure, and scholarly significance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Dataset constructed by the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at Korea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o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has tended to focus on extrinsic aspects—such as the operational dynamics of the examination system and the personal composition of successful candidates—while compar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amining and analyzing the questions and answers that constitute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examinations. The compilation of the Dataset was undertaken to fill this gap in the research landscape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access to research data. Built upon the broad framework of compiling Semantic Data usable in AI environments, the Dataset was designed as a data model that places Exam, Question, and Answer at its central axis and semantically connects fourteen classes. In designing the values of the identifiers, multilayered information—including the hierarchy, stage, literary style, and location of each examination—was encoded and incorporated so as to further enhance queryability and research utility. By thoroughly reviewing

* (First Author) Byeon, Eun-mi: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E-mail: di0567@korea.ac.kr

** (First Author) Lee, Gil-hwan: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E-mail: chinichi95@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Ryu, In-ta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E-mail: ryuintae@gmail.com

the available range of materials, six categories of sources—examination rosters, collections of examination articles, personal literary collections, historical records, examination scripts and certificates, and anecdotal writings—were progressively synthesized. Through this process, the initial version (Ver 0.1) of the dataset was built to a scale of approximately 18,000 nodes and 22,000 edges, amounting to about 40,000 nodes and edges in total.. As the implementation of a Semantic Data Archive based on this dataset is currently underway, it is expected that a data-driven scholarly environment will soon be established—one that enables multidimensional exploration of examination information, allows for linkage with previously constructed related digital resources, and thereby makes possibl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Key Words

Civil Service Examination, 科試, Joseon Dynasty, Civil Service Examination Dataset, semantic data, data model, digital humanities

논문접수일: 2026.05.24. 심사완료일: 2026.06.11. 게재확정일: 2026.06.24.
--

성학(聖學)과 문헌^{*}

— 키케로, 세네카, 그리고 율곡의 『격몽요결』

스테판 메르시에^{**}

엄국화^{***}

■ 국문요약

로마 세계에서 철학은 전통적으로 *studium sapientiae*, 곧 ‘지혜에 대한 공부’ 또는 ‘지혜의 추구’로 이해되어 왔다. 공자에게 있어서도 공부 또는 배움(學)은 성인(聖人)에 이르는 과정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히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한 자기 수양에 있다. 물론 책과 위대한 인물들의 모범이 이러한 진전을 촉진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저술을 통해,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를 통해, 그리고 한때 소유하였던 유물들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이처럼 다양한 매개를 통해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지니는 도덕적 의미는 세네카와 키케로의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위

* 이 글은 『서양고전학연구』 제64권 제3호(2025년 12월)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 논문의 초기 초고는 2016년 9월 29~3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 “한국 인문학의 초기형성에 대한 고찰: 개화기를 중심으로(The Beginning of Korean Humanities)”에서 발표되었다. 이 발표는 서울대학교 안재원 교수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발표에 대해 논평을 제공해 준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들의 통찰과 더불어 이후 이루어진 율곡 연구의 최신 성과 덕분에, 나는 이 논문을 더욱 확장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 논문에 대해 전문적인 논평을 제공해 주어 학계의 기대 수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도와준 세 분의 심사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 Administrator, Institut Européen de Recherches, études et Formations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치한 율곡의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은 젊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저술된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잘 드러난다. 본 논문은 이 세 사상이 이해한 공부 또는 배움이 어떻게 성인에 이르는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율곡, 로마 철학, 한국 유학, 키케로, 세네카

Otium sine litteris mors est et hominis vivi sepultura.
 학문 없는 여가는 죽음이며, 살아 있는 사람의 무덤과 같다.
 - 세네카, 『도덕 편지』 82.3

한국 철학 문헌의 번역을 갈망하는 서구 독자들은 아직도 충분히 읽을 만한 자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종종 14세기의 페트라르카(Petrarch)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다. 페트라르카는 호메로스 작품의 그리스어 사본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라틴어 번역본도 없었고 그리스어 실력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사본을 보내 준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그대의 호메로스는 나에게 말하지 못한다. 아니, 차라리 내가 그에게 귀먹은 사람이라고 해야겠다.”¹⁾

물론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예컨대 10년 전인 2016년에 에드워드 정(Edward Y.G. Chung)이 퇴계 이황의 『자성록(自省錄)』을

1) Francesco Petrarca, 『서간문』(*Familiarium rerum libri = Epystole familiares*) XVIII 2.9: *Homerus tuus apud me mutus, immo vero ego apud illum surdus sum.*(그대의 호메로스는 내게 침묵하고 있으며, 아니 오히려 내가 그에게 귀먹은 자이다.) 그러나 페트라르카는 이 아름다운 필사본이 자기 서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인다. *Gaudeo tamen vel aspectu solo, et sæpe illum amplexus ac suspirans dico: O magne vir, quam cupide te audirem!*(그럼에도 나는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기뻐하며, 자주 그것을 껴안고 한숨 쉬며 말하곤 한다. ‘오 위대한 사람이여,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대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훌륭한 영어 번역으로 소개한 일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굶주린 서구 독자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 율곡 이이의 경우는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 준다. 그의 저작과 편지의 짧은 발췌문들은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지만,²⁾ 주요 저작들의 영어 번역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다만 상황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2011년 프랑스의 한국학자 이자벨 산초(Isabelle Sancho)는 파리의 대표적 학술 출판사 레 벨 레트르(Les Belles Lettres)가 새로 창설한 “중국 문고 총서(Bibliothèque chinoise)”에서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대한 획기적인 이중언어판을 출간하였다. 같은 해 서울대학교의 김현창은 도메네크 델 리오(A.J. Doménech del Río)와 함께 스페인어 번역본을 내놓았다. 몇 달 뒤인 2012년에는 이광호가 영어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더 최근에는 또 다른 한국 학자 나상훈이 일련의 논문을 통해 새로운 번역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분 번역이지만, 그 영어본은 이전 번역보다 세밀함과 문헌학적 정확성에서 한층 뛰어나다.³⁾ 이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번역본이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어리석음의 굴레를 깨뜨림’을 통해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는 율곡의 가장 중요한 저서에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이 기울여질 수 있게 되었다.⁴⁾

2) Pokorny와 Chang의 2011년 및 2015년 연구를 참조하라. 여기에는 율곡의 「자경문(自警文)」과 「선비행장(先妣行狀)」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3) Yulgok/Sancho(2011), Yulgok/Kim & Doménech del Río(2011), Yulgok/Lee(2012), 그리고 Yulgok/Na(2017, 2020, 2021)를 참조하라. 『격몽요결』 제4장만은 이전에 이미 이광호 외 공역(1997-2000) 제4부 21장(제2권 35-36쪽)에서 영어로 번역된 바 있으며, 같은 선집에는 이 밖에도 율곡의 몇몇 다른 저작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율곡의 다른 저작들도 프랑스어로 출판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성학집요(聖學輯要)』의 방대한 발췌 번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칭찬할 만한 시도는 과업의 난이도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했다. 반면 산초(Sancho)의 『격몽요결』 연구는 우아하면서도 학문적인 주석 번역을 제공한다. 또한 다른 현존 번역들과 달리, 이 프랑스어 역본에는 정조의 1788년 자필본 평문(評文)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4) 이제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독자들이 율곡의 핵심 저작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본 논문에서 한편으로는 율곡의 저작과 그에 대한 왕의 논평을,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사상가 키케로(Cicero)와 세네카(Seneca)의 저작을 함께 읽으면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성현의 배움에 종사할 때 책을 읽고 그로부터 배우는 일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나는 여기서 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모두 배움, 곧 중국어의 학(學)과 그리스어 필로소피아(philosophia)의 라틴어 번역인 *studium sapientiae*, 즉 ‘지혜에 대한 공부’ 또는 ‘지혜의 추구’를 무엇보다 먼저 성인이 되기 위한, 또는 적어도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자기 헌신으로 보았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⁵⁾ 실제로 율곡은 자신의 서문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공부 또는 배움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환기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비교 연구의 맥락에서 이 사상가를 선택한 이유를 정당화해 준다. 더욱이 『격몽요결』은 독자층의 도덕 교육을 목표로 하는 저술이라는 점에서, 세네카 철학의 핵심인 ‘영적 지도(spiritual guidance)’ 혹은 독일어로 Seelenleitung이라는 개념과 매우 잘 맞닿아 있다(Hadot 1969; 또한 Reale 2004 및 최근의 Rovere 2025 참조). 특히 Rovere는 세네카의 핵심어 animus를 전통적인 프랑스어 번역인 ‘esprit(정신)’ 대신 ‘cœur(마음·심장)’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세네카 철학이 도덕적 자아의 형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안은 중국어 心을 heart와 mind 가운데 어느 하나로 번역하기 어려워 heart-mind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와도 서로 호응한다.

- 5) 현대 학계는 이미 여러 방식으로 이 점을 입증해 왔으며, 특히 신유학 전통과 관련하여 그러하다(예컨대 Angle & Tiwald 2017, 133쪽 이하 참조.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Kelleher 2013이 있다. 물론 이는 우선적으로 중국 신유학 전통을 가리키지만, 그 핵심적 구조와 문제의식은 이후 한국의 정주학 전통에서도 공유된다. Ivanhoe 2016 참조). 또한 서양 고전철학을 일종의 ‘영적 수련(spiritual exercise)’으로 이해하는 관점 역시 Pierre Hadot의 연구 덕분에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예컨대 Hadot 1995; 또한 Nussbaum 1994 참조). 한편 유교, 특히 『중용』과 로마 스토아철학의 구체적 비교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논문(Mercier 2013, 2014)을 참조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그 비교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이어가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른바 배움이라는 것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하다. 아버지로서는 자애롭고, 자식으로서는 효도하며, 신하로서는 충성하고, 남편과 아내로서는 그 역할을 분별하며, 형제로서는 우애 있고, 어린 사람으로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벗으로서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⁶⁾

이러한 수양의 과정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과 옛 성현들의 교훈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된다. 그들의 유산은 책 속에 보존되어 있으며, 책은 그들의 먼 가르침이 점점 더 넓은 독자들에게 도달하게 해 준다. 중국 세계와 유럽 세계 모두에서 책은 마땅히 귀하게 여겨져 왔다. 물론 모든 유럽인과 중국인이 책을 통한 배움을 일방적으로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⁷⁾ 문자로 기록된 말은 일반적으로 큰 존경을 받아 왔다.

율곡의 『격몽요결』 친필 원고에 대한 정조(正祖)의 논평은 책을 통한 배움의 중요성을 적절히 부연한다. 책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와 접촉하게 해 주는 매개이다. 마치 그 저자가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사람들 사이에

6) 『격몽요결』 서문: “人生斯世，非學問，無以爲人。所謂學問者，亦非異常別件物事也。只是爲父當慈，爲子當孝，爲臣當忠，爲夫婦當別，爲兄弟當友，爲少者當敬長，爲朋友當有信，皆於日用動靜之間，隨事各得其當而已。”영어 번역은 Na(2020)를 따랐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학문의 대상이 곧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을 놓치는 사람들은 학문이란 비범하고 특별한 일에 관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 체념에 빠지기 쉽다. 율곡은 서문 후반부에서 다시 이 점을 강조한다. “今人不知學問在於日用，而妄意高遠難行，故推與別人，自安暴棄，豈不可哀也哉?”

7) 비판이 반드시 무지나 조약합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은 문자와 저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는데, 책은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그것이 옹호하는 견해에 새롭게 제기되는 반론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스스로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파이드로스』 278c-d에서 그는 τὰ τιμώτερα(가장 중요한 것들)는 글로 남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또한 유명한 「제7서한」 344d-e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두 전승을 통해 전달되는 편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사상 전통에서도 장자가 자신의 저작 제13편 「천도(天道)」 말미에서 성인의 말을 단지 ‘지게미와 찌꺼기(糟, dregs and sediments; Legge 번역)’일 뿐이라고 도발적으로 폄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그 글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을 흠모하는 이는 그의 글을 읽고자 하며, 이는 다시 그 글 쓴이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그 마음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에게까지 올라가 그들과 벗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먼저 그들의 글을 앞세우게 된다. 오늘 내가 흠모하는 사람의 친필 원고를 바라보니, 그 필획의 배치 속에서 그의 마음이 남긴 고요한 자취를 발견하였다. 그러니 어찌 그의 마음의 모든 섬세한 결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⁸⁾

여기서 정조가 표현한 생각은 『맹자』의 한 구절을 연상시킨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계승자인 맹자가 옛 성현들과 벗하는 일을 말할 때 사용한 표현, 곧 상우(尙友)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우의 뜻은 ‘올라가서’ 옛사람들을 살피고 ‘그들과 벗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올라감’이라는 뜻은 상(尙)이 동음자인 상(上)의 의미를 지니는 데서 나온다.⁹⁾ 그것은 자기 마을에서 새로운 벗을 찾는 사람이 점차 자기가 사는 나라 전체를 살피고, 다시 온 세상으로 올라가며, 더 나아가 천하 전체로 시야를 넓히며, 마침내는 살아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의 인물들까지도 그 교유의 범위 안에 포함하게 된다.

맹자가 제자 만장에게 말했다. “한 마을의 훌륭한 선비라면 그 마을의 훌륭한 선비들과 벗하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라면 그 나라의 훌륭한 선비들과 벗하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라면 천하의 훌륭한 선비들과 벗한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들과 벗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위

8) 정조, 『『격몽요결』 제문(題文)』, “慕其人, 必讀其書, 讀其書, 必求其心, 卽心而使其人也. 是故, 尙友者未嘗不以書爲先. 而今以所慕之人之書, 重之以手自點竄之蹟, 則并與其心之著於畫而將有所默契于中, 其於求心之妙, 不旣愈切矣乎?” - Sancho(2011)에 수록된 원문과 프랑스어 번역을 바탕으로 한 번역이다.

9) Zottoli(1879), 561쪽을 참조하라.

로 올라가 옛사람들을 살핀다. 그들의 『시』를 읊고 그들의 『서』를 읽는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의 시대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벗함의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다.”¹⁰⁾

세네카가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도덕 편지』 가운데 한 곳에서 매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과거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권하면서 “정녕 그대는 우리 선인들에게로 되돌아가야 한다(ad priores revertere).”라고 말한다.¹¹⁾ 맹자 역시 해석학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즉, 옛사람들의 글은 그것이 쓰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독자의 사유가 저자의 의도와 올바르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전기적 세부사항과 여러 맥락적 정보는 우리가 읽는 저자들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 준다. 이는 독일 철학자 헤겔이 『철학 백과사전(*Encyclopedia of the Philosophical Sciences*)』에서 말한 다음의 견해를 떠올리게 한다.

전기(傳記)에 대한 관심은-여기서 잠시 말하자면-보편적 목적과 범

10) 『맹자』 5B8, “孟子謂萬章曰，一鄉之善士，斯友一鄉之善士，一國之善士，斯友一國之善士，天下之善士，斯友天下之善士。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又尙論古之人，頌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是尙友也。” 번역은 Bryan W. Van Norden의 『맹자』 영어 번역본(2009)을 따랐다.

11) Seneca,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도덕 편지』(*Ad Lucilium epistulae morales*) 52.7: *Itaque pugnemus, aliquorum invocemus auxilium. 'Quem' inquis 'invocabo? Hunc aut illum?' Tu vero etiam ad priores revertere, qui vacant: adjuvare nos possunt non tantum qui sunt, sed qui fuerunt.*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고 그대는 묻는다. 그러나 그대는 또한 옛사람들에게로 돌아가 보라. 그들은 한가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그러하다.”

12) 또한 『맹자』 5A4.2도 참조하라. 이곳에서 맹자는 텍스트를 해석할 때 그 본래의 의도를 해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전기 역시 역사적 세계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개인은 그 세계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순전히 개인적인 독창성이나 기질의 기이함조차도 그 중심적 현실을 암시함으로써 의미를 얻는다. 반면 단순한 감상적 유희는 역사와는 다른 근거와 관심을 지닌다.¹³⁾

헤겔의 의도는 역사적·전기적 세부를 더 큰 철학적 시야 안에 포섭하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상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달려 있고, 그 세계관은 다시 그의 역사적 인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 보면 지나치게 당연한 말을 장황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종종 특수한 맥락을 건너뛰고 곧장 보편으로 나아가려는 유혹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급은 비역사적이며 편향된 독해를 경계하고, 맥락에 민감한 분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조는 이전에 율곡의 저술을 읽음으로써 이미 그 사람됨을 알게 되었으나, 이제 『격몽요결』 친필 원고를 손에 넣게 되자 마치 그가 곁에 살아 있는 듯한 존재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이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맑고 깨끗한 그의 필적은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의 현존을 드러내는 듯하다고 덧붙인다.¹⁴⁾ 여기서 핵심은, 고인의 유품과의 물리적 접촉이 일종

13) G.W.F. Hegel, *Encyclopædia of the Philosophical Sciences*, §549: *Das Interesse der Biographie, um diese hierbei zu erwähnen, scheint direkt einem allgemeinen Zwecke gegenüberzustehen, aber sie selbst hat die historische Welt zum Hintergrunde, mit welchem das Individuum verwickelt ist; selbst das Subjektiv-Originelle, Humoristische usf. spielt an jenen Gehalt an und erhöht sein Interesse dadurch: das nur Gemüthliche aber hat einen anderen Boden und Interesse als die Geschichte.*

14) 정조, 「『격몽요결』 제문」, “李文成, 予所尊慕也, 讀其全書, 想見其人. 近聞臨瀛有所草《擊蒙要訣》及遺硯, 亟取而見之. 點畫如新, 終始若一, 明粹超詣之姿, 光霽灑落

의 근접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것이 단순한 소장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의 친필 원고라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는 단순한 유물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매우 특별한 대상으로서 깊이 연구되고 '세심하게 탐구(深究)'되어야 한다.¹⁵⁾ 정조는 또한, 유학 경전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헌신이 점차 쇠퇴해 가던 시대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인다.¹⁶⁾ 왕으로서 정조는 자신이 곧 유학자 집단의 수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신하들에게 다시 학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일이 자신의 책무라고 여겼다. 이는 특히 양반 계층에게 중요한데, 그들의 사명은 곧 '배우고 섬기는 것', 다시 말해 관직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¹⁷⁾

이처럼 '유물'이 우리를 선조들과 이어준다는 감각은 로마 세계에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키케로는 위대한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

之象，藹然可挹於開卷之初。忽不知去文成二百有餘年，非有待於讀其書而然也。”

15) 정조는 이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다음은 그의 「제문」 가운데 한 대목으로, 율곡의 후손들과 임영 지역의 유생들에게 율곡의 저술을 깊이 연구할 것을 권면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고장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임영의 자체 된 자들이 단지 선인의 손때 묻은 유물만을 아끼고 감상할 줄만 알 뿐, 그 아름다운 가르침의 뜻을 깊이 탐구하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어찌 도리어 고장의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爲臨瀛子弟者，徒知愛翫於手澤之遺，不務深究乎嘉惠之志，則豈不反爲慈鄉之恥)” 여기서 임영(臨瀛)은 오늘날 강릉을 가리킨다. 강릉은 율곡의 외가로 율곡이 태어난 곳이다.

16) 정조, 『『격몽요결』 제문』, “(…)而儒風寢邈，聖言日湮。每御經筵，益不禁不同時之恨也。”

17) Glomb(2012), 232-233쪽은 당시의 저명한 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시 한 편을 인용하는데, 이는 양반 계층에게 학문이 얼마나 핵심적인 의무였는지를 잘 보여 준다. “어떤 이가 내게 ‘선비의 본분은 대체 몇 가지입니까?’라고 묻기에, 나는 말했다. ‘대략 말하자면 네 가지뿐이다.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손하며,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 것이다.’(或問士之本分幾何。余曰，其大略曰，入孝出恭晝耕夜讀，只四事而已。)” 그러나 실제로 ‘낮에 밭을 가는 일’은 평민들이 양반의 ‘손발’이 되어 수행하는 일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지배 엘리트 계층의 본래적 의무로 남는 것은 결국 학문과 공부였다는 뜻이 된다.

기를 열망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옛 철학자들과 저술가들이 활동했던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현존을 느꼈다.¹⁸⁾ 물론 유명한 로마의 웅변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선인들의 유품을 수집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¹⁹⁾ 그 유사성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기원전 45년 늦은 여름, 키케로는 『최고선악론』(*De finibus bonorum et malorum*)라는 다섯 권의 저작을 집필했다. 마지막 권의 배경은 기원전 79년의 아테네 근교이며,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친구들이 아스칼론의 안티오코스 아래에서 공부하는 장면을 설정한다. 안티오코스는 사라진 아카데메이아 학파를 부흥시키려 했던 독립적 학자였다. 실제로 플라톤의 학원과 여러 철학 학교는 불과 몇 해 전, 미트리다테스 6세와의 전쟁 중 로마군이 아테네를 점령하면서 불타 사라졌다. 안티오코스는 폐허가 된 아카데메이아에서 가르치지 않고 다른 체육관에서 강의했기에, 키케로와 친구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옛 학원의 터를 순례하기로 한다. 그곳은 아테네 성벽 밖 반 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²⁰⁾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인 피소는 친

18) 필자는 이전 논문(Mercier 2016)에서 키케로에게 있어 장소와 유적(site)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이미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19) 반면 로마의 이른바 “은세기 라틴 문학(Silver Latin)”의 서사시인 Silius Italicus은 키케로와 베르길리우스를 열렬히 숭배하였다. 그는 막대한 재산 덕분에 키케로의 별장 하나와 더불어 베르길리우스의 묘지까지 사들일 수 있었다. 개인 유품에 대한 집착은 때로 극단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Epictetus)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그 한 예이다. 에픽테투스는 의도적으로 극빈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죽은 뒤 한 숭배자가 철학자의 몇 안 되는 소지품 가운데 하나였던 작은 등잔을 얻기 위해 거금을 지불하였다. 이 일화를 『무식한 장서가에게』(*Adversus indoctum*)에서 전하는 Lucian of Samosata는 다음과 같이 비꼴다 (§13). “내 생각에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질그릇 등잔 하나를 삼천 드라크마라는 값에 사들인 사람이 말이다. 아마 그는 밤마다 그 등잔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기만 하면, 에픽테투스의 지혜가 꿈속에서 자기에게 옮겨오고, 자신 역시 그 경탄스러운 현자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Οἶμαι, ὃς τὸν Ἐπικτήτου λύχνον τοῦ Στωϊκοῦ κεραμεῶν ὄντα τριχιλίων δραχμῶν ἐπρίατο· ἤλπιζεν γὰρ οἶμαι κάκεῖνος, εἰ τῶν νυκτῶν ὑπ’ ἐκείνῳ τῷ λύχνῳ ἀναγινώσκου, αὐτίκα μάλα καὶ τὴν Ἐπικτήτου σοφίαν ὄναρ ἐπικτήσεσθαι καὶ ὅμοιος ἔσεσθαι τῷ θαυμαστῷ.)

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감회를 털어놓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인지 어떤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옛 사람들이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장소를 실제로 바라볼 때 느끼는 감동은, 그들의 업적에 대해 듣거나 저술을 읽을 때보다 훨씬 크다. 지금 내가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나는 플라톤을 떠올린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저기 가까운 작은 정원들은 단지 플라톤을 생각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그를 눈앞에 불러내는 듯하다.²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키케로에 따르면 위대한 인물들이 실제로 머물렀던 장소를 지나가는 경험이 단순히 그들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정조가 “항상 글이 먼저다(未嘗不以書爲先)”라고 말했던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20) Cicero, 『최고선악론』(*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V.1: *Constituimus inter nos, ut ambulationem postmeridianam conficeremus in Academia, maxime quod is locus ab omni turba id temporis vacuus esset. Itaque ad tempus ad Pisonem omnes. Inde vario sermone sex illa a Dipylo stadia confecimus.* “우리는 오후 산책을 아카데미아에서 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특히 그 시각에는 그곳이 모든 인파로부터 한적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정해진 시간에 피소의 집으로 모였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디필론 문에서 그곳까지의 여섯 스타디온 거리를 걸어갔다.”

21) 같은 책, V.2: *Naturane nobis hoc, inquit, datum dicam, an errore quodam: ut, cum ea loca videamus, in quibus memoria dignos viros acceperimus multum esse versatos, magis moveamur, quam si quando eorum ipsorum aut facta audiamus, aut scriptum aliquod legamus? Velut ego nunc moveor. Venit enim mihi Platonis in mentem: quem acceperimus primum hic disputare solitum: cujus etiam hortuli propinqui non memoriam solum mihi afferunt, sed ipsum videntur in conspectu meo ponere.* “이것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착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이 오래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장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업적에 대해 듣거나 그들의 저술을 읽을 때보다 더 깊이 감동하게 되는 것 같소. 지금의 내가 바로 그렇소. 플라톤이 떠오르오. 사람들이 전하길, 그가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토론하곤 했다고 하지 않소? 근처의 그 작은 정원들조차 단지 그의 기억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 자신을 내 눈앞에 세워 두는 듯하오.”

옛 아카데메이아로 향하는 길에서 친구들은 여러 장소를 지나치며, 그때마다 각자가 사랑하는 인물과 일화를 떠올린다. 키케로의 동생이자 비극 작가였던 퀸투스스는 오이디푸스의 전설적 무덤이 있는 콜로노스를 언급한다. 물론 그러한 환기는 실제라기보다는 꿈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감동을 준다. “아무 쓸모없는 환상인지도 모르지만,” 퀸투스스는 말한다. “그래도 나는 감동받았다.”²²⁾ 이어 에피쿠로스 학파의 추종자인 아티쿠스는 근처의 ‘정원’을 떠올리며 감동을 받고, 키케로 역시 친구들의 반응에 동의하면서 “장소가 주는 자극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만든다.”고 덧붙인다.²³⁾ 특히 키케로 자신은, 회의주의로 전환한 이후 아카데메이아 학파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였던 카르네아데스를 떠올린다.

아테네의 모든 곳은 위대한 인물들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저쪽의 회랑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카르네아데스의 무대였다. 나는 지금 그를 보는 듯하다(그의 모습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가 그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위대한 정신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는 듯하다.²⁴⁾

22) 같은 책, V.3: *Species quædam commovit, inanis scilicet, sed commovit tamen.* “어떤 환영(幻影) 같은 것이 나를 움직였소. 비록 실체 없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 나를 감동시켰소.”

23) 같은 책, V.4: *Ego autem tibi, Piso, assentior, usu hoc venire, ut acrius aliquanto et attentius de claris viris locorum admonitu cogitemus.* “그러나 피소, 나는 장소가 주는 환기(喚起) 덕분에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훨씬 더 날카롭고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된다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오.”

24) 같은 곳: *Hoc autem tempore, etsi multa in omni parte Athenarum sunt in ipsis locis indicia summorum virorum: tamen ego illa moveor exedra. Modo enim fuit Carneades: quem videre videor-est enim nota imago-a sedeque ipsa tanti ingenii magnitudine orbata, desiderari illam vocem puto.*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비록 아테네 곳곳에 위대한 인물들의 흔적이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들마다 남아 있다 하더라도, 나를 특히 감동시키는 것은 저 회랑이요. 바로 얼마 전까

앞서 보았듯 정조는 율곡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선조의 높은 기준에 부응하려 애쓰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고선악론』 제5권 서두에서 키케로가 표현하는 생각 역시 이와 상당히 비슷하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이 세운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일종의 향수가 배어 있다. 실제로 정조의 글과 키케로의 회상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상은, 과거의 영광이 현재와 미래를 계속 압도할 것이라는 느낌이다. 정조는 경연에 참석할 때마다 더 나은 옛 시대가 사라져 버린 현실을 한탄했고, 키케로 역시 전통 철학 학교들의 터전이 파괴된 이후 철학사의 결정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식했다. 헬레니즘 학파들의 역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흐릿해졌고, 그 결과 서기 1세기 중반의 세네카는 철학 학파들의 ‘소멸’을 탄식할 수 있었다.²⁵⁾ 물론 철학 사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도 그곳에는 카르네아데스가 있었던 듯하오. 나는 지금도 그를 보는 것만 같소 - 그의 모습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토록 위대한 정신의 현존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 자체가, 이제는 그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있는 듯하오.”

- 25) Seneca, 『자연학의 문제』(*Naturales Quaestiones*) VII.32.1-2: “악덕은 아직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도 않았고,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 그것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도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혜를 향해 다가가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것을 스쳐 지나가며 잠깐 아는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가? 경기가 연기되거나, 비 오는 날이라 무료를 달라고 싶을 때가 아니고서야, 누가 철학자나 자유학예를 돌아보는가? 그러므로 수많은 철학 학파들이 후계자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옛 아카데미아 학파도, 신(新)아카데미아 학파도 뒤를 이을 지도자를 남기지 못했다. 피론의 가르침을 전수할 사람이 누구인가? 대중에게 미움을 받던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제 스승조차 찾지 못한다. 로마적 강건함을 지녔던 섹스티우스 학파의 새로운 학풍도, 큰 기세로 시작되었지만 막 태동하던 시기에 이미 소멸하고 말았다.” 여기서 세네카는 단순히 ‘옛날이 좋았다’는 식의 문화 비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쇠퇴를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직접 연결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철학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철학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의지’가 사라졌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학파의 단절을 단순한 제도적 문제로 보지 않고, 영혼의 병리 현상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 대목은 논문 전체의 핵심 주제인 ‘공부(學, studium)가 단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자기 수양과 영혼의 형성’이라는 문제의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세네카에게 철학은 여가 시간의 교양 장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형시키는 훈련이어야 한

제도적 기반과 학교 조직이 크게 약화되어 거의 존속의 경계에 이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키케로는 로마인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정당한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만 햇불이 로마로 넘어왔다고 해서, 옛 그리스인들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존경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옛 영광이 지닌 환기력을 소중히 간직해야 했다. 그래서 키케로의 젊은 친척 루키우스는 아테네를 거닐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역사적인 땅 위를 걷고 있다.”라고 감탄한다.²⁶⁾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장소와 연결된 이러한 기억들이 단순한 오락이나 취미를 위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조들에 걸맞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장치이다. 만약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대한 지식은 결국 ‘자족적인 호고주의(self-indulgent antiquarianism)’에 지나지 않게 된다.²⁷⁾ 세네카 역시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그러한 유혹적 지적 유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때 그리스인들은 올리시스의 노 젓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쓰였는지, 또 그것들이 정말 같은 저자의 작품인지 등을 따지는 데 몰두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혼자 간직하고 있어도 그대의 인격을 조금도 향상시키지 못하며, 떠벌리고 다니면 더 학식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성가신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²⁸⁾

다. 이런 점에서 그는 율곡의 『격몽요결』이 비판하는 ‘과거 시험용 문장 기술’이나 ‘공허한 박학’과 매우 가까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26) Cicero, 『최고선악론』 V.5: “Quacumque enim ingredimur, in aliquam historiam vestigium ponimus.”

27) 이 표현은 1997년 케임브리지대학교 Quentin Skinner의 취임 강연에서 나온 것이다.

28) Seneca,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De brevitate vitae) 13.2: *Græcorum iste morbus fuit quærere quem numerum Ulixes remigum habuisset, prior scripta*

기껏해야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그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 그리고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 무익하고 공허할 뿐이다. 세네카는 역사가들의 거짓을 통렬히 비난하는데, 그러한 거짓은 학자들의 잘 속는 성향, 순진함, 사료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의 태만, 혹은 심지어는 부정직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²⁹⁾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도, 배운 것을 실천할 의도 없이 배우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치료약(*remedium*)이 되어야 할 것이 오락거리(*oblectamentum*)로 취급되기 때문이다.³⁰⁾ 더 나쁜 경우는, 습득한 지식이 단지 쓸모없는 데 그치지 않고 해롭기까지 한 경우이다. 실제로 그것이 악한 행위를 호의적으로 제시하거나, 차라리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야 할 혼란과 추문들을 들춰낼 때가 바로 그러하다. 맹자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서경(書

esset Ilias an Odysia, præterea an ejusdem esset auctoris, alia deinceps hujus notæ, quæ sive contineas nihil tacitam conscientiam juvant, sive proferas non doctior videaris sed molestior.

- 29) Seneca, 『자연학의 문제』 VII.16.1-2: *Quidam incredibilium relatu commendationem parant et lectorem, aliud acturum, si per cottidiana duceretur, miraculo excitant: quidam creduli, quidam neglegentes sunt: quibusdam mendacium obrepit, quibusdam placet: illi non evitant, hi appetunt. Hæc in commune de tota natione, quæ approbari opus suum et fieri populare non putat posse, nisi illud mendacio aspersit.*(어떤 이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인기를 얻으려 하고, 평범한 일들만 따라가다가는 다른 데로 가버릴 독자를 경이로운 이야기로 자극한다. 어떤 이들은 잘 속고, 어떤 이들은 부주의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거짓이 슬며시 스며들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전자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후자는 그것을 추구한다. 이는 역사가들의 무리 전체에 대체로 해당하는 말이다. 그들은 자기 작품이 거짓으로 약간 꾸며지지 않고서는 인정받거나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30) Seneca, 『도덕 편지』 117.33을 보라: *Adice nunc quod adsuescit animus delectare se potius quam sanare et philosophiam oblectamentum facere cum remedium sit.*(더구나 정신은 자신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게 하는 데 익숙해져서, 철학이 치료약이어야 함에도 그것을 오락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철학을 치료에 비유하는 생각은 플라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철학을 영혼의 건강(ὑγιειά τέ τις... ψυχῆς)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국가』 IV 444d-e).

經)』에 대한 논평에서 이 점을 제기한다.

『서경』을 전적으로 믿느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나는 「무성(武成)」 편에서 두세 구절만 취한다. 어진 사람에게는 세상에 적이 없는 법이다. 지극히 어진 이가 지극히 어질지 못한 이를 토벌했는데, 어찌 ‘피가 흘러 절굿공이를 띄웠다’고 할 수 있겠는가?³¹⁾

여기서 맹자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 여부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설령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로운 왕이 권력을 잡기 위해 대량 학살을 자행해도 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결국 과거에 대한 지식이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옛 성현들의 덕을 본받고 스스로를 고양하도록 만들 때뿐이다. 『최고선악론』에서 피소가 젊은 루키우스에게 답한 말도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다.

루키우스여, 네 열정은 훌륭한 재능에 어울리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옛 유적을 구경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네가 단지 그들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본받기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³²⁾

31) 『맹자』 7B3: “盡信書，則不如無書。吾於武成，取二三策而已矣。仁人無敵於天下，以至仁伐至不仁，而何其血之流杵也。” 맹자는 여기서 『서경』 「무성」 편에 나오는, 악한 주왕(紂王)을 주 무왕(周武王)이 토벌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서경』의 해당 대목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묘사하며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내려갔다(血流漂杵)”라고 되어 있는데, 맹자는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Charles Muller(2014)은 주석에서 또 다른 해석 전통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저(杵)를 “절굿공이”가 아니라 방패를 뜻하는 순(楯)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며, 실제 전장의 피 위에 떠다니는 것으로는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지극히 어진 자가 지극히 어질지 못한 자를 정벌했는데, 어찌 피가 흘러 병사들의 방패가 떠내려갈 정도였겠는가?”

32) Cicero, 『최고선악론』 V.6: *Tum Piso, Atqui, Cicero, inquit, ista studia, si ad imitandos summos viros spectant, ingeniosorum sunt, sin tantummodo ad*

키케로 자신도 이 격려를 칭찬하며, 루키우스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기억의 장소들-혹은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유물들-은 단순한 향수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의 전령이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이끄는 한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그러할 때에만 비로소 역사는 “시간의 증거요, 진리의 빛이며, 기억의 생명이자 삶의 스승이며, 고대의 전령”이라는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³³⁾ 따라서 위대한 장소들이 불러일으키는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옛 위인들을 모방하게 만드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정당한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일깨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키케로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모방’이다. 곧 단순히 고대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받고 또 그들에 도전하는 것이다. 성현다운 사람이 되기를 지향하는 일이 결코 부적절하거나 주제넘은 것은 아니다. 과거의 위대한 성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이 점을 분명히 말하며, 먼 옛날의 성왕인 요와 순도 우리보다 더 특별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점을 자주 일깨운다.

제나라의 저자가 물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선생님을 엿보게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시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겠는가? 요와 순도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³⁴⁾

indicia veteris memoriæ cognoscenda, curiosorum. Te autem hortamur omnes, currentem quidem, ut spero, ut eos, quos novisse vis, etiam imitari velis.(그러자 피소가 말했다. “키케로여, 그러한 탐구가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뛰어난 자들의 일이다. 그러나 단지 옛 기억의 흔적들을 알아보는 데만 향한다면, 그것은 호기심 많은 자들의 일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그대에게 권고하네 - 그리고 나는 그대가 이미 그 길을 잘 달려가고 있다고 믿네만 - 그대가 알고자 하는 인물들을 또한 본받고자 하기를 말일세.”)

33) Cicero, 『웅변가에 관하여』(*De oratore*) II.9: Testis temporum, lux veritatis, vitae memoriae, magistra vitae, nuntia vetustatis.

또 이렇게 말한다.

도는 하나일 뿐이다. ... 그들이 사람이면 나도 사람인데, 어찌 그들의 업적 때문에 위축되겠는가? 안연이 말했다. “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다만 이렇게 할 뿐이다.”³⁵⁾

다른 곳에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강조한다. 사람이 악해지는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모든 덕의 싹을 지니고 있다. 다만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그 싹을 성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겨날 뿐이다.³⁶⁾ 율곡 역시 『격몽요결』의 서문에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한다. 배움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묵혀 둔 채 아무 소출도 내지 못하는 땅과 같다는 것이다.³⁷⁾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싹을 성찰하여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앞서 보았듯이, 도덕적 진보의 소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며,³⁸⁾ 반드시 놀라운 행위나 비범한 업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나태와 둔중함의 경향에 맞서 싸운다면 온전한 인

34) 『맹자』 4B32, “儲子曰, 王使人聘夫子, 果有以異於人乎? 孟子曰, 何以異於人哉? 堯舜與人同耳.” 그렇지만 성리학자들은, ‘이(理)’ 곧 만물에 공통된 원리는 하나이지만, 기질(氣質)은 맑음과 탁함, 순수함과 혼탁함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역시 맹자의 말의 근본적 진실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고 율곡은 『격몽요결』 제1장에서 지적한다: “雖氣質不能無清濁粹駁之異, 而苟能眞知實踐, 去其舊染, 而復其性初, 則不增毫末, 而萬善具足矣. 衆人豈可不以聖人自期乎? 故孟子道性善, 而必稱堯舜以實之曰, 人皆可以爲堯舜. 豈欺我哉?”

35) 『맹자』 3A1, “夫道一而已矣(...)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안연의 이 말은 율곡이 『격몽요결』 제1장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다.

36) 『맹자』 6A7을 보라. 또한 6B2도 함께 참고하라.

37) 『격몽요결』 서문, “다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발이 잡초로 막혀 있을 뿐이다 (但不學之人, 心地茅塞).” 여기서 율곡은 『맹자』 7B21을 암시하고 있다.

38) 율곡은 『격몽요결』 제3장에서 이 점을 다시 반복한다: “배움이란 일상 속의 행동과 처사 사이에 있는 것이다(爲學在於日用行事之間).” 그리고 이어 다시 말한다: “자기를 이겨내는 공부는 일상생활에 가장 절실하게 관련된다(克己工夫, 最切於日用).”

간이 될 수 있다. 어찌면 인생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다루는 일일 것이다.³⁹⁾ 율곡의 제2장은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반드시 떨쳐내야 할 나쁜 습관, 곧 ‘옛 습관(舊習)’을 몰아내는 문제 전체를 다룬다. 세네카 역시 『도덕 편지』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이 비범한 행위를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며,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만일 사람들이 지혜로 가는 길이 놀랍고 어려운 행동을 요구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철학을 멀리하고 그것이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엄격하기는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철학’이라는 말은, 그것을 절제 있게 사용할 때조차 사람들을 충분히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지키는 관습들에서 스스로를 면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야 하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옷은 화려해서는 안 되지만, 더러워서도 안 된다. 금으로 장식한 은그릇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금과 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검소한 성품의 표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살고자 힘쓰는 삶은 일반적인 관습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을 놀라 달아나게 만든

39) 이미 『격몽요결』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율곡은 자신의 진진 없음의 원인을 게으름에 돌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 “나 또한 오랫동안 인순(因循, 미루고 안일하게 따르는 태도)을 근심해 왔기에, 이것으로써 스스로를 경계하고 반성하고자 한다(而余亦久患因循, 欲以自警省焉).” 율곡은 이 책 전체를 통하여 독자에게 자기만족을 경계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자기만족은 사람을 나태와 해이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인은 어찌하여 홀로 성인이 되었는데, 나는 어찌하여 홀로 평범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는 참으로 뜻이 서지 못하고, 앎이 밝지 못하며, 실천이 독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聖人何故獨爲聖人? 我則獨爲何故衆人耶? 良由志不立, 知不明, 行不篤耳).”

다. 그들이 우리를 모든 면에서 본받아야 할까 두려워하게 만들면, 결국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우리를 본받으려 하지 않게 된다. 철학이 가장 먼저 약속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공감, 함께한다는 감각이다. 우리가 달라짐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단절될 것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찬탄을 얻게 하려는 바로 그 조치들이 도리어 우리를 미움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몸을 괴롭히고, 기본적인 몸단장을 포기하며, 누추한 모습을 꾸미고, 단지 값싼 정도가 아니라 썩고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일이다. 진미를 탐하는 것은 방종의 표시이다.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을 피하는 것은 광기의 표시이다. 철학은 절제를 요구하지 자기 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제도 머리는 빚을 수 있다. 내가 제안하는 한계는 이렇다. 우리의 습관은 이상과 일상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모든 사람이 감탄할 수 있으면서도 낮설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⁴⁰⁾

40) Seneca, 『도덕 편지』 5.2-5: *Satis ipsum nomen philosophiæ, etiam si modeste tractetur, invidiosum est: quid si nos hominum consuetudini cærimus excerpere? Intus omnia dissimilia sint, frons populo nostra conveniat. Non splendeat toga, ne sordeat quidem: non habeamus argentum in quod solidi auri cælatura descenderit, sed non putemus frugalitatis indicium auro argentoque caruisse. Id agamus ut meliorem vitam sequamur quam vulgus, non ut contrariam: alioquin quos emendari volumus fugamus a nobis et avertimus: illud quoque efficimus, ut nihil imitari velint nostri, dum timent ne imitanda sint omnia. Hoc primum philosophia promittit, sensum communem, humanitatem et congregationem: a qua professione dissimilitudo nos separabit. Videamus ne ista per quae admirationem parare volumus ridicula et odiosa sint. Nempe propositum nostrum est secundum naturam vivere: hoc contra naturam est, torquere corpus suum et faciles odisse munditias et squalorem appetere et cibis non tantum vilibus uti sed tætris et horridis. Quemadmodum desiderare delicatas res luxuriæ est, ita usitatas et non magno parabiles fugere dementiæ. Frugalitatem exigit philosophia, non pœam: potest autem esse non incomperta frugalitas. Hic mihi modus placet: temperetur vita inter bonos mores et publicos: suspiciant omnes vitam nostram sed agnoscant.*

여기서 세네카의 논의는 키니코스학과(견유학과)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된다. 키니코스학파는 극단적인 행동과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로 유명했으며, 그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그런 철학자들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허영심에 놀아나는 것일 수도 있다. 참된 철학자는 다른 사람과 겉으로 다르게 보이는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아의 내적 성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외양을 방치하는 사람은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만큼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도는 더 느슨한 삶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과 훈련을 요구한다. 절제는 결코 어중간한 조치가 아니라, 상당한 자기 통제의 표지이다.⁴¹⁾ 세네카가 또 다른 『도덕 편지』에서 말하듯이,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은 쉽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축제에 절도 있게 참여하는 것이다. 남들과 떨어져 있거나 자신에게 주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모든 면에서 휩쓸리지는 않는 것, 곧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되 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방탕 없이 축일을 보내는 것(*sine luxuria agere festum diem*)’이라고 부른 바이다.⁴²⁾

41) Seneca는 『도덕 편지』 5.6에서 이러한 반론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Quid ergo? eadem faciemus quæ ceteri? nihil inter nos et illos intererit?” Plurimum: dissimiles esse nos vulgo sciat qui inspexerit propius: qui domum intraverit nos potius miretur quam suppellectilem nostram. (“그렇다면 어찌하란 말인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어야 하는가?” 물론 큰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가까이에서 우리를 살펴본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가구보다도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경탄해야 한다.)

42) Seneca, 『도덕 편지』 18.4: Hoc multo fortius est, ebrio ac vomitante populo siccum ac sobrium esse, illud temperantius, non excerpere se nec insignire nec misceri omnibus et eadem sed non eodem modo facere: licet enim sine luxuria agere festum diem. (술 취해 토하고 있는 군중 속에서도 자신은 맑고 절제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강인한 일이다. 그리고 더욱 절제된 태도는 스

이 모든 도덕적·정신적 투쟁이야말로 사람이 책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말하듯 ‘더 학식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성가신 사람’이 될 뿐이다. 율곡에게도 배움은 성현다운 덕을 실천하는 일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책은 바로 그 일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책을 읽을 아무런 목적도 없다.⁴³⁾ 의미심장하게도 『격몽요결』에서 독서에 관한 장 바로 다음에는 효자의 의무에 관한 장이 이어진다. 율곡이 엄두에 둔 위험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독서를 다른 목적에 봉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곧 교묘한 논변을 꾸미고 정교하게 추론하는 데 독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는 “말이 많고 근심이 많은 것은 마음을 기르는 데 가장 해롭다”라고 하며 이러한 경향을 엄하게 비판한다.⁴⁴⁾ 세네카 역시 자기 시대의 철학 지망생들 사이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았다. 그들은 오직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재치 있는 논증을 만들어내는 데 몰두했다. 『도덕 편지』의 수신자인 그의 친구 루킬리우스도 어쩌면 그런 철학적 추론의 오용에 빠져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러한 경향을 거듭 비판할 필요를 느꼈다.⁴⁵⁾ 교묘한 논변의 문제는 그것이 상대를 당황

스로를 남들과 구별하거나 눈에 띄게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뒤섞이지도 않는 것이다. 곧 남들과 같은 일을 하되 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로 사치 없이도 축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뒤의 서간들에서도, 절제(temperantia)가 단순한 금욕이나 완전한 포기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도덕 편지』 108.16: Cetera projecta redierunt, ita tamen ut quorum abstinentiam interrumpi modum servem et quidem abstinentiæ proximior, nescio an difficilior, quoniam quædam absceduntur facilius animo quam temperantur. (그 밖의 것들은 한때 끊어두었다가 다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절도를 지키고 있으며, 그것도 거의 금욕에 가까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것들은 마음에서 완전히 잘라내는 편이 오히려 더 쉽고, 절제 속에서 다루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43) 『격몽요결』 3장: “책을 읽는 것은 다만 이 이치를 밝히고자 할 뿐이다(讀書者, 欲明此理而已).”

44) 같은 곳, “多言多慮, 最害心術.”

45) 나는 박사학위 논문의 세네카 장(章) 가운데 한 절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

하게 만들 뿐 설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더 나쁜 것은, 영혼이 위협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하는 위협 앞에서는 그런 논변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점이다.

그대는 인간의 연약함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대의 어떤 말이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위험 속으로 뛰어들게 할 것인가? 어떤 연설이 두려움의 결속을 깨뜨릴 것이며, 어떤 문장의 힘이 그대에게 맞서 늘어선 인류의 확신을 뒤집을 것인가? 그대는 나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과 교묘한 작은 질문의 덫을 내놓는가? 거대한 적을 상대하는 훌륭한 무기들이로군! 저 사나운 아프리카의 뱀은 전쟁 자체보다 로마 군단에게 더 무서웠다. 그들은 헛되이 투석기와 화살을 쏘았다. 피톤을 죽인 자조차도 그것을 상처 입힐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거대한 몸집과 뚫을 수 없는 가죽이 쇠붙이와 인간의 손이 쏘아 보낸 모든 투사체를 막아 낸 뒤에야, 맷돌 같은 포탄들이 마침내 그것을 쓰러뜨렸다. 그런데 그대는 적이 죽음일 때 그런 작은 화살을 쏠겠다는 것인가? 바늘로 사자를 상대하겠는가? 그대의 논변은 날카롭다. 그러나 지푸라기보다 날카로운 것은 없다. 어떤 것은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쓸모없고 효과가 없어진다.⁴⁶⁾

문 바 있다. 세네카는 자신의 저작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변칙적인 변증술(dialectics)의 사용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심지어 자기 철학 학파의 가장 저명한 인물들조차 그러한 관행에 빠져 있었다는 이유로 비판하기까지 한다.

- 46) Seneca, 『도덕 편지』, 82.23-4: *Quod auxilium invenis [quid dicis] imbecillitati humanæ? quid dicis quo inflammati in media pericula irruant? qua oratione hunc timendi consensum, quibus ingenii viribus obnixam contra te persuasionem humani generis avertis? verba mihi captiosa componis et interrogatiunculas nectis? Magnis telis magna portenta feriuntur. Serpentem illam in Africa sævam et Romanis legionibus bello ipso terribiliorem frustra sagittis fundisque petierunt: ne Pythio quidem vulnerabilis erat. Cum ingens magnitudo pro vastitate corporis solida ferrum et quidquid humanæ torserant manus rejiceret, molaribus demum fracta saxis est. Et adversus mortem tu tam minuta jacularis? subula leonem excipis? Acuta sunt ista quæ dicis: nihil est acutius arista: quædam inutilia et inefficacia ipsa subtilitas reddit.*

세네카가 이 대목에서 언급하는 아프리카의 뱀 이야기는 기원전 3세기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를 향해 파견된 로마 원정군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가리킨다. 그 군대는 가족이 너무 두꺼워 병사들의 투창으로는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뱀을 만났다고 전해진다. 결국 야전 포병이 나서서 그 괴물을 쏘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이다.⁴⁷⁾

율곡은 자기 시대의 학문적 습속 때문에 화려한 문장과 논변의 섬세함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극도로 비판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과 중국에서 관료를 선발하던 과거제도는 암기식 공부와 맞춤형 답안 작성을 조장했다. 그것은 유교 교리를 얼마나 깊이 체화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지 학문적 방식으로 우아하게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되었다. 『격몽요결』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장인 처세(處世) 장은 거의 전적으로 이 문제, 곧 아무런 도덕적 진보도 이루지 못한 학자 지망생들의 얕은 유교 이해를 다룬다.⁴⁸⁾ 그렇다고 해서 책을 통한 배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읽고 공부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의 참된 삶의 목적, 곧 성인이 되고, 덕을 실천하며, 성현다운 삶을 사는 일을 잊어버리는 데서 비롯된다. 이 책의 제4장은 독서(讀書)를 다룬다. 이 장에서 율곡은 정주학 전통의 높은 요구에 부합하는 매우 엄격한 학습 과정을 제시한다. 공부해야 할 텍스트의 세부 목록과 경전 읽기의 순서를 설명하기 전에, 율곡은 독자에게 그것들을 읽는 목적을 상기시킨다. 사람은 만물을 관통하는 이

47) Silius Italicus의 『푸니카』(Punica) 제6권 140-282행만큼 이 조우와 뒤이은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한 작가는 없지만, 여러 로마 작가들이 이 일화를 언급하고 있다.

48) 왕양명은 중국에서 과거제도 전체를 가장 노골적으로 비판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이 타락한 인재 선발 장치와 주자학파의 특수한 요구 사항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곧 독서와 문헌 학습을 중시하는 성향이 자신이 비판하는 여러 폐단을 낳았다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율곡에게서는 바로 그 '정통적인' 정주학(程朱學) 전통 내부로부터 매우 유사한 과거제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치, 곧 리(理)를 따라야 하며, 그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본래 선한 본성의 내적 자질이 드러날 수 있다. 이는 성리학의 기본 교의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도에 들어감에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이치를 궁구함에는 독서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성현들이 마음을 쓴 자취와, 선악에 관해 우리가 본받고 경계해야 할 바가 모두 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⁴⁹⁾

자세와 태도, 올바른 주의 집중 같은 실제적 사항들에 더하여, 율곡은 텍스트의 세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인의 글에는 화려한 장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은 매우 실질적이며 신중하게 체득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희가 함영(涵泳) 곧 텍스트 안에 ‘잠기기’ 또는 ‘깊이 젖어들기’라고 부른 것이다.

독자는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책을 공경히 대해야 하며,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기울여 세심히 생각하고 그 안에 잠겨야 한다. ‘잠긴다’는 것은 가까이 읽고 깊이 되새긴다는 뜻이다. 그 의미와 의도를 깊이 이해해야 하며,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길을 찾아야 한다. 내가 입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⁵⁰⁾

이는 텍스트를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데 대한 경고이다. 분명 율

49) 『격몽요결』 4장, “故入道莫先於窮理, 窮理莫先乎讀書. 以聖賢用心之迹及善惡之可效可戒者, 皆在於書故也.”

50) 같은 곳, “凡讀書者, 必端拱危坐, 敬對方冊, 專心致志, 精思涵泳, [涵泳者, 熟讀深思之謂.] 深解義趣, 而每句必求踐履之方, 若口讀而心不體, 身不行,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 주희의 ‘함영(涵泳)’에 대해서는 Zhang(2006)을 보라.

곡은 오늘날의 방대한 개인 서재에 반대했을 것이다. 물론 그가 책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많은 책을 가진 사람이 그중 어느 것도 충분히 주의 깊게 읽을 시간을 들이지 않고 대충 훑어보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주의 깊은 독서는 시간과 훈련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전통적으로 혼했던 암송 중심의 학습 방법도 바로 독서를 산만하게 흐뜨리고 싶은 유혹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서양에서도 로마인들은 책이 더 널리 퍼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개인 서재를 꾸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얕은 독서의 위험을 느꼈다. 이 문제 전체는 소 플리니우스의 편지에 나오는 빛나는 공식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많이(multum) 읽어야 하지만, 많은(multa)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⁵¹⁾ 세네카 역시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독서에 대한 열정을 절제하라고 권한다.

여러 저자와 온갖 종류의 책을 읽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방향과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그대가 그대 안에 확실히 머물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제한된 수의 저자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에게서 양분을 얻어야 한다. 어디에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늘 여행하는 사람들은 머무를 곳은 많지만 친구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한 저자와도 친밀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연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음식은 먹자마자 곧바로 배출되면 몸에 이롭지도, 몸의 일부가 되지도 않는다. 자주 약을 바꾸는 것만큼 치료를 방해하는 것도 없다. 늘 다른 봉대를 시험하는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반복해서 옮겨 심는 묘목은 결코 튼튼하게 자라지 않는다. 사실 어떤 것도 그저 지나가는 동안만 접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큼 유용하지는 않다. 많은 책은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그러므로 그대가 가진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읽을 수 있을 만큼만 가지면 충분하다. “하지만 나는 때에 따라 다른 책들을 읽고 싶

51) Pliny the Younger, 『서간집』(Epistulae) VII.9: *Aiunt enim multum legendum esse, non multa.*

다.”라고 그대는 말할 것이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이것저것 조금씩 집어 먹는다. 그러나 식단이 너무 다양하면 음식은 영양을 주지 않고 위를 어지럽힐 뿐이다. 그러므로 검증된 가치가 있는 저자들을 늘 읽어라. 혹시 다른 저자들에게 잠시 눈을 돌리고 싶다면, 그 뒤에는 이전 저자들에게 돌아오라. 날마다 가난에 맞설 도움, 죽음에 맞설 도움, 그리고 다른 재앙들에 맞설 도움을 얻어라. 여러 주제를 빠르게 지나간 뒤에는 그날 곱씹고 소화할 하나를 골라라.⁵²⁾

요컨대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배경에는 세네카가 특히 중시한 또 하나의 생각이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것이다.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서간집의 첫 편지부터 세네카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일의 중요성을 성찰한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전체의 논의도 비슷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인생은 너무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길지도 않다. 우리의 수명이 짧은 길든 그것은 나름의 적절한 길이를 지닌다. 다

52) Seneca, 『도덕 편지』, 2.2-4: *Illud autem vide, ne ista lectio auctorum multorum et omnis generis voluminum habeat aliquid vagum et instabile. Certis ingeniis immorari et innutriri oportet, si velis aliquid trahere quod in animo fideliter sedeat. Nusquam est qui ubique est. Vitam in peregrinatione exigentibus hoc evenit, ut multa hospitia habeant, nullas amicitias: idem accidat necesse est iis qui nullius se ingenio familiariter applicant sed omnia cursim et properantes transmittunt. Non prodest cibus nec corpori accedit qui statim sumptus emittitur: nihil æque sanitatem impedit quam remediorum crebra mutatio: non venit vulnus ad cicatricem in quo medicamenta temptantur: non convalescit planta quæ sæpe transfertur: nihil tam utile est ut in transitu prosit. Distringit librorum multitudo: itaque cum legere non possis quantum habueris, satis est habere quantum legas. 'Sed modo' inquis 'hunc librum evolvere volo, modo illum.' Fastidientis stomachi est multa degustare: quæ ubi varia sunt et diversa, inquinant non alunt. Probatos itaque semper lege, et si quando ad alios deverti libuerit, ad priores redi. Aliquid cottidie adversus paupertatem, aliquid adversus mortem auxili compara, nec minus adversus ceteras pestes: et cum multa percurreris, unum excerpe quod illo die concoquas.*

만 그 시간을 잘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낭비하여 결국 삶을 결정적으로 너무 짧게 만들어버릴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⁵³⁾ 세네카는 책을 이리저리 훑어보는 일을 금하지는 않는다. 로마 세계의 엘리트에 속한 친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은 적어도 무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책장을 넘겨보는 일이 독자로 하여금 한 번에 하나의 독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오직 주의 깊은 독서를 통해서만 독자는 독서에서 이익을 얻고, 말하자면 그 정보를 ‘소화’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책의 소유는 전시와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에 드는 지출은 가장 고상한 형태의 지출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 주인이 평생 그 책들의 제목표조차 거의 다 읽지 못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책과 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과잉은 배우는 사람을 짓누를 뿐 교육하지 않는다. 수많은 저자들에게 현혹되는 것보다, 몇몇 저자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편이 훨씬 낫다. 알렉산드리아에서 4만 권의 책이 불탔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왕들의 세련됨과 헌신이 이룬 가장 고귀한 기념물이라고 칭찬했을 수도 있다. 리비우스도 그것을 왕들의 세련됨과 헌신이 낳은 뛰어난 작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세련됨도 헌신도 아니라 학문적 사치였고, 사실 학문적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책들을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를 위해 마련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공부의 도구가 아니라 연회의 장식품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한 만큼의 책만 가져야 하며, 과시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지출은 코린토스 청동이나 그림에 쓴 것보다 더 명예롭

53) Seneca,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1.4: *Ita est: non accipimus brevem vitam sed fecimus, nec inopes ejus sed prodigi sumus.* (실상은 이렇다. 우리는 짧은 삶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짧게 만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비하는 자들이다.)

지 않은가?” 그러나 어디서든 지나침은 악덕이다. 감귤나무와 상아로 만든 책장을 좇고,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저자들의 전집을 사들이며, 수천 권의 책에 둘러싸여 하품하면서도 정작 책의 겉모습과 제목표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겠는가? 그래서 그대는 가장 게으른 사람들의 집에서 온갖 역사서와 연설문들이 지붕까지 솟은 책장 칸들 속에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심지어 도서관이 냉탕과 온탕 사이에 집의 필수 장식물처럼 설치된다. 만일 이 잘못이 학문에 대한 지나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용서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초상화와 함께 찾아내어 필사한 그 책들, 거룩한 지성들의 저작들은 과시와 벽 장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⁵⁴⁾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네카는 표현의 간결함과 의미의 충만함을

54) Seneca,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 [= *Detranquillitate animi*], 9.4-7: *Studiorum quoque, quæ liberalissima impensa est, tamdiu rationem habet quamdiu modum. Quoinnumerabiles libros et bibliothecas, quarum dominus vix tota uita indices perlegit? Onerat discentem turba, non instruit, multoque satius est paucis te auctoribus tradere quam errare per multos. Quadraginta milia librorum Alexandriae arserunt. Pulcherrimum regiae opulentiae monumentum alius laudaverit, sicut et Livius, qui elegantiae regum curæque egregium id opus ait fuisse. Non fuit elegantia illud aut cura, sed studiosa luxuria, immo ne studiosa quidem, quoniam non in studium, sed in spectaculum comparaverant, sicut plerisque ignavis etiam puerilium litterarum libri non studiorum instrumenta, sed cenationum ornamenta sunt. Paretur itaque librorum quantum satis sit, nihil in apparatus. (Honestius, inquis, huc se impensæ quam in Corinthia pictasque tabulae effuderint.) Vitiosum est ubique quod nimium est. Quid habes cur ignoscas homini armaria e citro atque ebore captanti, corpora conquirenti aut ignotorum auctorum aut improbatorum et inter tot milia librorum oscitanti, cui voluminum suorum frontes maxime placent tituli que? Apud desidiosissimos ergo videbis quidquid orationum historiarumque est, tecto tenus exstructa locumenta: jamenim, inter balnearia et thermas, bibliotheca quoque ut necessarium domus ornamentum expolitur. Ignoscerem plane, si studiorum nimia cupidine erraretur: nunc ista conquisita, cum imaginibus suis discripta, sacrorum opera ingeniorum in speciem et cultum parietum comparantur.*

결합한 짧고도 인상적인 경구(*sententiæ*)를 높이 평가한다. 그의 문체 자체가 독자가 책을 덮은 뒤에도 곱씹어 보아야 할 만큼 빛나고 인상적인 준(準)격언들로 가득하며,⁵⁵⁾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첫 서른 통의 편지 곳곳에 - 다소 도발적으로도 - 주로 에피쿠로스에게서 가져온 뛰어난 금언들을 흠뻑려 놓고 있다. 또한 극도의 간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문(漢文) 역시 성찰을 떠받쳐 줄 만한 잠언들을 만들어 내기에 탁월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세네카는 또한 ‘검증된 가치가 있는(*probatos*)’ 훌륭한 저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덜 중요한 저자들을 훑어본 뒤에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편지에서 그는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책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가이다. 다양한 독서는 즐거움을 주지만, 선택적인 독서는 실제의 유익을 준다.”라고 일깨운다. 그리고 자신의 조언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비유를 덧붙인다. “어떤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그는 여러 길을 헤매지 말고 하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지금 그대가 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이다.”⁵⁶⁾ 율곡은 더 엄격하다. 그는 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저자들의 글은 읽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격몽요결』 제4장에서 『소학』, 사서오경, 송대 대유들의 저작, 역사서로 이루어진 상세한 독서 과정을 제시한 뒤, 그는 읽어서는 안 될 책들에 대해 이렇게 덧붙인다. “이단의 학설을 담은 불온한 책이나 그 밖의 잡다한 글들은 한순간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된다.”⁵⁷⁾ 이 장은 앞서 말한 텍스트를 읽는 올바른 방식, 곧 지극한

55) 따라서 후대의 로마 도덕 문학 속에서 중요한 세네카적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Publilius Syrus의 뛰어난 격언들과 더불어, 세네카의 문체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다.

56) Seneca, 『도덕 편지』 45.1: *Non refert quam multos sed quam bonos habeas: lectio certa prodest, varia delectat. Qui quo destinavit pervenire vult unam sequatur viam, non per multas vagetur: non ire istuc sed errare est.*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여 읽는 방식에 대한 마지막 환기로 끝난다.

독서할 때에는 반드시 한 책을 철저히 읽어 그 의미와 의도를 끝까지 이해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다른 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양을 추구하거나 수많은 책 사이를 분주히 헤집고 다니는 데 힘쓰지 말라.⁵⁷⁾

울곡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언급하는 방대한 문헌 전체 안에는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그 교육 과정에 포함된 모든 저작은 전체 체계와 함께 맞물려 있다. 오늘날 우리의 독서 습관은 경전을 읽을 때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불일치나 긴장에 민감해져 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울곡에게는 오직 알은 독서만이 그러한 긴장을 발견할 뿐이며, 텍스트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면 그러한 긴장은 사라진다. 세네카 역시 자기 지적 전통에 대해 이와 비슷한 해석학적 태도를 공유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모두 똑같이 훌륭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애써 하나만 떼어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디에 눈을 돌리든, 나머지가 똑같이 훌륭하지 않았다면 단독으로도 뛰어났을 만한 것을 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저작에서 그저 빠르게 조금 맛보려는 희망은 버려야 한다. 그대는 그것들을 전체로 읽고, 전체로 붙잡아야 한다. 주제는 그에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져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제거하면 무너져버릴 하나의 지적 산물이 구성되어 있다. 다만 실제 인물 전체를 붙잡고 있는 한, 개별 지체들을 연구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여인이란 발목이나 어깨가 칭찬받는 여인이 아니라, 전체 모습이 개별 부분들로부터 우리의 감탄을 빼앗아 가는

57) 『격몽요결』 4장, “若異端雜類不正之書，則不可頃刻披閱也.”

58) 같은 곳, “凡讀書，必熟讀一冊，盡曉義趣，貫通無疑，然後乃改讀他書，不可貪多務得，忙迫涉獵也.”

여인이다.⁵⁹⁾

이 모든 것이 짧은 *sententia*의 가치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경전적 몸체와 깊이 씨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한번 율곡과 정주학 전통 전체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육왕학 계열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그들이 방대한 책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도에 대한 정확한 앎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네카와 율곡은 세계의 진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 책과 저자들의 권위를 평가하는 데서는 분명히 갈라진다. 율곡은 대다수 유교 전통의 대표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전이 진리를 말한다고 확신한다. 만약 맹자가 맹자가 아니었다면, 『서경』의 일부 구절에 대한 그의 엄격한 평가는 대중의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반대로 세네카는 자신의 정신적 독립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히 진보하고 있는 사람이 화려한 문구들을 붙잡거나 외운 몇몇 상투구에 기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는 자기 발로 서야 한다. 그는 그 말들을 기억해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해야 한다. 나 이 든 사람, 혹은 거의 나이 든 사람이 교과서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제논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59) Seneca, 『도덕 편지』 33.4-5: *Non possumus, inquam, licet temptemus, educere aliquid ex tanta rerum æqualium multitudine (...) Quocumque miseris oculum, id tibi occurret quod eminere posset nisi inter paria legeretur. Quare deponere istam spem posse te summatim degustare ingenia maximorumvirovum: tota tibi inspicienda sunt, tota tractanda. <Continuando> res geritur et per lineamenta sua ingenii opus nectitur ex quo nihil subduci sine ruina potest. Nec recuso quominus singula membra, dummodo in ipso homine, consideres: non est formosa cujus crus laudatur aut brachium, sed illa cujus universa facies admirationem partibus singulis abstulit.*

말하는가? “클레안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명령 아래 행군할 것인가? 주도권을 잡아라. 그대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될 만한 말을 하라. 그대 자신의 창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라. 그러므로 나는 결코 저자가 되지 못하고 늘 해석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고귀함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배워 온 것을 감히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로 기억력을 훈련해 왔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기억한다는 것은 암기한 것을 붙들고 있는 일이다. 반대로 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모범에 의존하거나 스승의 지시를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제논은 이렇게 말했고, 클레안테스는 저렇게 말했다.” 그대와 책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라! 언제까지 학생일 것인가? 이제는 스승도 되어라.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을 왜 들어야 하는가? 그는 “말로 직접 들으면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말하는 사람이 필경사처럼 남의 말을 빌리고 있을 뿐이라면 말이다. 결코 자기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들은 모두가 이미 독립을 선언한 문제들에서 지도자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이어 아직도 탐구되어야 할 문제들에서도 그들을 따른다. 이미 발견된 것에 만족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추종자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아니, 그들은 찾아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가? 내가 선배들의 발자취를 걷지 않겠다는 말인가? 나는 참으로 옛 길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더 곧고 굴곡이 적은 다른 길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 학설들을 전개한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안내자이다. 진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아직 누구에게도 점유되지 않았다. 뒤에 올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이 남아 있다.⁶⁰⁾

60) Seneca, 『도덕 편지』 33.7-11: *Certi profectus viro captare flosculos turpe est et fulcire se notissimis ac paucissimis vocibus et memoria stare: sibi jam innitatur. Dicat ista, non teneat: turpe est enim seni aut prospicienti senectutem ex commentario sapere. 'Hoc Zenon dixit:' tu quid? 'Hoc Cleanthes:' tu quid? Quousque sub alio moveris? impera et dic quod memoriatradatur, aliquid et de tuo profer. Omnes itaque istos, numquam auctores, semper interpretes, sub aliena umbra latentes, nihil existimo*

이것은 율곡과 정주학(程朱學) 계열의 학자들이 단순한 추종자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사유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조선·일본에서 이 전통을 계승한다고 자처한 학자들이 보여 준 창조성은 그 반대를 분명히 증명한다.⁶¹⁾ 그러나 율곡과 그의 동료들은 결코 세네카의 선언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정신적 독립성을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네카는 자신이 ‘그 누구의 해방 노예’도 아니며, 자기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의 이름도 지니지 않는다고까지 자부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고대인들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 붙인다. 오히려 우리 선배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그는 “나는 위대한 이들의 견해를 크게 신뢰하지만, 동시에 내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권리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 질문들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⁶²⁾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

habere generosi, numquam ausos aliquando facere quod diu didicerant. Memoriam in alienis exercuerunt; aliud autem est meminisse, aliud scire. Meminisse est rem commissam memoriæ custodire; at contra scire est et sua facere quæque nec ad exemplar pendere et totiens respicere ad magistrum. 'Hoc dixit Zenon, hoc Cleanthes.' Aliquid inter te intersit et librum. Quousque discas? jam et præcipe. Quid est quare audiam quod legere possum? 'Multum' inquit 'viva vox facit.' Non quidem hæc quæ alienis verbis commodatur et actuari vice fungitur. Adice nunc quod isti qui numquam tutelæ suæffunt primum in ea re sequuntur priores in qua nemo non a priore descivit; deinde in ea re sequuntur quæ adhuc quæritur. Numquam autem invenietur, si contenti fuerimus inventis. Præterea qui alium sequitur nihil invenit, immo nec quærit. Quid ergo? non ibo per priorum vestigia? ego vero utar via vetere, sed si propiorem planioremque invenero, hanc muniam. Qui ante nos ista moverunt non domini nostri sed duces sunt. Patet omnibus veritas; nondum est occupata; multum ex illa etiam futuris relictum est.

61) 간략한 개관으로는 Ivanhoe (2016)를 보라.

62) Seneca, 『도덕 편지』 45.4: *Non enim me cuiquam emancipavi, nullius nomen fero; multum magnorum virorum iudicio credo, aliquid et meo vindico. Nam illi quoque non inventa sed quærenda nobis reliquerunt.*

덕 편지』 84편에 나오는 세네카의 유명한 벌의 비유가 등장한다.

우리는 흔히 말하듯 벌과 같아야 한다. 벌들은 먼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꿀을 만들기에 가장 알맞은 꽃들을 고른 다음, 모은 것을 벌집 전체에 나누어 둔다. 우리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말하듯, 달콤한 꽃꿀이 부풀어 오른 방들을 채우고 투명한 꿀이 흐르게 한다. 우리도 이 벌들을 본받아야 한다. 다양한 독서에서 모은 것들을 먼저 분리해야 한다. 사물은 구별되어 있을 때 더 잘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의 재능이 지닌 주의와 능력을 적용하여, 그 다양한 표본들을 하나의 맛으로 결합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것이 어디에서 취해졌는지가 분명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취해진 원천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 없이도 행하는 일과 같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은 자기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 속에서 고체로 떠다니는 동안에는 부담이 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원래의 모습에서 변화되면, 그제야 우리의 힘에 더해지고 피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재능을 기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이루자. 우리가 섭취한 것들이 온전한 덩어리로 남아 있도록 허용하지 말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들자. 그것들을 소화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재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억 속을 지나갈 뿐이다. 우리의 생각을 그들의 생각에 충실히 맞추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여럿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통일성이 생기게 하자. 이는 여러 작은 합을 포함하는 하나의 산술 문제와 같다. 많은 개별 숫자들은 하나의 총합이 된다. 우리의 정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정신은 기여한 모든 것을 감추고 결과만을 드러내야 한다. 설령 그대가 깊은 인상을 남긴 어떤 존경하는 저자와 닮은 점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대가 조각상처럼 그를 닮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 그를 닮기를 바란다. 조각상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인가? 독자들이 내가 누구의 문제, 누구의 논법, 누구의 잘 다듬어진 표현을 모방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리라는 말인가?”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재능이 큰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모범에서 끌어온 모든 요소 위에 자기 형식을 새겨 넣어,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통일체 속에 들어맞게 한다면 말이다.⁶³⁾

따라서 세네카가 사유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 파괴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진리에 대한 더 나은 통일적 이해를 찾던 오류 가능한 인간들이었다. 그러한 스승들의 합당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차례로 스스로 스승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선배들의 작업에서 이익을 얻어 그들이 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배움으로 향하는 길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책을 통해 옛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현전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63) Seneca, 『도덕 편지』 84.3 & 5-8: *Apes, ut aiunt, debemus imitari, quævagantur et flores ad mel faciendum idoneos carpunt, deinde quidquid attulere disponunt ac per favos digerunt et, ut Vergilius noster ait, 'liquentia mella stipant et dulci distendunt nectare cellas.'* (...) *Nos quoque has apes debemus imitari et quæcumque ex diversa lectione conguessimus separare (melius enim distincta servantur), deinde adhibita ingenii nostri cura et facultate in unum saporem varia illa libamenta confundere, ut etiam si apparuerit unde sumptum sit, aliud tamen esse quam unde sumptum est appareat. Quod in corpore nostro videmus sine ulla opera nostra facere naturam (alimenta quæaccepimus, quamdiu in sua qualitate perdurant et solida innatant stomacho, onera sunt: at cum ex eo quod erant mutata sunt, tunc demum in vires et in sanguinem transeunt), idem in his quibus aluntur ingenia præstemus, ut quæcumque hausimus non patiamur integra esse, ne aliena sint. Concoquamus illa: alioqui in memoriam ibunt, non in ingenium. Adsentiamur illis fideliter et nostra faciamus, ut unum quiddam fiat ex multis, sicut unus numerus fit ex singulis cum minores summas et dissidentes computatio una comprehendit. Hoc faciat animus noster: omnia quibus est adiutus abscondat, ipsum tantum ostendat quod effecit. Etiam si cuius in te comparebit similitudo quem admiratio tibi altius fixerit, similem esse te volo quomodo filium, non quomodo imaginem: imago res mortua est. 'Quid ergo? non intellegetur cuius imiteris orationem? cuius argumentationem? cuius sententias?' Puto aliquando ne intellegi quidem posse, si magni vir ingenii omnibus quæ ex quo voluit exemplari traxit formam suam inpressit, ut in unitatem illa competant.*

이 과거의 철학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대가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더 행복하고 자기 자신과 더 편안한 상태로 돌려보내지 않을 일이 없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빈 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든 인간이 찾아갈 수 있다.⁶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

이 철학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대에게 죽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죽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대의 세월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각자는 자신의 세월을 그대와 나누어 줄 것이다. 그들 중 누구와 나누는 대화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고, 우정도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의 교제도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그대가 답을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이 사람들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과 얼마나 훌륭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는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게 될 것이며, 날마다 자기 자신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욕 없이 진실을 들을 수 있고, 아침 없이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을 빚어 갈 모범을 얻게 될 것이다.⁶⁵⁾

64) Seneca,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14.15: *Nemo horum non vacabit, nemo non venientem ad se beatorem, amantorem sui dimittet, nemo quemquam vacuis a se manibus abire patietur: nocte conveniri, interdiu ab omnibus mortalibus possunt.*

65) 같은 책, 15.1-2: *Horumnemo annos tuos conterit, suos tibi contribuit: nullius ex his sermopericulosus erit, nullius amicitia capitalis, nullius sumptuosa observatio. Feres ex illis quicquid voles: per illos non stabit quominus quantum plurimumcupieris haurias. Quæ illum felicitas, quam pulchra senectus manet, qui se inhorum clientelam contulit! Habebit cum quibus de minimis maximisque rebusdeliberet, quos de se cottidie consulat, a quibus audiat verum sine contumelia, laudetur sine adulatione, ad quorum se similitudinem effingat.*

바로 이것이야말로 다시 말해 *revertere ad priores*와 상우(尙友)의 참된 의미이다. 곧 옛사람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과 벗이 됨으로써 자기 수양을 이루는 것이다. 공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Sagely Learning and the Written Word Cicero, Seneca, and Yulgok's *Gyeongmong yogyeol*

Stéphane Mercier *

Philosophy in the Roman world is traditionally understood as the *studium sapientiae*, the “study” or “pursuit of wisdom.” Study or learning (學, *xué*) is also central to progress toward sagehood according to Confucius. But the process is not so much the acquisition of book-learning as the cultivation of the self through moral practice. It is true, however, that progress is stimulated by books and the example of great men, who speak to us in their works, through the places they frequented, and the objects once in their possession. The moral concerns of acquiring scholarly knowledge through these various means is central to the thinking of Seneca, of Cicero,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Eurasian continent, of Yulgok, especially in his treatise aimed at a younger audience, the *Gyeongmong yogyeol* (擊蒙要訣). The present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is understanding of study or learning as a means to reach sagehood according to those three major thinkers.

Key Words

Yulgok, Roman philosophy, Korean Confucianism, Cicero, Seneca

* Administrator, Institut Européen de Recherches, études et Formations

한국경학학회 회칙

제 1 장 總則

제1조 (名稱) 본회는 韓國經學學會라 한다.

제2조 (目的) 본회는 韓國 및 東亞細亞 經學의 종합적 연구를 目的으로 한다.

제3조 (事業) 본회에서 수행할 事業은 다음과 같다.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의 開催

學會誌 發刊

經學 研究의 국제 교류

기타 필요한 事業

제 2 장 會員 및 任員

제4조 (會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하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명예회원은 경학 연구에 공헌이 많은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된다.

회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會長) 본회는 會長 1인을 둔다.

會長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管掌하고 對外的으로 본회를 代表한다.

會長은 總會에서 선출하고 그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6조 (副會長) 본회는 副會長 약간 명을 둔다.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회장 有故 時 그 직무를 代理한다.

副會長은 會長이 위촉한다.

제7조 (監事) 본회는 監事 2인을 둔다.

監事は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監査하여 總會에 보고한다.

監事は 總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理事) 본회는 總務理事, 研究理事, 渉外理事, 出版理事 각 약간 명을 둔다. 理事는 會長이 選任한다.

회장은 필요시 이사 외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顧問) 본회는 총회의 추대에 의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장 機構

제10조 (總會) 總會는 會員으로 구성한다.

定期總會는 年 1회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會員 1/10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會

長이 이를 召集한다.

總會는 豫算·決算 및 事業計劃의 認准, 會長·監事の 選出, 會則의 改定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總會的 安건은 出席 회원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會則의 改定은 出席 회원 2/3 이상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分科委員會)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연구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運營委員會) 運營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 構成하며, 본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제13조 (編輯委員會)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 執行한다.

編輯委員은 會長이 위촉하며 그 任期는 2년으로 한다.

編輯委員長은 편집위원 중에서 會長이 선임한다.

學會誌 간행을 위한 논문 審査 運營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內規를 정하여 공정히 운용한다.

제 4 장 財政

제14조 (財政) 본회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 有志者의 贊助金, 기타 收入金으로 한다. 단, 會費는 年會費와 終身會費로 구분되며 內規로 정한다.

附 則

제1조 본 회칙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通過日로부터 發效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14년 3월부터 시행한다.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의 學會誌 『經學』에 게재할 論文의 投稿에 관한 절차를 定하고 관련 업무를 規定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제3조 (著作權)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에 掲載된 論文 등의 著作權은 本 學會가 소유한다. 著作權에는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포함한다. 다만, 掲載된 論文 등의 筆者가 本人의 論文 등을 使用할 경우에는 學會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이를 承認한다.

제4조 (논문의 성격)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은 經學과 關聯이 있는 전공 學術 論문을 비롯하여 관련 글, 소식 등을 收錄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學術성을 지닌 역주도 할 수 있다.

- 1) 논문은 다른 學術誌(학위 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學術성을 지닌 역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3) 論文 掲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 (발행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되, 6월 30일과 12월 31

일에 발간한다. (규정 수정, 2023년 6월 30일)

제6조 (투고 시한) 원고 투고 시한은 5월 중순과 11월 중순으로 한다. (규정 수정, 2023년 6월 30일)

제7조 (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200매를 超過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할 수 있다. (규정 수정, 2026년 1월 6일)

제9조 (논문 提出處) 투고 원고는 학회 JAMS(<https://confucianclassics.jams.or.kr>)로 제출한다. (규정 수정, 2026년 1월 6일)

제10조 (게재료) 研究費를 받아서 수행된 論文을 掲載할 경우, 편 당 30만원의 掲載料를 投稿者가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 (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학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도 수록할 수 있다.
- 2)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의 순서로 작성한다. 단 본격 논문이 아닌 서평 등의 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로 한다.
-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교신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교신저자 이름 바로 뒤에 교신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규정 수정, 2026년 1월 6일)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 · ○○○(교신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 ○○○(교신저자)]
-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 8)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만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단 그 논문의 성격상 중문초록이 의미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문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9) 脚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20면.

홍길동(2000) 참조.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홍길동 외(2000).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조선인(1988); 한국인(2000) 참조.

홍길동(2000; 2001a; 2001b) 참조.

홍길동(2001b), 66~67면; 조선인(1988), 35~36면;

한국인(2000), 42~47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홍길동 · 조선인(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 조선인 · 한국인(2000).

홍길동 외(2000).

- ⑥ 原典 資料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書名 및 卷數,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1』 卷17, 「爲李仁榮贈言」, 372면.

『正宗大王實錄』 卷32, 正祖 15년 2월 丁巳. 201~202면.

- ⑦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135.

Henderson, Gregory(1957), p.19.

James, Palais(1975), ibid., p.107.

Henderson, Gregory(1957), op. cit., pp.20~21.

10) 參考文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 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朝鮮王朝實錄』 46 『正宗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7.

-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한다. (규정 수정, 2026년 1월 6일)

예) 홍길동(1998), 『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 편(1999), 『편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2000), 「논문 제목」, 『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2001a),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홍길동(2001b),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2002), 「논문 제목」, 한국한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4월 5일~6일.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Henderson, Gregory(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VI, No.3.

1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회지명 등 - 『 』

②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

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③ 강조, 간접 인용 - ‘ ’

④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
는 기호 생략), 대화 - “ ”

12) 본문 및 각주에서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기본적인 구두점(쉼표·마침표·물음표·느낌표·따옴표)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적 원칙에 따라 여타의 부호를 추가 표기할 수 있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編輯委員會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회칙에 따른 編輯委員會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規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 (構成)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제4조 (編輯委員의 委囑)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 1)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 2) 세부 전공 분야의 포괄성(한중일의 문학, 역사, 철학 등 한국 경학의 제분야를 망라함)
- 3)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 4) 學者로서의 名望과 人格

제5조 (編輯委員長의 選任)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 중에서 會長이 선임하되,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編輯委員會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 (編輯委員의 任期) 편집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編輯委員會의 任務)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 執行한다.

- 1)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會 規程과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

程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제9조 (編輯委員會의 召集) 편집위원회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隨時로 召集한다.

제10조 (編輯委員會의 成立)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闕席한 경우에는 編輯委員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1조 (編輯委員會의 議決)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다만, 贊反 同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審査委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審査委員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제13조 (匿名성과 秘密 維持) 審査用 原稿은 반드시 匿名으로 하며, 審査에 관한 諸般 事項은 編輯委員長 책임 하에 對外秘로 하여야 한다.

- 1) 匿名성과 秘密 維持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인해 심사위원에게 重大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闕席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審査 節次)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編輯委員會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判定 所見을 編輯委員會에 제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투고 논문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
- 4)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修正 要求 事項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결과 ‘게재 불가’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6) ‘게재 가’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投稿者는 論文審査書를 수령한 후 所定期日 內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7)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 중에서 修正 要求 事項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해명된 論文에 한하여 掲載를 최종 결정한다.

제15조 (審査의 基準)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2)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 자료 검증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
의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3) 게재 여부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게재 여부 결정의 條件)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각 審査委員의 심사 결과 '게재 가'의 경우 3점, '수정 후 게재'
의 경우 2점, '게재 불가'의 경우 1점을 부여한다.

2)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8-9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가'로 판정한다.

3)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6-7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4)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3~5점 이하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編輯委員會에서 掲載 與否를 최종 결정
한다.

6)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 이상
이어서 해당 호에 모두 수록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부여받
은 점수에 근거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7조 (異議 申請) 투고자는 審査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異議
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異議申請書を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異議申請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에서 異議申請의 受諾 與否를 결정한다. 수락한 異議申請에 대한 조치 방법은 編輯委員會에서 결정한다.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경학』에 발표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경학』에 투고한 연구자는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4조 (적용 범위)

- 1) 이 규정은 『경학』 공모 논문 심사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경학』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도출과 출판,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4)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6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개·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① 타 연구자의 발상,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

는 행위.

-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학위 논문 포함)의 내용을 출처나 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하는 행위.
 - ⑤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
 - 6) 피조사자 - 제보 또는 연구 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단,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7) 예비 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 8)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 9) 판정 -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제7조 (편집위원 윤리 규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전 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관 분야 전공자에게 회장이 위임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 피제보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후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① 예비 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 통보
- ②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보호
- ③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부의 사항

제10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본 학술지 투고 논문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

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 (예비 조사의 절차)

-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 내용이 제4조 각 항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3) 예비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예비 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5) 예비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기초 정보
 - ② 연구 부정행위 혐의 조사의 대상이 된 논문 및 관련 조항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 (본조사의 절차)

- 1) 본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본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가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신원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하고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조사 결과 보고)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연구윤리위원 명단과 기초 정보

제18조 (판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
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편집위원회
로 이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
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
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예비 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총무진이 보관하
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23조 (연구윤리 규정 시행지침)

-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經學 論文 審査書

대상 논문						
심사위원	심사자 : 소 속 :					
평가	평가 등급	A(5)	B(4)	C(3)	D(2)	E(1)
	평가 지표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자료 검증					
평가 기준	게재: 20~25, 수정 후 게재: 17~19, 게재 불가: 0~16 (게재불가 :15)					
판정 소견 또는 게재 시 수정 요구 사항						
위와 같이 심사 판정합니다. 202 심사위원 : ㉡						

한국경학학회 임원

고 문 : 김언중(고려대 명예교수),
이기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최석기(경상대), 이강재(서울대)

회 장 : 김승룡(부산대)

부 회 장 : 양원석(고려대)
신원철(안양대)

총무이사 : 최금자(부산대), 윤선영(고려대)
연구이사 : 양원석(고려대), 김수경(공주대)
섭외이사 : 원용준(충북대), 전성건(안동대), 이승률(중국 산둥대)
편집이사 : 윤선영(고려대)

감 사 : 노경희(조선대), 당윤희(건국대)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원)

- 1) 대학에서 경학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번역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 2) 경학 연구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3) 경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기관회원) 경학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공공도서관.

3. (특별회원) 그 밖에 경학에 관심이 높고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

— 입회 안내

본 학회 홈페이지의 입회 안내문을 따라 회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개인회원: 연 5만 원, 종신회비 50만 원

기관회원: 연 5만 원

혜택: 학회지 증정, 학술대회 초청

계좌 번호: 농협 302-1018-3462-11 김승룡

* 학회 입회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tudyclassic@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원고 모집 안내

한국경학학회에서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학회 학회지 『경학』에 게재할 원고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성격/분량

- 학술 논문—고전의 정리 및 경학과 관련한 연구 성과물(번역서에 대한 학술적 비평도 포함)/ 원고지 130매 이내
- 연구사 정리—기존 경학 연구 논저에 대한 연구사 정리
/ 원고지 100매 이내
- 서평 : 경학 연구서 REVIEW—경학 연구 비평 또는 학술 회의 관전 소개
/ 원고지 50매 이내
- 원로 회고 —경학 연구에 참여한 노학자의 경학과 관련한 자유로운 주제
/ 원고지 제한 없음

2. 원고 제출: 학회 E-mail (studyclassic@naver.com)

3. 원고 마감: 매년 5월 중순, 11월 중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양원석(고려대)

편집위원 김용재(성신여대)	박순철(전북대)
당윤희(건국대)	노경희(조선대)
전병철(경상국립대)	전성건(국립경국대)
서대원(충북대)	원용준(충북대)
김수경(국립공주대)	노명동(홍콩침회대)
김배의(대만사범대)	강지은(대만대)
정선모(남경대)	

편집이사 윤선영(고려대)

편집간사 이동학(고려대)	변은미(고려대)
김소율(고려대)	

經 學 11

2026년 6월 30일 인쇄

2026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도서출판 한모임

편 집 한국경학학회

회장 김승룡

E-mail: studyclassic@naver.com

제 작 도서출판 한모임

ISSN 2713-9638

